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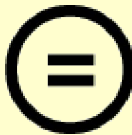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윤 숙 원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윤 숙 원

# 인 준 서

윤숙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는 산업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소비자의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복식은 고급화, 개성화, 차별화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속에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동시에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와 더불어 그에 적합한 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파악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대 정신과 개념을 이해하고, 해체주의 복식의 경향을 분석하여 니트 소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대상을 반영한 복식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와 니트의 이론적인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판된 전문서적, 국·내외 연구논문 등의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와 패션전문지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발생배경과 개념을 파악하여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를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탈현상의 4가지 경향으로 분석하고,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과 패션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보온성과 신축성 등의 이유로 중년여성들에게 선호되는 니트웨어를 젊은 연령대에서도 수용 가능하도록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한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젊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위하여 중년층의 니트웨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트 개념 보다는 단품끼리의 코디네이션이 용이한 캐주얼웨어를 중심으로 20~30대 여성의 실용성을 지닌 독특한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하여 디자인 컨셉을 정한 후, 수편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섯째, 제작된 작품을 토대로 향후 복식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deconstruction)는 형성된 것을 해체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구조주의의 한계상황 즉, 자아나 주체를 객관화시키고, 개체를 구조에 포함하는 전체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개념이다.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전략을 여러 디자인적 측면에서 활용도가 빈번한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의류 용도로서의 섬유는 편물(Knit)과 직물(Woven)로 구분할 수 있다. 편물은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로 코(loop)를 만들어 차례로 연결하여 선 혹은 면 상태로 구성하는 기법 및 그 작품을 가리키는데, 한 가닥의 실이 코를 형성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직물에 비하여 좋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 드레이프성,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생산성, 성형성, 전선, 컬업(curl up) 또한 직물에 비하여 높다. 반면 방추

성, 내구성 등은 직물에 비하여 낮은 특성이 있다.

셋째, 복식에서 해체라는 용어는 전통적 구조주의의 모든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그것을 파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전략에 근거한 해체주의 복식에서의 차연은 시대별 디자인 양식 대비로 인한 형태와 과거의 흔적으로, 의미 불확정적 복식은 착장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전통적인 틀을 깨려는 시도로, 상호텍스트성은 성·T.P.O·코디네이션·소재의 상호텍스트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탈현상은 탈중심, 탈구성, 불연속, 분열과 붕괴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탈현상은 해체주의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탈중심은 중심이 기울어진 형태, 탈구성은 기존의 구성방식을 벗어난 형태, 불연속은 무질서적인 것과 비대칭적인 형태, 분열과 붕괴는 복식을 파괴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듯 해체주의 탈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분석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하였다.

다섯째,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동시에 개성 연출을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캐주얼웨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체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분석을 하였다. 니트 소재를 이용한 해체주의 디자인에 적합한 탈현상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작품은 연구 분석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3GG, 5GG, 6.5GG, 9GG, 고무편기를 이용하여 탈현상의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를 주제로 각각 3작품씩을 제작하였고, 비탈현상을 주제로 1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Ⅰ,Ⅱ,Ⅲ은 탈구성 형태의 복식으로 의복의 기능 및 목적을 해체시키고 기존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작품Ⅳ,Ⅴ,Ⅵ은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는 탈중심적 형태로 구조상의 변형을 통한 왜곡과

과장으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킴으로써 명확한 질서 아래 성립되는 복식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해체한 작품이다. 작품Ⅶ,Ⅷ,Ⅸ는 왜곡, 변형, 해체, 교란, 결집 등을 활용하여 상·하, 좌·우가 비대칭적인 구성 등으로 불연속을 표현하였으며, 작품Ⅹ,Ⅺ,Ⅻ는 의도적으로 슬래쉬하고 구멍을 내는 등 복식을 분열시키고 붕괴함으로써 인체를 노출시켜 파괴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작품Ⅼ은 비탈현상을 주제로 제작하여 탈현상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과 자유로운 코디네이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개성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대복식에서 시대상황 및 문화현상과 예술을 접목시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되며 복식의 개성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요구와 시대상을 반영한 독창적인 니트웨어의 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떠한 복식이라도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대상을 반영한 복식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복식디자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II. 이론적 배경 .....	5
1. 해체주의의 개념과 형성배경 .....	5
1) 해체주의의 개념 .....	5
2)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	6
3) 데리다의 해체주의 .....	11
2. 니트의 특성 .....	16
1) 니트의 개념 .....	16
2) 니트의 역사 .....	17
3) 니트의 특성 .....	29
III.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	33
1. 해체주의 복식 .....	33
1) 해체주의 복식의 개념 .....	33
2) 해체주의 복식의 발생배경 .....	34
3)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의한 복식디자인의 해체 경향 분석 .....	36
2. 탈현상의 복식디자인 분석 .....	59

1) 탈구성 .....	59
2) 탈중심 .....	60
3) 불연속 .....	62
4) 분열과 붕괴 .....	63
IV.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	68
1. 제작 의도 및 방법 .....	68
1) 제작 의도 .....	68
2) 제작 방법 .....	70
2. 디자인 기획 .....	72
3. 작품제작 .....	76
V. 결론 및 제언 .....	166

참고 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해체주의적 복식 형태 .....	38
<표 2> 해체주의 복식 경향 분석 .....	58
<표 3> 탈현상에 나타난 해체주의 분석 .....	67
<표 4> 디자인 컨셉 .....	75
<표 5> 작품 I , Black Butterfly의 작업지시서 .....	78
<표 6> 작품 II , Spacewalk의 작업지시서 .....	84
<표 7> 작품III , Cumulus의 작업지시서 .....	90
<표 8> 작품IV , Christmas Candy의 작업지시서 .....	97
<표 9> 작품 V , Wood Nymph의 작업지시서 .....	103
<표 10> 작품VI , Poppy Flower의 작업지시서 .....	109
<표 11> 작품VII , Over the Rainbow의 작업지시서 .....	115
<표 12> 작품VIII-1 , Scavenger Hunt의 작업지시서 .....	122
<표 13> 작품VIII-2 , Scavenger Hunt의 작업지시서 .....	124
<표 14> 작품IX-1 , Brownie의 작업지시서 .....	131
<표 15> 작품IX-2 , Brownie의 작업지시서 .....	133
<표 16> 작품 X-1 , Blue Dream의 작업지시서 .....	140
<표 17> 작품 X-2 , Blue Dream의 작업지시서 .....	142
<표 18> 작품XI , Robin Hood의 작업지시서 .....	148
<표 19> 작품XII , High-en Grunge의 작업지시서 .....	154
<표 20> 작품XIII-1 , Little Black Dream의 작업지시서 .....	160
<표 21> 작품XIII-2 , Little Black Dream의 작업지시서 .....	162

## 그림 목 차

<그림 1> The method of working basic sprang .....	27
<그림 2> 그물주머니, 새우를 잡는 산파프아 여성 .....	27
<그림 3> Child's sock in crossed-loop knitting .....	27
<그림 4> 아라비아의 니트 단편 .....	27
<그림 5> 샌달용 양말 .....	27
<그림 6> 초기 기계에서 뜬 남자용 실크양말 .....	27
<그림 7> 수도원의 제단화 -천사들의 방문 .....	28
<그림 8> 헨리 8세 .....	28
<그림 9> 엘리자베스 1세 .....	28
<그림 10> 편물카펫 .....	28
<그림 11> 소매달린 조끼 .....	28
<그림 12> 스페인 의식용 장갑 .....	28
<그림 13> Hiroko Koshino .....	42
<그림 14> Alexander McQueen .....	42
<그림 15> Vivienne Westwood 1 .....	42
<그림 16> Vivienne Westwood 2 .....	42
<그림 17> Vivienne Westwood 3 .....	42
<그림 18> Tim Van Steenberghe .....	42
<그림 19> Junya Watanabe 1 .....	43
<그림 20> Junya Watanabe 2 .....	43
<그림 21> Marcell Marongiu .....	42
<그림 22> Ralph Lauren 1 .....	43

<그림 23> Ralph Lauren 2 .....	43
<그림 24> Ralph Lauren 3 .....	43
<그림 25> Mintdesigns 1 .....	46
<그림 26> Mintdesigns 2 .....	46
<그림 27> Vivienne Westwood 4 .....	46
<그림 28> Vivienne Westwood 5 .....	46
<그림 29> Lutz .....	46
<그림 30> Martin Margiela 1 .....	46
<그림 31> Krizia Robustella .....	51
<그림 32> Ann Demelemeester .....	51
<그림 33> Yves saint Laurent .....	51
<그림 34> Hannibal Laguna .....	51
<그림 35> Junko Shimada .....	51
<그림 36> Louise Goldin .....	51
<그림 37> Vivienne Westwood 6 .....	52
<그림 38> Vivienne Westwood 7 .....	52
<그림 39> Vivienne Westwood 8 .....	52
<그림 40> Vivienne Westwood 9 .....	52
<그림 41> Nathan Jenden .....	52
<그림 42> Emma Cook .....	52
<그림 43> Issey Miyake 1 .....	56
<그림 44> Junya Watanabe 3 .....	56
<그림 45> Zac Posen .....	56
<그림 46> Martin Margiela 2 .....	56

<그림 47> Yohji Yamamoto 1	56
<그림 48> Louis Vuitton	56
<그림 49> Rei Kawakubo 1	57
<그림 50> Rei Kawakubo 2	57
<그림 51> John Galliano	57
<그림 52> Vivienne Westwood 10	57
<그림 53> Rafael Ropez	57
<그림 54> Rodarte	57
<그림 55> Martin Margiela 3	65
<그림 56> Yohji Yamamoto 2	65
<그림 57> Issey Miyake 2	65
<그림 58> Junya Watanabe 4	65
<그림 59> Yohji Yamamoto 3	65
<그림 60> Issey Miyake 3	65
<그림 61> Martin Margiela 4	66
<그림 62> Junya Watanabe 5	66
<그림 63> Rei Kawakubo 3	66
<그림 64> Jean Paul Gaultier	66
<그림 65> Vivienne Westwood 11	66
<그림 66> Vivienne Westwood 12	66
<그림 67> 작품 I, Black Butterfly의 패턴 전개도	79
<그림 68> 작품 I, Black Butterfly : 앞	80
<그림 69> 작품 I, Black Butterfly : 뒤	81
<그림 70> 작품 II, Spacewalk의 패턴 전개도	85

<그림 71> 작품Ⅱ, Spacewalk : 앞	86
<그림 72> 작품Ⅱ, Spacewalk : 뒤	87
<그림 73> 작품Ⅲ, Cumulus의 패턴 전개도	91
<그림 74> 작품Ⅲ, Cumulus : 앞	92
<그림 75> 작품Ⅲ, Cumulus : 뒤	93
<그림 76> 작품Ⅳ, Christmas Candy의 패턴 전개도	98
<그림 77> 작품Ⅳ, Christmas Candy : 앞	99
<그림 78> 작품Ⅳ, Christmas Candy : 뒤	100
<그림 79> 작품Ⅴ, Wood Nymph의 패턴 전개도	104
<그림 80> 작품Ⅴ, Wood Nymph : 앞	105
<그림 81> 작품Ⅴ, Wood Nymph : 뒤	106
<그림 82> 작품Ⅵ, Poppy Flower의 패턴 전개도	110
<그림 83> 작품Ⅵ, Poppy Flower : 앞	111
<그림 84> 작품Ⅵ, Poppy Flower : 뒤	112
<그림 85> 작품Ⅶ, Over the Rainbow의 패턴 전개도	116
<그림 86> 작품Ⅶ, Over the Rainbow : 앞	117
<그림 87> 작품Ⅶ, Over the Rainbow : 뒤	128
<그림 88> 작품Ⅷ-1, Scavenger Hunt의 패턴 전개도	123
<그림 89> 작품Ⅷ-2, Scavenger Hunt의 패턴 전개도	125
<그림 90> 작품Ⅷ, Scavenger Hunt : 앞	126
<그림 91> 작품Ⅷ, Scavenger Hunt : 뒤	127
<그림 92> 작품Ⅸ-1, Brownie의 패턴 전개도	132
<그림 93> 작품Ⅸ-2, Brownie의 패턴 전개도	134
<그림 94> 작품Ⅸ, Brownie : 앞	135

<그림 95> 작품IX, Brownie : 뒤	136
<그림 96> 작품 X-1, Blue Dream의 패턴 전개도	141
<그림 97> 작품 X-2, Blue Dream의 패턴 전개도	143
<그림 98> 작품 X, Blue Dream : 앞	144
<그림 99> 작품 X, Blue Dream : 뒤	145
<그림 100> 작품XI, Robin Hood의 패턴 전개도	149
<그림 101> 작품XI, Robin Hood : 앞	150
<그림 102> 작품XI, Robin Hood : 뒤	153
<그림 103> 작품XII, High-ed Grunge의 패턴 전개도	155
<그림 104> 작품XII, High-ed Grunge : 앞	156
<그림 105> 작품XII, High-ed Grunge : 뒤	157
<그림 106> 작품XIII-1, Little Black Dream의 패턴 전개도	161
<그림 107> 작품XIII-2, Little Black Dream의 패턴 전개도	163
<그림 108> 작품XIII, Little Black Dream : 앞	164
<그림 109> 작품XIII, Little Black Dream : 뒤	165

# I .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문화는 내재된 의미와 외형적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등을 반영하는 외형적 표현의 한 체계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재된 사상적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전쟁 이후의 후기 산업화로 이룬 경제발전은 고도 산업 사회, 정보 고속화 사회, 첨단 과학 사회, 도시화 사회를 만들었다. 예술분야에서도 그 시대의 사상과 관념을 특징짓는 예술사조의 출현으로 이어져,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의 여러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고, 예술사조의 영향을 받은 복식도 등장하게 되었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며 특정한 문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식은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인간이 만들어 낸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인간에게 가장 밀착된 표현욕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각 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이상(理想)과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따라 변화·발전하였다.<sup>1)</sup>

즉,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직접 반영하며,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속에서 인류의 변화와 발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현대 복식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의 영향은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는 큰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1)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 3.

특히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 문학, 복식, 영화, 음악 등에서 과거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현대에 적용시켜 본래의 기능적인 측면을 초월함은 물론이며 전혀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인 포스트구조주의는 관념화 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며, 서구적 인식의 중심을 이루었던 주체의 해체, 모든 것을 통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적 자아의 탈중심화, 그 자아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적 구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해체주의<sup>2)</sup>로 대표된다.

해체주의는 철학, 문학, 건축, 조각, 회화, 공업 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됨은 물론이고, 최근의 현대 복식에서도 해체경향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현대 복식은 산업화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변화되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의복을 고급화, 개성화, 차별화시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가치관, 생활양식, 그리고 개인의 개성 표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복식을 필요로 한다.

니트는 그 조건에 맞는 소재 중 한 가지로써, 신축성이 크고, 유연성이 우수하며, 방추성과 함기율이 높아 인체 활동이 편할 뿐 아니라, 관리가 용이해 기능성과 관리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하다. 반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복은 기능성과 실용성 뿐만 아니라 패션을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개성적, 심미적, 예술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복식을 예술과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예술의 실용화와 복식의 예술화를 이루며

---

2)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제 11권, 제 6호, p. 937.

독창적인 복식 디자인을 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니트 소재를 이용한 개성있고 심미적이며 예술적인 복식의 창조를 위하여,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복식의 개성화, 고급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떠한 복식이라도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 본 연구는 현대 복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시대정신과 개념을 이해하며 해체주의 복식디자인의 수용범위를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연구한다. 또한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제작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며, 나아가 사회상을 반영한 복식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세기의 한 예술사조인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에 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현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수용 가능한 개성적이며 기능성과 예술성을 지닌 니트웨어를 제작하고자 한다. 니트웨어는 40~50대 중년층에서 수트 개념으로 선호도가 높으나 캐주얼웨어 개념의 개성있고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젊은 연령대에서도 선호할 수 있는 니트웨어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 아이템인 원피스, 카디건, 베스트, 재킷, 코트, 풀오버 등의 상의 및 스커트, 핫팬츠, 레깅스 등의 하의를 선정하여 니트 소재의 특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와 니트의 이론적인 고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판된 단행본 및 간행본,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지에 발표된 선행연구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둘째,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해체주의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해체주의를 등장시킨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니트의 역사와 개념 및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실증연구를 위하여 대표적인 패션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췌한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를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 텍스트성, 탈현상의 4가지 경향으로 분석하고, 탈현상을 다시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분석한다.

넷째, 이론적 배경의 문헌연구와 패션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기계 니트를 이용하여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니트웨어 디자인에 응용하게 된 제작 의도 및 방법을 제시하며, 디자인을 기획하고, 디자인 컨셉을 정한 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간단한 수편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3GG, 5GG, 6.5GG, 9GG 편기와 고무뜨기용 수편기 즉, 가정용 수편기에 부착시켜 고무뜨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고무편기를 사용한다.

다섯째, 작품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니트웨어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니트웨어의 발전을 모색한다.

연구범위로는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응용하여 20~30대 여성을 위한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제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해체주의의 개념 및 형성배경

#### 1) 해체주의의 개념

1980년대 반이성과 무정부주의로 대변되는 시대상황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은<sup>3)</sup> 건축, 문학, 복식, 영화, 음악 등에서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다양한 전위적 운동의 전개와 실험적 시도를 추구하면서 광범위하게 발전시켰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인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는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관념화된 사고에서 탈피해 개방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포스트구조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해체주의이다.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의 해체(deconstruction)는 형성된 것을 해체하는 의미에서 쓰이거나,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며 추상적인 가설이나 내적 모순을 노출시키기 위해 쓰이며, "destruction"은 파괴하는 행위, 파괴당하는 상태, 구성의 반댓말로 프랑스어(destruere)에서 비롯되어 영어(destry=파괴하다)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즉, 건물이나 구조물을 파괴하는 행위, 조각조각내고, 작은 파편으로 만들고, 해체하고 버리는, 끝을 내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해체하는, 파괴된 상태, 상황, 사실을 뜻한다.<sup>4)</sup>

이처럼 ‘해체’라는 용어는 텍스트에 담긴 의미의 불안정성을 폭로하기 위한 읽기 및 쓰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3) 양숙향 외 2인 (2006), 패션 20세기, 서울: 교학연구사, p. 199.

4)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Second Edition in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전문 문예학자들은 매우 자의적으로 이러한 해체 이론을 일종의 비평으로써 수용해왔다.<sup>5)</sup>

‘해체’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분석 내지는 비평을 위해 해체 이론을 매우 막연하게 사용하는 비평가들 및 해설가들에 의해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특히 모더니즘적 문화 양식의 파괴와 관련해 변화와 대담한 변형에 대한 합법적인 표상으로서 이러한 해체를 활용하고 있다.<sup>6)</sup>

## 2) 해체주의의 형성배경

서구의 형이상학 체계는 본래 플라톤의 존재론적 이원론(二元論)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지각 가능한 가변적(可變的)인 현상계(現象界)와 이 세계 이면(裏面)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물질세계를 가리키는 관념계(觀念界)로 분류하고, 현상계를 그 원형적 존재인 초월적인 관념계를 모방하는 일종의 닳은 풀, 혹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되었다.<sup>7)</sup>

서구 철학의 목적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체계 내에서 존재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현전(現前)하는 현상계로부터 획득된 지식에 기인된다는 전통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중세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 신(神)중심의 초월적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전승되었다.<sup>8)</sup>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기성찰과 자기탐구의 길이 기독교적 요소와 병합되면서 오랜 시간동안 정치, 경제, 사회에 뿌리를 내려왔으나 이성 중심주의의 허구성을 자각함으로써 해체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

5) Alison Gill (1998), “Deconstruction Fashion :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Fashion Theory*, Volume 2, Issue 1, United Kingdom: Berg Publishers, p. 26.

6) Ibid.

7) 서희선 (2006), “‘자연-해체 이미지’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 13.

8) 김성복 (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Vol. 18, No. 1, p. 489.

서구 철학의 이성론, 경험론, 인식론, 그리고 현상학 등의 철학적 과제는 어떠한 지식이 절대적 진리이며 어떻게 하면 객관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분히 방법론적인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서구 철학이 추구했던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19세기 말, 특히 니이체 이후, 극도로 부정적인 회의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sup>10)</sup>

칸트 이후에 등장한 계몽주의 사상의 전반적인 유산을 거부하는 사조인 니이체의 비이성주의는<sup>11)</sup> 이성 중심적 사유체계가 종국에 이르러 인식론적 모순에 봉착할 것이며 이러한 세계관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모순은 회의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서구 철학사에 지속되어 온 사유방식, 즉 형이상학과 인식론적 사고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였다.<sup>12)</sup>

이렇게 시작된 구조주의 철학은 예술, 철학, 인종학, 역사학, 심리 분석학, 언어기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으며,<sup>13)</sup> 언어기호학 분야를 중심으로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롤랑 바르트(Rolnand Barthes)와 같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구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세계를 재현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에 의하여 복잡하게 형성되어 좌우된다고 보았다.<sup>14)</sup> 소쉬르는 언어를 랑그(langue)와 빠롤(parole)로 구분하였으며, 랑그는 말 혹은 표현행위(parole)의 근간을 이

---

9) 서희선, op. cit., p. 18.

10) 김성복, op. cit., p. 490.

11) Christopher Norris (1988), "Deconstruction, Postmodernism and Philosophy: Habermas on Derrida", Duluth: Praxis International, p. 426.

12) 김성복, op. cit., p. 490.

13) 김혜경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 20.

14) Ibid.

루는 언어의 기본체계이고, 언어학은 빠롤이 아니라 랑그를 연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이는 빠롤이 언어를 통해 랑그를 구체화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sup>15)</sup> 이렇듯 소쉬르는 언어를 언어체계와 의사전달 행위로 구분하고, 언어학 연구 다시 말하면,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발화가 아니라 언어체계에 의한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또한 혼돈된 경험의 흐름을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드와 관습체계 덕분에 사물에 대한 지식을 무의식중에 구성하며 사고와 의미를 가진 근본적인 상대성이 구조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라 하였다.<sup>17)</sup>

소쉬르의 뒤를 이어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구조 언어학의 견해를 문화 전반에 적용하면서 상이한 문화 체계들이 지니는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신화의 상징적 체계, 또는 각기 신화들이 인간 내부에서 사유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모든 문화적 현상의 원형이 언어적 구조와 체계에서 비롯됨을 주장하였다.<sup>18)</sup>

바르트는 자신의 작문절차를 ‘은유적탐색(metaphorical exploration)’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의가 아니라 조작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19)</sup>

또한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의상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으며, 글쓰기 역시 작가의 창조적 의식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문화체계 내에서의 작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20)</sup>

---

15) 김상효 (1992),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테리다", 한국영미어문학회지, Vol. 43, pp. 30-31.

16) Ibid.

17) 김혜정, op. cit., p. 20.

18) 김성복, op. cit., p. 490.

19) Peter Brunette & David Wills (1994), *Deconstruction and The Visual Arts*, Gregory L. Ulmer, The Heuretis of D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6.

20) 김상효, op. cit., p. 34.

이렇듯 레비-스트로스와 바르트에 의하여 발전한 구조주의는 자아나 주체, 개인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고, 개체에 대한 특권을 구조에 부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내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러한 구조주의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sup>21)</sup> 포스트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를 중심으로 전개된 실존주의와 모리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 그리고 이 두 철학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구조주의의 뒤를 이어 생겨났으며,<sup>22)</sup> 데리다와 푸코(M. Foucault) 그리고 라캉(J. Lacan)을 비롯한 이론가들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고 발전된 현상이다.

바르트, 데리다, 푸코, 라캉, 료타르(J. Lyotard), 알튀세(L. Althusser), 크리스테바(J. Kristeva)와 같은 프랑스의 이론가들을 비롯하여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 제프리 하트먼(Geoffery Hartman), 헤럴드 블롬(Harold Bloom), 폴 드 만(Paul de Man)과 같은 예일 학파에 속해 있는 이론가들과 사이드와 같은 미국의 이론가들, 그리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과 같은 러시아 이론가들은 흔히 포스트구조주의자로 범주화되고 있다.<sup>23)</sup>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 개념인 해체주의는 니이체-하이데거-데리다의 계보로 이어진다.

해체론적 전복의 기회는 형이상학이 말하는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것 혹은 사유하였지만 아직 무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지시할 수 있을 때 주어진다.<sup>24)</sup>

---

21) 김주현 외 2인 (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p. 81.

22) 김옥동 (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p. 14.

23) Ibid., p. 17.

니이체(F. Nietzsche)는 자신이 서구 형이상학의 잘못된 탐구와 전적으로 결별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으며<sup>25)</sup> 진리를 위한 합리성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산출된 환영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니이체의 철학의 가치전환이 요청하는 것은 근원으로 회귀해서 이성 그 자체가 사용하는 중요한 은유들을 해체하는 노력이었다.<sup>26)</sup>

니체의 뒤를 이어 하이데거(M. Heidegger)도 서구철학의 역사는 존재문제를 무시해 버리는 대로 귀착되는 태도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시행위는 사물들의 ‘현존하는 바’ 또는 ‘현존하는 방식’ 대신에 특정한 사물들에 대한 연구로 말미암아 존재를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ontic)으로 고찰한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그것을 하이데거는 ‘존재의 망각’ 이라고 하였다.<sup>27)</sup>

또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형이상학 파괴의 의도는 의미의 다양성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그 본래의 자기동일적(自己同一的)인 원천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다.<sup>28)</sup>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해체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던 자크 데리다(J. Derrida)는 니이체의 해체정신을 전수하였지만 니이체와 비교하여 보다 철저히 구조해체를 하였으며, 해체론을 이중의 글쓰기, 이중 회기, 이중의 학문 등으로 불렀다.<sup>29)</sup>

이렇듯 해체주의의 시발점이 데리다는 아니지만 해체주의를 집대성한 인물이므로 해체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

24) 김상환 (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64.

25) 이광래 편저 (1989), 해체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p. 40.

26) Ibid., p. 45.

27) Michael Gelven, 김성룡 역 (1991), 존재와 시간 입문서, 서울: 시간과 공간사, p. 39.

28) 이광래, op. cit., p. 55.

29) 김상환, op. cit., p. 64.

### 3) 데리다의 해체주의

데리다는 기존의 사고체계와 다르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다르게 활용하였다. 그것은 어떠한 사물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비판방식이나 해석과 다르게 그것을 재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다.<sup>30)</sup> 또한 그는 형이상학 비평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원리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언급한 최초의 장본인이다.<sup>31)</sup>

1966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라는 논문에서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의 근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sup>32)</sup>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이른바 ‘존재의 형이상학’을 해체함으로써 서구 철학을 지배해 온 전통 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여<sup>33)</sup> 철학사의 전통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을 거부하였다.<sup>34)</sup>

데리다는 핵심 사상이나 논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간과하는 주변적인 은유들과 여타의 수사학적 장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sup>35)</sup>

논리적 주장의 실증되지 않은 가설 또는 구조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철학의 텍스트 즉, 가설 또는 구조들을 시, 소설, 엽서 또는 기타 유형의 글과 같은 수준에서 순수한 수사적 구문으로 얼마든지 취급할 수 있는 철학의 텍스트에 대한 문학적 접근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sup>36)</sup>

데리다의 전략은 어떤 원전이 자기의 메시지를 정립하는데 성공하고 있

---

30) Peter Brunette & David Wills, op. cit., p. 80.

31) Alison Gill, op. cit., p. 30.

32) 김성근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p. 18.

33) 김옥동, op. cit., p. 22.

34) 조선희, 서경희 (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II: 해체주의 이론의 형태구성상의 표현방법(형식적 해체)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연구, 제 15집, p. 4.

35) 이광래, op. cit., p. 113.

36) Christopher Norris, op. cit., p. 431.

음을 가정하는 대신에, 그 원전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요컨대 그는 원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대신에 원전을 해체(deconstruction)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회화, 건축, 조각, 여러 디자인 분야 등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예술분야와 관련하여 연구와 실증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즉, 데리다의 해체전략 중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차연(差延, différances)

형이상학이 자신의 체계를 조직하기 위하여 배제하던 것을 스스로 그 체계 구성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끌어들이는 절차를 발견할 때, 해체론은 재구성에서 탈구성의 학문으로 바뀐다.<sup>38)</sup>

재구성의 학문으로서의 해체론은 형이상학을 이항 대립적 개념 체계로써, 현전의 존재론이자 고유성에 대한 욕구로써 재구축하는 반면 탈구성적 학문으로써의 해체론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 회기의 조건에서부터 시작한다.<sup>39)</sup>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조건으로서 데리다는 차연을 말한다. 데리다의 해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는 차연(差延, différances, 다르다와 연기하다를 동시에 의미하는 동사 *différer*에서 나온)은 그가 ‘간격 두기(spacing)’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리고 어떠한 기호도 자기 폐쇄적인 동일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분화를 가리키는 데리다의 신조어다.<sup>40)</sup> 여기서 차이는

---

37) 이광래, *op. cit.*, p. 113.

38) 김상환, *op. cit.*, p. 164.

39) *Ibid.*

40) Penelope Deutscher, 변성찬 역 (2005), *How to read Derrida*,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p. 64.

공간개념이며 연기는 시간개념이다. 즉, 차연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sup>41)</sup>이며 무엇보다도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결정적이고 비종결적인 특성을 강조한다.<sup>42)</sup>

### (2)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행위의 형태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른 것이다.<sup>43)</sup>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즉,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불가능하며 상호언급(相互言及, inter-mention), 병행인용(並行引用, parallel-quotation), 자율적병행불가능(自律並行不可能, self-controlled parallel impossibility)을 말한다.<sup>44)</sup>

### (3) 의미 불확정성(intermeaning of meanings)

데리다는 텍스트의 통일성 및 진실성을 저해하는 모순들 혹은 이중적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텍스트의 의미란 본질적으로 결정 불가능하다고 한다.<sup>45)</sup>

이렇게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

41) 최영옥 (2001), “장 폴 콜타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제 9권, 제 4호, p. 576.

42) 김옥동, op. cit., p. 41.

43) 김원갑 (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p. 198-199.

44) 최영옥, op. cit., p. 577.

45) 이광래, op. cit., p. 127.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6)</sup> 따라서 언어는 그의 체계 속에서는 불확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언어로 표현되려는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환상, 또는 유사일 뿐이고, 결국 리얼리티 역시 허위이거나 은유일 뿐이라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sup>47)</sup>

#### (4) 탈현상(breakaway from phenomenon)

데리다는 절대적인 근원이나 기초가 되는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여<sup>48)</sup> 수학적 세계관의 출발인 이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종래의 기하학적 어휘의 완전성에 대한 부정으로서 탈현상을 나타낸다. 즉, 탈현상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sup>49)</sup>

절대성이나 총체성에 대한 데리다의 이런 입장은 이항 대립이나 이분법을 거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항 대립은 파롤/랑그, 시니피앙(sinifiant)/시니피에(signifié), 객체/주체, 진리/허위, 현상/본질, 선/악, 내용/형식, 감성/이성, 육체/영혼, 공간/시간, 수동성/능동성 등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sup>50)</sup> 데리다는 그의 이론을 통해 형이상학이 기초하고 있는 바로 이런 이항대립이나 이분법을 해체·붕괴하고자 한다.<sup>51)</sup>

결론적으로 데리다의 이론은 기존의 작품과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전제를 해체함으로써 열린의 세계로 이끌어 줌을 볼 수 있다.<sup>52)</sup> 이

---

46) 최영욱, op. cit., p. 29.

47) Ibid.

48) 김옥동, op. cit., p. 52.

49) 김주현, op. cit., p. 83.

50) 김옥동, op. cit., p. 52.

51) Ibid.

52) 김상효, op. cit., p. 49.

와 같이 해체주의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문학비평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해체주의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어야함을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sup>53)</sup>

이러한 측면에서 ‘해체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용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분석하고 분해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작품제작을 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즉, 복식의 구성적인 면을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재창조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53) 김상효, *op. cit.*, p. 49.

## 2. 니트의 특성

### 1) 니트의 개념

니트(knit)는 바늘을 이용하여 손이나 혹은 기계로 실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만든 편직물로<sup>54)</sup> 실들이 동그랗게 엮여 이루어져 수평으로 배치되거나 혹은 수직으로 배치되는 실 중 어느 하나의 구성 요소만으로도 충분한 직조를 일컫는 말이다.<sup>55)</sup> 즉, 넓은 의미로는 재료와 기법을 불문하고 모든 것의 편조직물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실 또는 끈 상태의 소재에 의하여 코(loop)를 만들어 차례로 연결하여 선 상태나 면 상태로 구성하는 수법 및 그 작품을 말한다.<sup>56)</sup>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니트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편직물, 편성물, 편물, 편포, 메리야스(medias, 메리야스), 스웨터(sweater), 저어지(jersey) 등이 있으나, 최근 사회가 글로벌화, 세계화 되면서 영어를 국가 간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통합된 합의점을 찾아 니트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현상을 보인다.<sup>57)</sup>

니트는 형성방법에 따라 위편 니트(Weft Knit)와 경편 니트(Warp Knit)로 분류된다.<sup>58)</sup> 위편 니트는 직물의 위사처럼 실이 천의 가로방향으로 연속되면서 차례로 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가닥의 실로 천을 제조한다. 반면 경편 니트는 천의 세로방향으로 실이 지그재그로 진행하면서 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편과는 달리 많은 가닥의 경사가 필요하고, 각

---

54) Jennifer Harris (1993), *5000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Company Press, p. 46.

55) Attilio Tremelloni & Leonardo Ceriani, 이선희 번역 (1990), *기계니트 I*, 서울: 도서출판 조형사, p. 7.

56) 이순홍 (2004), *編物*, 서울: 수확사, p. 9.

57) 권진 (2006),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 6.

58) Attilio Tremelloni & Leonardo Ceriani, 이선희, op. cit., p. 7.

경사에 의한 코들이 서로 연결되어 천이 형성되며,<sup>59)</sup> 천의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코를 웨일(wale), 폭 방향으로 형성된 코를 코스(coarse)라고 한다.<sup>60)</sup>

니트는 생성 초기에는 땅거나 꼬거나 묶거나 매듭을 짓는 등의 포괄적인 작업과정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명칭이 보편화되면서 특정의 위편 니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글로벌화 된 용어로 사용되면서 과거 생성 과정처럼 넓은 의미로 다시 확대되고 있으므로<sup>61)</sup> 생성 초기 포괄적 의미로써의 니트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니트의 역사

니트는 복식의 변천과 유사한 과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즉 각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배경과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기원전~4세기), 중세(5~15세기), 근세(16~18세기), 근대(19세기), 현대(20세기~현재)로 구분하여 니트의 복식 변천사를 연구하였다.

### (1) 고대(기원전~4세기)

니트의 기원은 초기의 견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 매우 모호하나<sup>62)</sup>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추측하며, 니트의 역사는 직물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sup>63)</sup>고 할 수 있다.

고대 니트 자료의 수는 적지만 그 분포지역은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현존하는 고대 니트는 대부분이 외관상으로 그 표면이나 니팅(knitting) 기법이 현재의 니트와 매우 유사하여 니트와 혼동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

59) 류덕환, 이옥자, 송민규 (2000), Apparel Material, 서울: 교학연구사, p. 194.

60) 김유경, 조대현 (2000), Fashion & Textile, 서울: 교학연구사, p. 143.

61) 권진, op. cit., p. 10.

62) Jennifer Harris, op. cit., p. 46.

63) 이순홍, op. cit., p. 9.

고 있다.<sup>64)</sup>

<그림 1>은 여러 가지 수많은 섬유구조물 중 니트와 유사한 기법으로 알려진 스프랭(sprang)으로 고대의 기법이며 비록 바늘이 아닌 프레임을 이용하여 제작되기는 하지만 니팅의 전신으로 레이스 모양의 다양한 유형의 너울(head-covering)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최초 견본은 초기 청동기 시대(약 기원전 1400년)의 덴마크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페루(기원전 1100년)와 파라오 이후 시대의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었다.<sup>65)</sup>

그물(net)은 고대부터 인간이 식물을 채취하고 운반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 식용 식물 채취용, 새를 잡는 그물, 나무 열매를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치는 그물<sup>66)</sup> 등 용도는 매우 많다. 이렇게 네팅(Netting)으로 만든 천은 어망, 울가미 혹은 너울로 사용되었을 것이며<sup>67)</sup>, 대부분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다. <그림 2>는 파프아 뉴기니아의 산악 지대에 사는 「산(山) 파프아인」이라 불리는 토인 바릅족의 젊은 여성으로 머리에서 등까지 늘어뜨린 것은 그물주머니(網裝)로 물건을 옮기는데 사용<sup>68)</sup>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과 동시에 하나의 장신구이다.

고대 페루인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과 4세기 로마-이집트인 매장지에서 나온 양말 또한 니팅과 유사한 기법을 보이지만 이 기법은 교차 고리 니팅(crossed-loop knitting)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며, 이것은 연속적인 길이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길이를 뼈바늘이나 선인장 가시에 꿰어 바느질에 더 가깝게 작업을 하였다(그림 3).<sup>69)</sup>

64) 최경희 (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 9.

65) Jennifer Harris, op. cit., p. 48.

66) 飯塚信雄 (1977), "編物の歴史(1)", *世界の編物: 保存版-3*, 東京: 日本ウォーク社, p. 213.

67) Jennifer Harris, op. cit., p. 49.

68) 飯塚信雄, op. cit., p. 211.

69) Jennifer Harris, op. cit., p. 48.

<그림 4>는 이집트의 포스타트라고 하는 고대 도시 유적에서 발굴된 아라비아 니트로 금사 바탕에 짙은 적갈색의 견사를 1인치 폭으로 36번이나 크로스드 스타킹 스티치로 짜 넣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니트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sup>70)</sup>이라고 한다.

이렇듯 고대 니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의 니트 기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sup>71)</sup>

즉, 고대 니트는 스프랭, 네팅, 넬바인딩 등의 기법이 있었으며 기하학적 문양과 아라비아의 영향으로 동양적인 색채배합 및 정교한 문양 배열을 보인다. 이는 현대의 니트에도 영향을 끼쳐 다양한 색상 배합과 정교한 문양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 (2) 중세(5~15세기)

중세 시대는 신(神)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다른 시대보다 종교와 관련된 니트 유품이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는 고대의 니트 기법과는 다른 핸드 니팅(hand-knitting)이 유럽에 전파되어 가내 수공업 형태로 발전되었던 시기이다.<sup>72)</sup> 고대의 니트가 외의용으로 활용되었다면 중세의 핸드 니트는 내의, 양말, 장갑과 같이 복식의 부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림 5>는 후기 로마 시대인 5~6세기 곱퉁 양말로 이집트 중부의 나일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양모 소재로 바늘에 의한 넬바인딩 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곱퉁 양말의 형태는 발목뼈 위를 덮고 엄지발가락을 위한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샌들을 신도록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sup>73)</sup>

7세기 중반에 아라비아인들의 이집트 정복은 서양의 핸드 니트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슬람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70) 飯塚信雄, op. cit., pp. 213-214.

71) 최경희, op. cit., p. 11.

72) 권진, op. cit., p. 15.

73) 최경희, op. cit., p. 11.

점차 유럽 각 지역에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니트웨어들도 함께 전파<sup>74)</sup>되었 으며, 9세기 경 이집트의 니트 기법은 아라비아 상인과 이집트의 무어인들에 의하여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스페인에 전해졌고 점차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중부 유럽 등지로 전파되었다.<sup>75)</sup>

10세기 경에는 연속되는 실로 짜여지는 오늘날의 손뜨개인 언크로스드 니팅(uncrossed Knitting)이 시작되었고, 13세기 경에 이르러 이탈리아, 프랑스에 정착되어져 오늘날의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대바늘뜨기의 니트가 만들어졌으며 이것들은 종교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sup>76)</sup>

프랑스 파리에서는 12세기에 생겨난 맞춤전문 양복점조합이 13세기에 점점 분화하여 편물 공업 조합으로 발전하였는데 망토, 의복, 맞춤 수선 전문점 등이 각각의 독립 조합을 갖고 남·여용품 조합도 각각 이루어져 있었고, 복식과 관련한 공업에 종사하는 인원 또한 과거 5년(1296-1300년) 동안 크게 증가<sup>77)</sup>하였을 만큼 발전하였다.

독일의 편성물은 종교적인 유대를 매개로 1,417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14세기 이전까지 니트는 일부 상류 계급의 사치품으로 사용되었으나<sup>78)</sup> 14세기 이후 고딕시대와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4세기 말 독일에서 편물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그려지게 되는데 마이스터 베르트람(Meister Bertram, 1345-1415)이라는 화가가 뜨개질을 하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것이다. <그림 6>는 어린 예수를 위해 어머니 마리아가 4개의 뜨개바늘로 상의를 짜고 있는데,<sup>79)</sup> 이 그림은 본래 ‘천사들의 방문’이라는 제목이었으나 ‘뜨개질을 하는 성모’라고 불리고 있다.

---

74) 권진, op. cit., p. 16.

75) 최경희, op. cit., p. 11.

76) Ibid., p. 12.

77) 飯塚信雄, op. cit., p. 216.

78) 권진, op. cit., p. 17.

79) 飯塚信雄, op. cit., p. 216.

15세기 말 영국의 헨리 7세의 시대에도 니트 제품들이 매우 고가의 귀중품으로 여겨졌는데 1552년 복식 금지령에 니트 양말과 니트 소매가 포함<sup>80)</sup>되어 있을 정도였다.

손뜨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세 후기로 갈수록 니트 제품의 크기가 커졌고, 색상은 더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각각 그들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니팅 기법들을 개발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질감 표현이나 스칸디나비아의 채색 문양 등의 기법들은 15세기 유럽인 이주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전해져 현재 미국 니트 발달의 다양한 기반을 만들었다.<sup>81)</sup>

중세 니트는 언크로스드 니트, 두 개 바늘의 대바늘뜨기, 색상배합의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 (3) 근세(16~18세기)

1,550년대 이탈리아의 수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正), 그리고 성배(聖杯)를 감싸는 작은 형걸 등을 코바늘뜨기인 크로셰(Crochet)로 제작하였다.<sup>82)</sup> 크로셰는 니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속적인 실이 수평의 열을 만들지만 고리가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로 연결되었다는 점이 다르며 18세기말까지 영국에서 알려졌고, 빅토리아 시대 동안에 매우 다양한 근대식 스티치가 개발되었다.<sup>83)</sup> 이후 스페인까지 전파되었고 1,700년대에는 프랑스와 북유럽까지 퍼져나갔다.

중세 종교 주축의 문화는 근세에 이르러 왕권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핸드 니트가 활성화되고 유럽을 거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며 기계 니트의 개발에 따른 니트 제일의 혁명인 기계화가 시작되었던 시

80) 이순홍, op. cit., p. 7.

81) 최경희, op. cit., p. 14.

82) 권진, op. cit., p. 17.

83) Jennifer Harris, op. cit., p. 49.

기이다.<sup>84)</sup> <그림 7>은 니트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초기에 짜여진 남자용 실크 양말이다.

16세기 영국의 편물은 헨리 8세와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그림 8>에서 헨리 8세가 쓰고 있는 베레모는 짜서 팬트 가공하였으며 스타킹도 실로 짠 것이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오늘날 팬티스타킹 같이 폭이 좁은 바지를 신축성이 있는 직물<sup>85)</sup>을 사용하여 만들어 입었다.

<그림 9>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에서 들여 온 견으로 된 스타킹을 애용하여 상류계급에까지 보급되었고, 이 시기에는 독특한 문양이나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된 손뜨개 실크 스타킹과 긴 양말이 유행하였다.<sup>86)</sup> 이처럼 엘리자베스 시대의 자수와 편물이 크게 발전을 이룰 무렵에 북이탈리아에서는 레이스가 탄생하여 스페인과 벨기에, 그리고 그 후 프랑스에 이어 영국에까지 전파되며 발전하였다.

중세 북 유럽인들이 제작한 대형 그림이 있는 벽걸이는 편물 카페트 또는 타피스트리(tapestry)라 불리었는데<sup>87)</sup> 중세 이래 가장 중요한 실내 장식품이었다. 크기는 약 1.8X1.5m가 표준이고 털실을 사용하여 페르시아 카페트처럼 모양을 한 면 가득 짰으며, 바탕이 되는 천에 털실을 찢러 넣어 직물 같은 느낌을 낸 것이다.

<그림10>의 편물 카페트는 베를린의 슈로스 뮤지엄 박물관 소장품으로 1731년 작품인데 적, 녹, 청, 근, 담청, 흑, 황, 암적, 담갈색 등 12가지 색을 사용하고 1인치에 5스티치 비율로 짜져있다. 특히 긴 뜨개바늘을 사용하여 프레임에 걸어 짜여졌다.<sup>88)</sup>

---

84) 권진, op. cit., p. 18.

85) 飯塚信雄, op. cit., p. 347.

86) 권진, op. cit., p. 18.

87) Jennifer Harris, op. cit., p. 24.

88) 飯塚信雄, op. cit., p. 352.

<그림 11>은 테라코타 색의 견사에 금사를 섞어 짠 소매가 있는 조끼로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움에 소장되어 있는 17세기 작품이다. 바탕의 견사는 스타킹 스티치, 금사는 펄(purl) 스티치로 짜였고 꽃모양의 아우트라인에는 푸른 견사가 사용<sup>89)</sup>되어 있다. 이러한 견사 니트는 궁정 귀족만이 착용하던 고급품이었다.

니트 제품의 의류 중 또 한 가지 예로서 장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은 16세기 스페인의 의식용 장갑으로 붉은 견사와 금사로 짠 것이다. 4개 내지 5개의 뜨게 바늘을 사용한 라운드 니팅으로 엄지 손가락 만든 따로 짜서 본체에 갖다 붙였다. 이 후 17,18세기에는 목면제의 긴 편물 장갑이 유행하게 되고 견사 또는 목면 계통으로 짠 병어리장갑은 19세기 말까지 그 인기를 유지하였다.<sup>90)</sup>

16세기 후반 영국의 윌리엄 리(William Lee)는 아내가 손뜨개질로 하는 양말 만드는 부업의 능률을 높이하고자 윌리엄 리 호젠 (William Lee Hosen)이라는 양말 편물기계<sup>91)</sup>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하였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니트 기계의 전파에 따른 니트 수공업자들의 실직을 우려하여 보급을 규제하였다.<sup>92)</sup> 또한 다른 국가로 니트 기계의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원치 않아 수출을 엄격히 금지 하였지만,<sup>93)</sup> 18세기에 미국에 정착한 영국인들에 의하여 미국으로 핸드 니트와 기계 니트가 전래되었다.

핸드 니트(hand knit)는 17세기와 18세기에 번성했는데 핸드 니팅이 당시 부인들에게 적당한 여가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sup>94)</sup> 17세기와 18세기에는 전통적인 핸드 니트의 번성과 니트 기계의 보급으로 유럽 전역에 급

---

89) 飯塚信雄, op. cit., p. 352.

90) Ibid.

91) Anne L. Macdonald (2008), *No Idle Hands*, New York: Ballentine Books, p. 5.

92) 권진, op. cit., p. 19.

93) Anne L. Macdonald, op. cit., p. 5.

94) Jennifer Harris, op. cit., p. 46.

속한 니트의 발전을 가져왔다.

#### (4) 근대(19세기)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당시 기계 니트 산업의 선도국이었던 영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계들이 고안되었으며, 니트 산업의 발달이 늦었던 북유럽과 북미에도 18세기가 되면서 니트 기계가 도입되어<sup>95)</sup> 전 유럽의 기계 니트가 발달하였다.

1849년에는 영국의 타운젠트(Townshend, Mathew)가 베라 바늘을 발명하여,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양말 산업이 수동식에서 동력을 이용한 자동식 메리야스 산업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양말에서 내복으로, 그리고 겹옷의 제작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sup>96)</sup> 패브릭이 정교해지고 실용성과 함께 심미적인 측면도 중요시 작용하여 장식적이며 예술 감각이 뛰어난 니트웨어가 나타났다.<sup>97)</sup>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아이켄(Aiken)의 어메리칸 패밀리 니팅 머신(American Family Knitting Machine)은 1855년에 특허를 받아 보급에 주력하였지만, 기계로 만들어진 니트 제품이 고급스럽지 않았고<sup>98)</sup>, 여성들은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핸드 니트를 선호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은 받지 못했다. 또한 1885년, 여성들이 가사에 더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써 여성들이 니팅(knitting)으로 인해 사교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자연주의의 배경에 힘입어 핸드 니트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내의 뿐만 아니라 외출복에도 핸드 니트가 유행하였

95) Jennifer Harris, op. cit., p. 23.

96) 이순홍, op. cit., p. 19.

97) 권진, op. cit., p. 24.

98) Anne L. Macdonald, op. cit., pp. 140-141.

고 수편용 모사가 양모 방적으로부터 공급되어 다양하게 짜여졌다.<sup>99)</sup>

근대 니트는 중산층의 여가 선용과 기계 니트의 개발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근세에 비하여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된 조직들이 많이 나타났다.

#### (5) 현대(20세기~현재)

1889년에는 런던에서 ‘일반 편물 교본’이 출판되었고, 여성 잡지에 편물의 무늬가 게재되었으며<sup>100)</sup> 20세기 초, 인쇄기술의 발달로 편물 문양책이 발간됨으로써 간편하고 실용적인 뜨개 기법이 일반인에게 확산되었고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지역적인 문양과 디자인이 다른 지역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여가시간이 많은 상류층과 중산층 여인들은 종교와 자선을 목적으로 뜨개질을 많이 하였다.<sup>101)</sup>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소품이나 내의류 범위에 머물던 니트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니트가 의복의 유행으로까지 등장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기능주의의 발전과 함께 실용적인 니트웨어를 좋아하게 되었다.<sup>102)</sup> 또한 적십자(Red Cross)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니트웨어인 머플러, 스웨터, 양말, 손목보호대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콘테스트 형식의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니트 제품인 소매달린 스웨터, 어깨솔, 스카프,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스커트와 스웨터를 입었지만, 스웨터는 ‘집에서 입는 옷’ 혹은 ‘활발히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sup>103)</sup>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1936년 스위스에서는 파사프(passap)라는 수편기가 발명되었고 제 2차

---

99) 최경희, op. cit., p. 21.

100) 이순홍, op. cit., p. 19.

101) 권진, op. cit., p. 26.

102) Ibid.

103) Anne L. Macdonald, op. cit., pp. 250-251.

세계대전 이후로는 합성섬유의 출현과 편기 및 전자공업의 발달에 따른 고무편기가 출현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는 전자식 무늬 작성방식의 실용화 등 각종 편기들이 개발되어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기계 자동화로 다양한 무늬 및 편성으로 현재 니트웨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sup>104)</sup>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합성섬유의 보급과 기계의 발달로 수편기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였고, 전자 공업 발달에 따른 고속 기계가 출현하였고 스웨덴의 보후스(Bohus) 지방에서는 불경기 동안 여성들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니트제품을 사업화하여 보후스(BOHUS)라는 상표로 판매되었으며<sup>105)</sup> 1960년대 전자식 무늬의 작성 방식이 실용화되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이 시기 의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벤트레(Ventre)그룹은 런던 근교에서 양말편기, 환편기 등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하였고, 서독의 모라트(Morat)사가 1963년에 일렉트로닉(electronic) 환편기인 모라트로닉(Moratronic)을 개발한 후 각국에서 컴퓨터 니트 환편기의 개발이 진행되는 등 점차 컴퓨터 니트의 발달로 니트웨어 대다수가 기계에 의해 생산<sup>106)</sup>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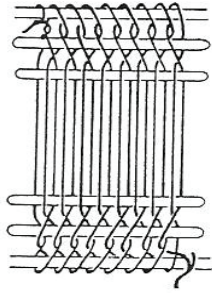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해 온 니트웨어는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디자인을 개성화, 고급화하여 개발한다면 현대 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4) 이순홍, op. cit., p. 20.

105) 권진, op. cit., pp. 26-27.

106) Ibid., p. 27.



<그림 1> The method of working basic sprang (5,000years of Textiles, British Museum Company Press, p. 48)



<그림 2> 그물주머니, 새우를 잡는 산파프아 여성 (世界の編物, 日本ウォーグ社, p.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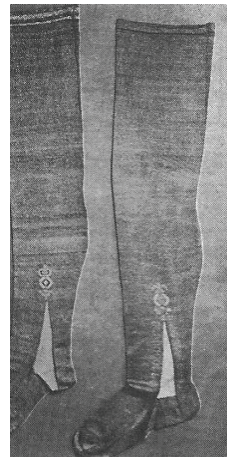
<그림3> Child's sock in crossed-loop knitting (5,000years of Textile, British Museum Company Press, p. 48)



<그림 4> 아라비아의 니트 단편 (世界の編物, 日本ウォーグ社, p. 214)



<그림5> 샌달용 양말 (編物, 수학사, p. 12)



<그림 6> 초기 기계에서 뜬 남자용 실크양말 (編物, 수학사,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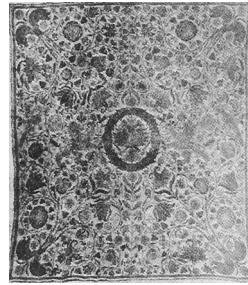
<그림 7> 수도원의  
제단화  
-천사들의 방문  
(編物, 수확사, p. 14)



<그림 8>헨리 8세  
(서양복식사,  
수확사, p. 155)



<그림 9> 엘리자베스  
1세  
(서양복식사, 수확사,  
p. 158)



<그림 10> 편물카펫  
(世界の編物,  
日本ウォーク社,  
p. 352)



<그림 11> 소매달린  
조끼  
(世界の編物,  
日本ウォーク社, p. 352)



<그림 12> 스페인 의식용  
장갑  
(世界の編物, 日本ウォーク社,  
p. 353)

### 3) 니트의 특성

의류 용도로서의 섬유를 크게 분류하면 직물과 편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긴장 상태로 교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만 편물의 경우는 한 가닥의 실이 코를 형성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 혹은 신장성이 풍부하며<sup>107)</sup> 유연성, 드레이프성, 방추성, 다공성, 전선, 컬업(curl up), 내마찰성 등의 특성이 있다.

#### (1) 신축성

신축성은 니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다. 편물은 코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편물을 구성하는 실의 부분들이 비교적 유연한 상태이고 외력에 의하 쉽게 변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외력이 제거되면 코의 성질상 원상태로 회복되기도 한다.<sup>108)</sup> 직물에 비하여 웨일, 코스, 바이어스 방향 모두 크게 늘어나지만 그 중 코스 방향으로의 신축성이 더 크다.

신축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 밀도, 편성방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위편은 신축성이 풍부한 반면에 경편의 신축성은 매우 적은데, 이는 코를 형성하는 순서 즉 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위편은 코스 방향으로 코가 구성되므로 그 방향으로 장력을 주면 코 자체가 과형으로 늘어나며 웨일 방향으로 장력을 주면 코의 직선부가 평행으로 될 때까지의 신축이 있을 뿐 웨일 방향의 신축은 적다. 경편은 웨일 방향이나 코스 방향 어느 쪽으로도 신축이 빈약한데, 이것은 경편의 코 형태가 사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109)</sup>

이러한 이유로 위편은 어패럴, 실내장식용 천, 가공 직물 등에 사용되고, 경편은 위편에 비해 밀도가 치밀하고 신축성과 벌크성이 적으므로 서

107) 김유경, 조대현, op. cit., p. 146.

108) 강희명 (2005).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니트 디자인연구”, 박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p. 57.

109) 류덕환, 이욱자, 송민규, op. cit., p. 203.

츠, 블라우스, 레이스 등에 사용된다.<sup>110)</sup>

#### (2) 유연성, 방추성

니트는 섬유와 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매우 부드럽고, 니트로 만든 옷은 구속감을 주지 않아 유연성과 활동성이 좋다. 또한 주름이 잡히지 않으면서 늘어나고 열을 차단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인포멀 웨어나 스포츠 웨어로 각광을 받았다.<sup>111)</sup> 세탁 후에도 다림질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지만, 형태 유지능력이 부족하며, 장시간의 착용이나 세탁에 의하여 치수와 형태가 변하기 쉽다.<sup>112)</sup>

#### (3) 드레이프성, 성형성

니트는 드레이프성이 우수하여 착용자의 몸에 잘 맞아 실루엣을 잘 살릴 수 있고, 니팅 과정에서 편성기의 패턴을 조정하고 코를 계획적으로 동작시키지 않으므로 의류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천의 폭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부분에 부가 접속시키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성형성은 재단에 의한 재료의 낭비를 줄이고 실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직물에 비해 무늬 또는 조직을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공예적, 수예적 감각을 발휘하여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sup>113)</sup>

#### (4) 다공성

직물의 보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밀도, 두께, 조직, 공기 투과도, 흡습성, 함기성, 열전도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중 섬유 자체가 열을 얼마나 전도하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은 열전도율이 가장

110) 안영무(2000). 직물학. 서울: 수확사. p. 155.

111) Jennifer Harris, op. cit., pp. 46-48.

112) 김성련 (2006), 새 의류소재, 서울: 교문사, p. 58

113) 최경희, op. cit., p. 7.

낮은 물질인 공기가 의복 내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에 의해 보온성이 좌우된다.<sup>114)</sup> 그러므로 니트는 일반 직물에 비하여 함기율이 크기 때문에 보온성이 크며, 특히 재료가 양모일 경우 보온성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부피에 비하여 가볍고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아 매우 위생적인 소재라 할 수 있는 반면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냉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5) 경제성

니트는 직물에 비해 제편 속도가 3-5배나 빠르므로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것을 다시 고쳐서 뜨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직물과 매우 다른 점이다. 또한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영업 경영이 가능하여 부업적인 실이익을 올릴 수 있으며 상품으로서 다량 생산하여 산업화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15)</sup>

#### (6) 전선

위편에 있어서 코를 형성하고 있는 편사가 외부로부터의 변형에 의하여 절단되었을 경우 조직을 이루고 있는 코가 코스 방향으로 천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차례로 풀어지고, 또한 웨일 방향으로 풀어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을 전선 혹은 런(run)현상 이라고 한다. 전선현상은 편성물의 큰 결점 중의 하나이지만 경편에 있어서는 코가 매 코스 형성될 때 항상 싱커 루프가 사방향으로 근접한 웨일 방향에 연결시키는 이유로 한 가닥의 편사가 절단되었을 경우 외부의 장력을 받아도 절단된 코 이외에는 풀어지지 않는데, 이는 경편이 두 개의 가이드 바에 의하여 한 코스의 조

---

114) 김인숙 (2004), "기계 편직물에 의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여성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 11.

115) 이순홍, op. cit., p. 24.

직이 만들어지므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다.<sup>116)</sup>

#### (7) 컬 업

대부분의 니트는 가장자리가 휘말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컬 업 (curl up)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선과 컬 업은 니트의 재단과 봉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니트의 단점이지만, 고무편이나 가터 편 같은 양면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sup>117)</sup>

#### (8) 내마찰성

니트는 마찰에 의하여, 모제품은 축융이 되어 두터워지고 수축되기 쉬우며 인조섬유 제품은 필링이 생기는 등 표면의 형태가 변화되기 쉽고 마찰강도도 좋지 않다.<sup>118)</sup> 또한 비교적 꼬임이 적은 방적사나 장식사 등을 사용하므로 마찰에 약하고 내구성이 적어 마찰에 의한 필링이 생겨 광택이 떨어지고 외형이 쉽게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sup>119)</sup>

이러한 니트의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니트웨어 디자인의 독창성, 생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

116) 류덕환, 이육자, 송민규, op. cit., p. 203.

117) 이순홍, op. cit., p. 24.

118) 김성린, op. cit., p. 59.

119) 최경희, op. cit., p. 7.

### Ⅲ.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 1. 해체주의 복식

##### 1) 개념

해체주의는 건축, 미술, 연극,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패션에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영향이 가시화 되었다.

패션에서의 해체(deconstruction)라는 용어는 패션 브랜드인 썸 드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디자이너인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를 비롯해 칼 라거펠드(Karl Lagerfeld),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앤 드몰리미스터(Ann Demeulemeester) 및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의 작품과 관련이 있으며, ‘미완성된’, ‘부서지는’, ‘재활용된’, ‘투명한’, ‘조악한 혹은 불품없는’ 의류들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sup>120)</sup> 또한 의복 구성상의 봉제선이 없어지고 소매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적 구조주의의 모든 고정 관념을 거부하며 그것을 파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와 비서구적 전통을 표현한 일본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에 의하여 제 1세대 해체주의 복식이 1980년대 초에 이미 표현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앤 드몰리미스터, 장 콜로나(Jean Colonna), 라민 코야트(Lamine Louyate), 코지 타수노(Koji Tatsuno), 마틴 마르지엘라 등의 현대를 대표하는 여러

---

120) Alison Gill, op. cit., p. 25.

디자이너들이 활약하였다.<sup>121)</sup>

패션에서 처음으로 ‘해체주의’ 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였으며, 패션계에 본격적인 해체주의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89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마틴 마르지엘라의 기성복 컬렉션에서 였다.<sup>122)</sup> 여기서 보여진 의류들은 역설적으로 구성, 착용, 폐기를 중단하면서<sup>123)</sup> 기존 관념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렇듯 해체주의 패션은 의복에 대한 기존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하여 찢기, 구기기, 자르기, 비대칭구조, 봉제선 없애기, 울 풀기 등 평범하지 않은 표현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sup>124)</sup>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로 형태미의 불확정성, 탈양식, 탈의미적 형태 등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 2) 발생배경

1993년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arold Koda)는 인프라 어패럴(Infra-Apparel)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집에서 1980년대 꾸뛰르(couture)패션과 기성복 패션 분야에서 1990년대 초의 본격적인 트렌드에 통합되었던 해체주의적인 경향들을 통찰력 있게 조망하고 있다.<sup>125)</sup> 1980년대는 서로 다른 문화나 주제가 복합되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이 다양하게 표출된 시기<sup>126)</sup>로 인한 패션에서의 새로운 스타일의

---

121)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나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8, No. 1, p. 113.

122) 최영옥, op. cit., p. 579.

123) Alison Gill, op. cit., p. 28.

124) 조정미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제 11권, 제 6호, p. 937.

125) Alison Gill. op. cit., p. 27.

126) 금기숙 외 (2002),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p. 270.

부상을 그 발생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생활의 긴축으로 이어졌으며 해체된 의복은 전통적인 상징성을 거부하며 역설적인 스타일과 의미를 부여하며 나타났다.

또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부정함에 따라, 소위 파괴라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대중의 다양한 미의식이 새로운 패션의 태동을 자극하고, 디자이너는 그들의 행동에 자극되어 앤티 패션(anti-fashion)을 주도하게 되었다.<sup>127)</sup>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레이 가와쿠보는 명백한 파괴성을 드러내는 의복을 만들었으며, 90년대 패션에서 해체를 시도한 디자이너들은 의복을 분리하여 재구성하거나 해체하였으며,<sup>128)</sup> 소매나 칼라 등이 위치해야 할 부분에 전혀 다른 요소들을 부착하고 소재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김을 주어 변형,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1990년대 스타일은 자연주의, 민속풍, 복고풍이 패션 테마의 주류를 이루었고, 거리 패션의 영향<sup>129)</sup>을 받아 의도적으로 구멍을 만들고, 손상하고, 찢고, 흠집을 내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해체주의 복식의 전환점을 가져온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그는 복식의 균형을 파괴시키고 형태를 무너뜨려 만든 탈구성적 의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중력방향의 수직·수평적 앞 중심선 등을 탈피하고 비대칭적인 사선으로 비구조적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패션에서의 해체주의 디자인의 흐름에 있어 초기 세대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는 의미적 해석으로써 디자인에 파격을 가져온 반면 후기 세대들은 분석적이고 구조주의적인 합리화의 우회적 표현으로<sup>130)</sup>

127) 최영옥, op. cit. p. 578.

128) 조정미, op. cit., p. 937.

129) 금기숙 외, op. cit., p. 298.

130) 조정미, op. cit., p.937.

해체주의적 패션을 유도하는 등의 전위적인 기법들이 시도되었다.

### 3)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의한 복식디자인의 해체 경향 분석

해체철학 자체가 디자인의 존재성을 위한 은유적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철학의 현주소가 문화의 현주소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곧 복식의 그것에도 반영 확산됨을 다양한 부분에서 볼 수 있다.<sup>131)</sup>

그러므로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통한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해체주의 복식디자인에 적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복식디자인의 해체 경향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김혜정<sup>132)</sup>, 정세희<sup>133)</sup>, 최영옥<sup>134)</sup>, 김주현<sup>135)</sup>, 김지연<sup>136)</sup>, 이영재<sup>137)</sup>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데리다의 해체전략인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 4가지를 복식 디자인에서의 해체적 표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김혜정은 시·공간을 조율한 형태를 차연, 겹쳐입는 형태를 탈현상, 무성·양성적 형태와 부조화 코디네이션 상호 텍스트성, 의복구성의 파괴 및 탈중심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세희는 무성·양성적 형태와 탈 T·P·O를 상호 텍스트, 부조화 코디네이션, 의복구성의 파괴, 연속적 해체, 탈중심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최영옥은 시·공간을 조

131) 임현숙, 박민여 (1999), "20세기말의 패션", 생활과학논집, Vol. 3(1), p. 114.

132) 김혜정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33) 정세희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34) 최영옥 (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제 9권, 제 4호.

135) 김주현 외 2인 (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136) 김지연 (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37)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나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8, No. 1.

을한 형태와 중고 스타일을 차연, 부정형과 겹쳐입는 형태를 의미 불확정성, 무성·양성적 형태, 란제리룩, 탈 T·P·O, 부조화 코디네이션을 상호 텍스트성, 의복구성의 파괴, 연속적 해체, 탈중심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주현은 시·공간을 조율한 형태를 차연, 겹쳐입는 형태를 의미 불확정성, 무성·양성적 형태와 탈 T·P·O를 상호 텍스트성, 의복구성의 파괴, 연속적 해체, 탈중심적 형태, 찢기고 구멍난 파괴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지연은 시·공간을 조율한 형태, 중고 스타일, 재활용 스타일을 차연, 부정형을 의미 불확정성, 무성·양성적 형태, 란제리룩, 탈 T·P·O, 부조화 코디네이션을 상호 텍스트성, 의복구성의 파괴, 연속적 해체, 탈중심적 형태, 찢기고 구멍난 파괴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영재는 겹쳐입는 형태를 의미 불확정성, 무성·양성적 형태와 탈 T·P·O를 상호 텍스트성, 의복구성의 파괴와 탈중심적 형태를 탈현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선행연구에서 분석되었던 해체주의적 복식 형태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해체주의적 복식 형태

해체적 복식형태	논저	김혜정	정세희	최영옥	김주현	김지연	이영재
시·공간을 조율한 형태		차연		차연	차연	차연	
중고 스타일				차연		차연	
재활용 스타일						차연	
부정형				불확정		불확정	
겹쳐입는 형태		탈현상		불확정	불확정		불확정
무성·양성적 형태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란제리룩				텍스트		텍스트	
탈T.P.O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부조화 코디네이션		텍스트	탈현상	텍스트		텍스트	
의복구성의 파괴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연속성 해체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중심적 형태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탈현상
찢기고 구멍난 파괴적 형태					탈현상	탈현상	

## (1) 차연

해체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인 차연(差延, différances, 차이와 연기를 의미하는 동사)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sup>138)</sup> 과거-현재-미래의 시대별 양식을 혼용하거나 과거의 양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하여 시대별 양식 대비가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아 소재와 색이 바래고 닳은 듯한 복식 혹은 과거 정치, 사회, 경제의 영향으로 물자가 부족했던 시기를 연상하게 하는 복식 또는 자원재활용의 의미를 내포한 복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 탈·변색되고 울이 풀리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한다거나 솔기를 외부로 노출시켜 빈티지·그린지·리싸이클룩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과거가 흔적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거스타일에 대한 해체주의 복식디자인은 히로코 코시노(Hiroko Koshi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비비안 웨스트우드,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랄프 로렌(Ralph Lauren) 등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히로코 코시노는 일본 전통과 서양적인 것을 접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유럽 귀족의 의상을 모티브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3).

<그림 14>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서 유럽의 궁중 호위병들이 착용하였던 재킷에 고대 그리스의 튜닉(tunic)을 변형한 것과도 같은 스커트를 조합하여 클래식한 분위기이다. 또한 남성 고유의 것으로 사용되어졌던 의상을 현대 여성복식에 사용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의 가치관과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현대의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

138) 김주현, op. cit., p. 580.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과거의 양식을 인용하여 복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 스타일로 재창조하고자 하였다. 표범무늬의 상의와 짧은 속옷과도 같은 하의를 매치함으로써 거칠고 원시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으며 허리에 두르는 벨트 역시 원시시대에는 풀을 엮어 만들었겠지만 모던한 직물을 이용하여 과거에 현대를 접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하였다(그림 15). 또한 <그림 16>은 고대 로마의 토가(toga)를 연상시키며 파스텔톤의 옷감으로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 연출시켜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고대 지중해의 의상을 연상시키는 <그림 17>은 체크 패턴의 재킷과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을 접목시켜 모던 룩을 지향하였다.

<그림 18>은 벨기에 디자이너인 팀 반 스텐베르겐의 작품으로 고대 그리스의 키톤(chiton)과 유사한 상의와 현대적인 구성으로 봉제된 스커트의 조화는 에스닉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 13>에서 <그림 18>은 각기 다른 시대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특징적인 양식들을 접목시켜 과거와 현대가 대비를 이루며 공존하는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일본 디자이너 준야 와타나베의 작품으로 체크 패턴의 슬랙스에 천을 덧대어 빈티지한 스웨터, 핑크한 사슬벨트와 신발을 코디네이션하여 그런지 룩을 연출하였다(그림 19). <그림 20>은 전쟁터의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을 재활용하여 재구성한 작품으로 여기 저기 덧대어진 하의, 인체에 비하여 필요이상으로 여유있게 입혀진 상의는 타인의 것을 입은 듯한 느낌을 준다.

프랑스 디자이너 마르셀 마롱지유는 울이 풀린 상의를 모던한 팬츠와 매치시켜 해진 느낌의 오래된 것과 새것을 코디네이션 한 듯한 느낌이며 상의의 시스루 룩은 더욱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였다(그림 21).

<그림 22>에서 <그림 24>는 랄프 로렌의 작품들로 시간이 지나 소재가 닳고 해진 느낌을 데님 소재를 이용하여 과거의 흔적으로 표현하였다. 커리어우먼의 지적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정장이지만 패치워크 방식으로 제작된 소재를 사용하여 빈티지한 느낌을 강조하였다(그림 22).

또한 빈티지한 데님셔츠의 루즈한 실루엣은 서부영화에 나올 것 같은 옛 농장의 노스탤지아(nostalgia)를 연상하게 하며 그와 매치된 에스닉한 액세서리는 또 다른 스타일의 연출로 이어졌으며,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스커트와 깊이 파인 네크라인의 원피스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반면 그 위에 걸친 가디건은 소매를 길고 길게 늘어뜨리는 동시에 세월이 흘러 닳아 해진 데님의 느낌을 강조하여 현대적인 빈티지 룩을 표현하였다(그림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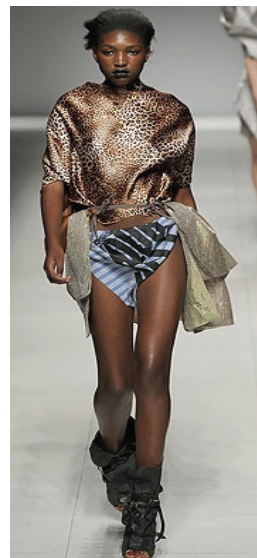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19>에서 <그림 24>에서는 과거가 현재에 흔적으로 남는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림 13>  
Hiroko Koshino  
(09 S/S Gap Collection)



<그림 14>  
Alexander McQueen  
(09 S/S Gap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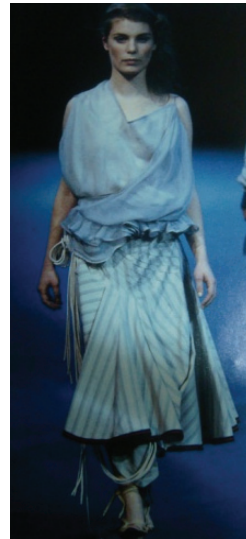
<그림 15>  
Vivienne Westwood 1  
09 S/S, London  
(www.fashionbiz.co.kr)



<그림 16>  
Vivienne Westwood 2  
09 S/S, London  
(www.fashionbiz.co.kr)



<그림 17>  
Vivienne Westwood 3  
09 S/S, London  
(www.fashionbiz.co.kr)



<그림 18>  
Tim Van Steenberg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19>  
Junya Watanabe 1  
06 F/W Collection  
(www.naver.com)



<그림 20>  
Junya Watanabe 2  
06 F/W Collection  
(www.naver.com)



<그림 21>  
Marcel Marongiu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22>  
Ralph Lauren 1  
(06 S/S COLLEZIONI)



<그림 23>  
Ralph Lauren 2  
(06 S/S COLLEZIONI)



<그림 24>  
Ralph Lauren 3  
(06 S/S COLLEZIONI)

## (2) 의미의 불확정성

텍스트의 의미는 주관에 근거한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39)</sup>

이러한 의미 불확정적 의복의 바탕에는 인체에 착용한 후 그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한 일본 전통 복식이 있는데,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등은 전통적인 유럽 형태에서 벗어난 서양의 육체관념에 반대되는 의상을 창조하였다.<sup>140)</sup>

이들은 일본 전통 복식에서 영향을 받아 두르거나, 묶거나, 매는 여밈의 복식을 선보여 옷을 입는 사람의 착장 방식에 따라 각각의 형태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천 또는 합성물질이나 종이 같은 색다른 소재를 넓은 형태로 인체에 그대로 트레이핑 하였다.<sup>141)</sup>

이러한 방법으로 소재의 선택과 인체에 착용하는 행위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직선적인 재단법은<sup>142)</sup> 신체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라인이 생길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특별한 형태나 형식을 미리 고정시키지 않고 착용자에 의하여 완결된다.

이렇듯 예상하지 못한 실루엣과 시·공간적(時空間的) 효과를 창조하였는데,<sup>143)</sup> 이는 서양 복식이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형태를 갖는 것과 크게 다르다.

코디네이션의 불확정성은 이러한 맥락에 따른 유행이며, 착장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것<sup>144)</sup>으로, 기존의 틀을 깨려는 해체주의의 또 다

139) 김성곤 (1989),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0.

140) Gertrude Lehnert, 박수진 역 (2005), Schnellkurs Mode: 패션. 서울: 도서출판 예경, p. 177.

141) Ibid.

142) 김주현. op. cit., p. 581.

143) Gertrud Lehnert, op. cit., p. 177.

144) 최영옥, op. cit., p. 580.

른 방법이다.

민트디자이너의 <그림 25>와 <그림 26>은 완성되지 않은 소매와 스커트의 허리둘레 부분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루즈하게 하면서 옷을 입었다는 느낌보다 직물을 걸쳤다는 느낌이 강하다. 상의의 어깨에 두르고 있는 술은 몸판과 이어져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반면 가슴의 실루엣은 제거되었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허리둘레의 곡선이 가려져 인체의 곡선미를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미완성의 소매 끝부분을 손으로 말아 쥔 형태와 스커트를 제작하려던 원단으로 미완성된 스커트를 대신하여 착장한 듯한 <그림 27>은 완성된 복식이 아닌 제작 과정 중에 있는 디자인으로 보일 만큼 미완성의 느낌이 강하며 착장자가 의도하는 어떠한 형태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또한 <그림 28>은 스카프가 몸판과 이어져 연장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착장 하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이미지가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옷을 입었다는 느낌보다는 여유있는 분량으로 원단을 몸에 걸쳤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이다.

상의의 연장선상에 스카프 형태가 존재하며 후드형식으로 착용 가능한 복식이며 상·하의의 부조화와 미완성의 이미지가 강한 러츠의 작품이다 (그림 29). <그림 30>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으로 안감과 비슷한 느낌의 상의와 필요 이상의 레이어를 겹친 하의는 스커트 위에 또 다른 원단을 둘러 묶은 느낌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작품 전체적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림 25>  
Mintdesigns 1  
(09 S/S Gap Collection)



<그림 26>  
Mintdesigns 2  
(09 S/S Gap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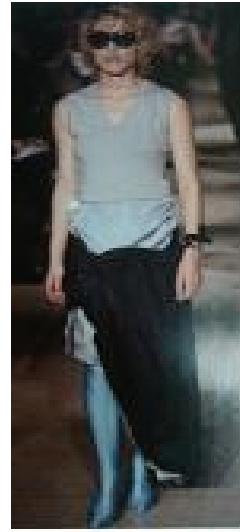
<그림 27>  
Vivienne Westwood 4  
09 F/W Pari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8>  
Vivienne Westwood 5  
09 F/W Paris  
(www.samsungdesign.net)



<그림 29>  
Lutz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30>  
Martin Margiela 1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 (3) 상호텍스트성

해체주의 이론에서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며, 텍스트는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sup>145)</sup>

이러한 텍스트는 자율적 혹은 독립적으로 존재 불가능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복식에서 상호텍스트성은 복식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여 복식과 비복식의 경계선에서 병행인용으로 전환하고 다원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146)</sup>

성의 상호텍스트성은 성(gender)의 고정관념을 파괴하여 양·중성적 이미지의 복식으로 나타나는데, 양성적 복식은 리본이 달린 여성용 블라우스, 셔링이 잡힌 스커트 등 남성복에 여성 복식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키고, 여성복에는 남성복의 형태와 아이템 등을 적용한 앤드로지너스 룩의 형태로 표현되며, 남·여의 성을 배제하고 각각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중성적 복식은 유니섹스 룩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을 다룬 디자이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마틴 마르지엘라, 장 폴 고티에, Yves Saint Laurent ) 등이 대표적이다.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속옷과 작업복 등을 외출복으로 한다거나 스포츠·리조트웨어 등을 시·공간과 목적에 관계없이 복식에 표현하는 것으로 란제리 룩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때·장소·목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계절에 따른 복식의 고정관념이 파괴된다.

이러한 특성을 다룬 디자이너로는 준코 시마다(Junko Shimada), 루이스 골딘(Louise Goldin),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이 있다.

---

145) 김주현. op. cit., p. 580.

146) 이영재. op. cit., p. 114.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은 작업복에 모피를 결합시키거나 속옷을 겹옷 위에 결합시키는 등의 목적이 다른 결합, 용도가 다른 결합 등 전혀 이미지·목적·용도가 다른 아이템간의 부조화를 표현한다.

이렇듯 해체주의 복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에 대한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다룬 디자이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앤 드몰리미스터, 마틴 마르지엘라, 장 폴 고티에 등이 대표적이다.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소재개발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및 개인의 자아실현 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복식 소재 또한 다양해졌다.

1960년대에는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주복에서 영감을 얻은 미래적 디자인의 의상이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eges), 파코 라반(Paco Rabanne) 등의 디자이너에 의하여 선보였는데,<sup>147)</sup>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 형태의 변화뿐 만이 아니라 플라스틱·금속·체인으로 옷을 만들어 복식 소재의 영역을 넓히고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sup>148)</sup>

이렇듯 소재의 상호텍스트성은 신소재 또는 직물이 아닌 의외의 소재를 복식에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복식 양식을 표현하며 비비안 웨스트우드, 파코 라반, 이세이 미야케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성의 상호텍스트성을 표현한 <그림 31>은 여성스러운 핑크를 사용하여 정형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반면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여성성을 탈피하여 활동적이면서 귀여운 스타일을 표현한다.

<그림 32>은 앤 드몰리미스터의 작품으로서 여성적인 실루엣을 제거하

147) 금기숙 외, op. cit., pp. 213-214.

148) 최영옥, op. cit., p. 580.

고 통이 넓은 바지를 서스펜더로 매치시키면서 앞길의 기장이 짧은 재킷으로 발달한 이미지이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없으면서도 슬렉스의 부드러운 소재로 아름다움과 엘레강스한 느낌을 준다. 또한 입생 로랑은 박스 스타일의 재킷 안에 가슴과 허리라인을 강조하는 의상이 있다.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오는 바지의 실루엣은 활동적인 여성의 느낌인 반면 전체적으로 톤다운(toned-down)된 컬러로 침체된 느낌이 들며 어깨 패드를 사용한 각진 숄더라인은 남성성을 표현한다(그림 33).

T.P.O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나타나는 란제리 룩과 시스루 룩 스커트의 조합으로써 사선으로 내려오는 의상의 전체적인 라인이 강렬한 인상을 주고 내의를 겉으로 드러내면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자신감과 존재감을 표현한다(그림 34). <그림 35>은 준코 시마다의 작품으로 작업복과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백을 코디네이션하여 아이템 간의 부조화를 표현하였다. 이렇듯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복식을 착용할 경우 디자인의 정체성에 의미를 한층 강조한다. <그림 36>는 마치 내의와 운동복의 하이브리드라고 느껴진다. 오랜 세월 감추고 있던 이너웨어를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복식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가능성과 변화된 가치관을 표현한다. 슬리브리스 상의에 덧입은 시스루 소재는 내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표현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에는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에 나타나는 특성을 <그림 37, 38>에서 신사의 나라 영국의 국기를 연상하게 하는 색상이 쓰인 하의와 원시시대를 연상시키는 표범무늬 솔을 두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연상단어들의 부조화는 이 의상에 그만큼 더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지퍼가 내려간 바지, 그 속으로 드러나는 속바지는 스트리트 룩을 연상시키는 반면 캐주얼의 티셔츠와 바지의 실루엣이 그런지하면서도 포멀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지퍼가 내려간 바지를 끈으로 매듭지어 고정하고 있으며 그 속으로 드러나는 빨간 속바지가 바지의 색상과 드라마틱

하게 대조되면서 골드컬러의 상의, 그리고 그 위에 걸쳐입은 비즈니스 포멀한 재킷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며 새로운 스타일을 표현한다(그림 39).

<그림 40>은 수많은 리본 매듭 장식으로 신체를 포장하였다. 이 원피스는 마치 버려진 비닐을 재활용한 듯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의상과 코디네이션 한 모자는 무광택의 친환경적 소재로 비닐소재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표현한다. 나단 쟈덴(Nathan Jenden)은 수많은 코사지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텍스처로 인위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그림 41). <그림 42>은 전체적으로 색상은 통일하고 소재에 변화를 주어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였다. 시스루 룩을 완성시키고 의상에 전체적인 광택을 주면서 재킷의 구성선들과 앞단, 밑단을 감싸고 있는 블랙 라인은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강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림 31>  
Krizia Robustella  
(09 S/S Gap Collection)



<그림 32>  
Ann Demelemeester  
(09 S/S Gap Collection)



<그림 33>  
Yves Saint Laurent  
(09 F/W Gap Collection)



<그림 34>  
Hannibal Laguna  
(05 S/S COLLEZIONI)



<그림 35>  
Junko Shimada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36>  
Louise Golden 1  
(09 S/S Gap Collection)



<그림 37>

Vivienne Westwood 6  
09 S/S Collection  
(www.samsungdesing.net)



<그림 38>

Vivienne Westwood 7  
09 S/S Collection  
(www.samsungdesing.net)



<그림 39>

Vivienne Westwood 8  
09 S/S Collection  
(www.samsungdesing.net)



<그림 40>

Vivienne Westwood 9  
09 S/S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41>

Nathan Jenden  
(09 S/S Gap Collection)



<그림 42>

Emma Cook  
(09 S/S Gap Collection)

#### (4) 탈현상

탈현상은 서구 철학의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작업<sup>149)</sup>으로 일반적인 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말하며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sup>150)</sup> 또한 닫힌 체계 내에서 지배받는 대상물을 거부하고 시간과 공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함으로써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체주의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탈현상은 기존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중력이라는 고전적 규범에 대한 열린 사고로 존재한다.<sup>151)</sup>

레이 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등의 디자이너들이 기존의 의복 구성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고, 장 폴 콜티에, 마틴 마르지엘라,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활발히 표현되었다.

<그림 43>는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플리즈 기법의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원피스이다. 소매와 스커트 밑단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반중력적인 탈중심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준야 와타나베는 재킷의 지퍼와 스커트 앞 부분에 있는 지퍼 장식이 서로 다른 방향의 사선으로 연출되며 스커트 밑단이 기울어져 시각적으로 안정성은 낮지만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준다(그림 44).

<그림 45>은 원피스 드레스의 밑단을 대칭형의 사선으로 처리하여 선택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또한 앞중심선에 위치한 디자인 선으로 시각적으로 스커트 밑단의 기울기를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149) 임현숙, 박민여, op. cit., p. 114.

150) 김주현, op. cit., p. 581.

151) 김혜정, op. cit., p. 91.

탈구성의 형태를 보이는 작품 <그림 46>에서는 상의는 케이프를 변형한 듯한 디자인에 슬림한 팬츠를 코디네이션하여 심플한 이미지를 준다. 상의의 어깨는 과장되게 확대시키고 각을 이루어 밑단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주머니 입술을 만들어 절개하여 기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이다. 요지 야마모토는 재킷의 소매를 변형, 확대시키고 밑단을 변형시키는 기존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 검정과 빨가의 색상 대비로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며, 팬츠의 풍성한 실루엣은 재킷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47).

루이비통의 작품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네크라인, 급격하게 넓어지는 코트 하단은 꽃을 형상화 한 듯한 형태로 봉제선을 따로 주어 기존의 구성과는 변화를 주었다. 코트에 지퍼를 달고 밑단을 굴려주어 활발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그림 48).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은 상·하, 좌·우가 모두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레이어링 하여 입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각각의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여러 색상의 체크 패턴은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반면 한 쪽 소매가 없고 네크라인을 감싸는 부분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그림 49). 또 하나의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인 <그림 50>은 좌·우 비대칭적인 재킷으로 칼라를 두 겹으로 제작하였으며 재킷 소매는 있지만 착용 시 활용하지 않았다. 재킷 안에 착용하고 있는 폴오버는 앞·뒤를 뒤집어 입은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으며 스커트는 발레복을 연상 시키며 상의 폴오버, 재킷과 색상이 잘 어울린다.

<그림 51>은 존 갈리아노의 작품으로서 보색대비와 강렬한 이미지로 붉은 계열의 화려한 꽃무늬가 프린팅 된 원단과 푸른색 계열의 단색 천을 사용하여 제작한 빈티지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롱 드레스이다.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소재와 색상은 조화를 이루지만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부조화

를 형성하였다.

<그림 52>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니트 소재를 이용하여 성글게 그물처럼 짜인 바지와 점퍼 스타일 재킷은 색상과 소재에서 핑크함을 강조하고 수많은 액세서리와 소매중심선에 있는 라인은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그림 53>는 이너웨어 용도의 팬티의 길이를 연장시켜 홀터 넥라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장이 짧은 원피스 드레스를 코디네이션하여 도발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원피스 드레스의 형태는 어깨를 좁은 면적으로 이어 연결하는 것으로 가슴라인과 어깨선을 노출시킨다. <그림 54>은 그물처럼 성글게 짜여진 스타킹 혹은 레깅스 위에 비치는 소재를 이용한 시스루룩의 스커트, 슬래쉬 된 상의는 강하고 극적이면서도 팜프파탈의 매력이 있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의한 복식디자인의 해체 경향을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3>  
Issey Miyake 1  
08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44>  
Junya Watanabe 3  
(www.naver.com)



<그림 45>  
Zac Posen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46>  
Martin Margiela 2  
07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47>  
Yohji Yamamoto 1  
09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48>  
Louis Vuitton  
09 S/S Gap  
Collection)



<그림 49>  
 Rei Kawakubo 1  
 06 S/S Collection  
 (www.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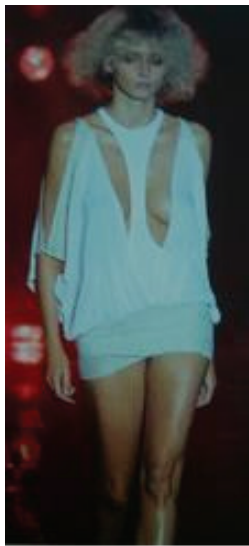
<그림 50>  
 Rei Kawakubo 2  
 08 S/S Collection  
 (www.naver.com)



<그림 51>  
 John Galliano  
 (09 S/S Gap Collection)



<그림 52>  
 Vivienne Westwood 10  
 09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53>  
 Rafael Ropez  
 03 S/S Collection  
 (FASHION SHOW)



<그림 54>  
 Rodarte  
 (09 S/S Gap Collection)

<표 2>헤체주의 복식 경향 분석

개념	형태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현상			
		시간과 공간	흔적	이미지 불화정성	성(gender)	T.P.O	코디네이션	소재	탈중심	탈구성	불연속	분열과 붕괴	
		시·공간 조율	과거의 흔적	착장 방식에 따른 다양한 해석	혼성된 복식 이미지	시·공간과 목적성의 혼재	부조화 코디네이션	이질적, 이외의 소재	반(反)중력	의복구성의 파괴	연속성 탈피	노출, 파괴, 빈곤	
형태	시대별 양식 대비	중고·재활용 패션	미완성·부정형	양·중성적 형태	란제리룩, 실내·외복의 혼용	극단적, 겹쳐입는 형태	강한 대비 형태	중심이 기울어진 형태	변형, 왜곡, 과장된 형태	비대칭, 불균형, 부조화 형태	슬래쉬, 찢기, 오리기		
복식에 나타난 헤체주의 예													

## 2. 탈현상의 복식디자인 분석

앞서 살펴 본 해체주의 복식의 경향 분석을 토대로 해체주의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탈현상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로 세분화시켜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작품제작을 위한 이론을 구성하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1) 탈구성

복식에 나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형태의 왜곡과 과장의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한다.<sup>152)</sup>

탈구성은 1960년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 현상으로 탈중심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 민족과 하위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차용한 어떤 요소를 원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서구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을 붕괴시켰다.<sup>153)</sup>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된 안감과 봉제기법상의 표면화는 찢어지거나 해지는 등의 비구조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분석적이며 구조주의적 합리화의 우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54)</sup>

탈구성 형태의 복식은 착장 불가능한 의복 즉, 의복의 기능 및 목적을 해체시키고, 형태를 파괴하거나 무시하여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기존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형태의 의복 등으로 의복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형태로 표현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마틴 마르지엘라,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등이 있다.

---

152) 김주현, op. cit., p. 581.

153) 노정심 (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68.

154) 김혜정. op. cit., p.92.

<그림 55>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작품으로 기존의 구성 방식을 탈피한 스커트는 상의의 심플한 디자인 및 색상과 대조를 이룬다. 상의의 소매에 해당하는 형태를 스커트에서 볼 수 있으며 변형된 폴오버를 상·하의 방향을 변경하여 착장한 듯한 형태를 보인다. 요지 야마모토는 재킷의 한 쪽 소매의 형태를 변형하여 확대시켜 중심을 이동한 앞여밈선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의 구성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그림 56). <그림 57>은 과장되게 확대시킨 팬츠와 허리 밴드를 뒤집어 확대하여 스커트를 레이어링한 듯한 형태를 보이는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 2) 탈중심

비구조적인 표현 기법은 중심의 부재, 공간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분류한 것이다. 중심의 부재란, 의복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와 관습적 구성을 탈피하여 자유로운 사고에 의한 새로운 구성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으로 고전적 패션 원리를 해체하고, 주체와 중심을 무시하는 불규칙, 비대칭 등의 새로운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비대칭적인 사선의 앞여밈이 나타나고 있다.

탈중심적 양상은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체를 기준으로 복식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절대적 질서로부터 해체된 무질서한 디자인을 말하며,<sup>155)</sup> 이와 같은 현상들은 기존의 형태를 재배치하여 새롭게 재인식하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추구되는 복식의 미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 가시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 현상이 탈중

---

155) 임현숙, 박민여, op. cit., p. 114.

심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56)

복식에서의 반(反)중력적 형태는 수직, 수평선으로부터의 탈피로 기본 구성 요소의 방향성과 다른 것으로 기존의 중력에 순응하는 형태나 공간 경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157)

즉, 의복의 중심과 밑단 등이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선과 공간의 형태와 방향의 느낌이 수직적 구조와는 반대되는 은유적 표현으로 기존의 중력에 역행하는 공간경험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패션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분석을 뜻한다 할 것이다. 158)

탈중심성은 구조상의 변형을 통한 왜곡과 과장으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킴으로써 명확한 질서 아래 성립되는 의복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해체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준야 와타나베,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등이 있다.

<그림 58>는 셔츠 위에 겹쳐 입은 니트 소재의 풀오버에서 밑단의 변형된 사선의 기울기를 볼 수 있고 스커트의 여며진 앞 부분에 사선으로 부착된 지퍼 장식과 스커트 밑단의 기울기로 탈중심의 특징적 형태를 표현한 준야 와타나베의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분방한 핏기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요지 야마모토는 작업복에서 많이 보여지는 상·하 합체된 형태의 바지 원피스를 수트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상체는 앞중심선을 벗어난 테일러드 칼라 재킷과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를 연결하여 하나의 패턴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팬츠 부분에 주머니를 만들어 기능성을 부각시켰으며 발랄하고 심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59). <그림 60>은 상·하 모두 편안한 실루엣이며 베스트 앞중심선의 부드러운 사선의 기울

156) 최영욱, op. cit., p. 580.

157) 김혜정, op. cit., p.92.

158) Ibid., pp. 93-94.

기는 랩 스커트의 밑단의 곡선과 조화를 이루는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으로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이다.

### 3) 불연속

전통적 디자인에서는 일전에 구축해왔던 이미지로부터 연속적인 전개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속성은 ‘틀’로서 설명되며, 틀은 행위와 시간이 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규정하고 시간의 개념 속에 내포된 일체성을 배제하고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오브제화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형태적인 조작을 통해 동질적인 틀의 혼합, 중첩, 왜곡, 용해, 반복, 우연, 삽입으로 분류되어진다.<sup>159)</sup>

복식에 나타나는 불연속 형태는 왜곡, 변형, 해체, 교란, 결집 등을 활용하여 구성하며,<sup>160)</sup> 바이어스 커팅이나 비대칭적인 커팅과 구성 등의 표현으로 새로운 복식의 해체와 재구성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마틴 마르지엘라, 준야 와타나베, 레이 가와쿠보 등이 있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팬츠 원피스의 팬츠 부분을 한 쪽을 삭제시키고 상체 부분은 몸판의 색상을 다르게 하였다. 상체의 피부 톤 색상위에 이너웨어 모양의 그림이 겹쳐 있어 그 부분에 의상을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그림 61). <그림 62>은 원피스 위에 변형된 형태의 가디건을 레이어링 한 듯 보여진다. 원피스의 한 쪽 소매가 없으며 그 위의 가디건의 좌·우 몸판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긴 쪽을 원피스의 스커트 부분에 이어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는 준야 와타나베의 작품이다. 레이 가와쿠보는 <그림 63>에서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기울어진 행태의 구조와 더불어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를 표현한다. 상의

159) 김주현, op. cit., pp. 19-20.

160) 김혜정, op. cit., p. 94.

는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네크라인 부분과 한 쪽 소매를 이루고 있고, 몸판과 다른 한 쪽 소매는 어깨와 가슴라인에서 사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음새가 불분명하게 보인다. 스커트는 여러 겹의 원단을 겹쳐 이어 붙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단처리를 하지 않아 미완성의 느낌을 준다.

#### 4) 분열과 붕괴

복식에서 나타난 분열·붕괴적 표현은 의도적으로 슬래쉬하고 손상하는 등 명백한 파괴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해체는 행위대상을 분해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1970년대 핑크 패션에서 시작된 파괴적인 복식은 찢고 구멍을 내고, 옷의 형태와 입는 방식을 거부하고 섬뜩한 장식을 하였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에 의해 주도되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복을 닳게 하거나 찢고, 구멍을 내는 등의 분열 또는 붕괴로 나타난 현상은 인체를 노출시켜 파괴적인 미와 퇴폐적인 미를 표현하는데, 이는 의복의 기능성, 목적론을 해체시켜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 등의 추가 부각된 새로운 디자인의 원리를 제시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장 폴 고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존 갈리아노, 준야 와타나베 등이 있다.

<그림 64>은 장 폴 고티에의 작품으로 머리에 쓴 모자에 부착된 눈가리개, 재킷의 소매단 부분과 스커트의 옆선 가까이에 구멍을 내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으며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퍼즐처럼 조각으로 구성된 조각들을 맞추듯이 연결하면서 사이 사이에 공간을 주어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기도록 연출한다. 과장된 소매의 몸판과 연결되는 진동둘레, 팔꿈치 부분, 배꼽이 위치 할 부분에 만들어 놓은 구멍은 신체의 노출을 자제하면서 여성스

러운 이미지를 표현한다(그림 65). <그림 66>는 우아한 레이스 느낌으로 원단을 연결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멍은 신체 노출을 극대화하면서 여성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탈현상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패션의 유형을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 4가지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55>  
Martin Margiela 3  
05 S/S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56>  
Yohji Yamamoto 2  
09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57>  
Issey Miyake 2  
07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58>  
Junya Watanabe 4  
(www.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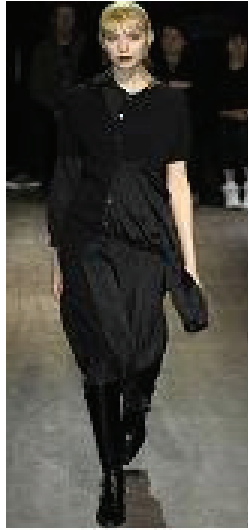
<그림 59>  
Yohji Yamamoto 3  
09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60>  
Issey Miyake 3  
08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61>  
Martin Margiela 4  
07 S/S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62>  
Junya Watanabe 5  
07 F/W Collection  
(www.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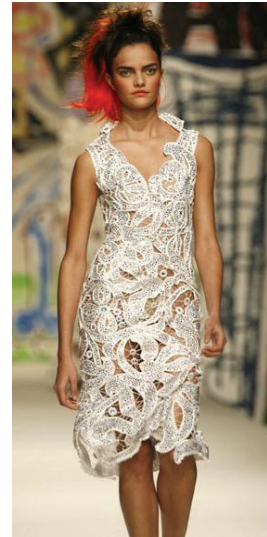
<그림 63>  
Rei Kawakubo 3  
06 S/S Collection  
(www.naver.com)



<그림 64>  
Jean Paul Gaultier  
09 F/W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65>  
Vivienne Westwood 11  
07 S/S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그림 66>  
Vivienne Westwood 12  
07 S/S Collection  
(www.samsungdesign.net)

<표 3> 탈현상에 나타난 해체주의 분석

구분 내용	탈현상			
	탈중심	탈구성	불연속	분열·붕괴
디자인 특성	중심,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	비구성적인 표현기법	상·하, 좌·우 불일치	슬래쉬, 구멍뚫기, 찢기
대표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준야 와타나베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마틴 마르지엘라 준야 와타나베 레이 가와쿠보	장 폴 고티에 비비안웨스트우드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예	  	  	  	  

## IV.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 1. 제작 의도 및 방법

#### 1) 제작 의도

현대 복식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성 있고 심미적인 조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상품의 차별화 및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디자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최근의 특징적인 두 가지 즉, 국제사회의 경제상황과 기후 온난화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디자인의 모티브로 선정하여 연구 분석한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니트 소재와 접목시켜 작품 제작을 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2008년 하반기 심각하고 급격한 경기둔화 추세가 진행되었다. 이에 의류업계에서는 불경기 이후 의류 시장 변화 및 대처방안 모색이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산업연구원의 2009년 주요 업종별 생산/내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생산과 내수 모두 상반기는 전년대비 역신장이 예상되며,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2008년 의류시장은 하반기 금융 위기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7% 정도 감소한 21조 7천 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9년 의류시장은 민간소비 증가율 수준의 2.2% 성장이 전망된다.<sup>161)</sup>

이렇듯 장기적인 경제 악화의 영향으로 2008년 상반기에 이어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실속을 챙기는 알

161) 주요 업종별 생산/내수 전망 자료 (2009), 산업연구원 [www.kiet.re.kr](http://www.kiet.re.kr)

뜰 쇼핑 성향이 증가하였지만 스타일에 관한 소비자의 패션의식은 저마다 개성 있는 스타일을 지향하는 등 보다 성숙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 월 스트리트, 타임지 등 해외 유명 저널과 각종 트렌드 정보 업체들에서는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즌리스(seasonless), 노 트렌드(trans-seasonal), 연중 의상(all-year)의 용어를 발표하며 미래 패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현재의 극심한 이상 기후, 기후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sup>162)</sup>

기후변화는 소비자들의 옷 입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일 년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한다. 따라서 4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하여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캐주얼 시장은 2008년 여성 캐주얼 부분에 있어서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격식 탈피, 자유로운 개성 추구 등 변화된 소비자 성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캐주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08/09년 패션시장 분석에서 소비자 패션의식의 변화를 보면 정장은 컬러, 활동성, 착용감을 내의류는 활동성,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반면 캐주얼은 디자인, 유행성, 보수 의복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sup>163)</sup>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패션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패션의식의 변화를 살펴 디자인 기획 및 제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개성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대복식에서 해체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옷의 구성적 규범이

162) 기후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 (2008), 삼성디자인연구소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163) 08/09년 패션시장 분석 리포트 (2009), 삼성디자인연구소.

나 디자인 사고에 대한 저항 및 파괴를 보여주며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니트는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소재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경제 위기는 차츰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므로, 니트 업계는 가까운 미래에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작 방법

20-30대 여성을 디자인 타겟으로 한 패션 아이템인 원피스, 카디건, 베스트, 재킷, 코트, 폴오버, 점퍼 및 스커트, 팬츠 등을 상·하의 한 벌 혹은 세트(set) 개념으로 총 4세트 8점, 단품 9점으로 구성하여 총 17점의 작품을 계획하였다.

디자인은 앞서 연구 분석한 해체주의 탈현상을 형태별로 구분하여 디자인하였다. 즉, 중심이 기울어진 형태의 디자인은 베스트 2점과 폴오버 1점(작품 I~작품 III), 기존의 구성방식이 파괴된 형태의 디자인은 코트 1점, 원피스 드레스 1점, 재킷 1점(작품 IV~작품 VI), 비대칭적인 형태의 디자인은 원피스 드레스 1점, 점퍼와 레깅스 1세트, 베스트와 스커트 1세트(작품 VII~작품 IX), 분열과 붕괴로 파괴된 형태의 디자인은 카디건과 팬츠 1세트, 베스트 1점, 카디건 1점이다(작품 X~작품 XII). 또한 세트 개념의 1작품(작품 XIII)은 비탈현상을 주제로 디자인하여 소비자가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탈현상을 보이지 않는 아이템과의 조화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사는 국내·외에서 시판되는 원사를 사용하여 디자인에 적합한 게이지를 선택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간단한 수편기를 이용하여 작품을 편직하였다. 3GG, 5GG, 6.5GG, 9GG 편기와 고무뜨기용 수편기

즉, 가정용 수편기에 부착시켜 고무뜨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고무편기를 사용하였다.

## 2. 디자인 기획

해체주의의 탈현상에서 보여지는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작품구성을 기획하였다.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한 브랜드 혹은 매장에서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캐주얼웨어를 평상복 및 외출복으로 즐겨 입는 20~30대의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캐주얼웨어에 비중을 두었으며 세미 정장용으로서의 코디네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 1) 아이템

아이템은 20~30대 여성들이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아이템들과 조화를 이루어 코디네이션 할 수 있고 단독으로 착용할 때 캐주얼하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카디건, 점퍼, 풀오버, 베스트, 레깅스, 팬츠 등과 세미 정장용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코트, 재킷, 원피스 등을 선정하였다.

형태

### 2) 이미지

부드럽고 로맨틱한 이미지의 베스트와 풀오버, 세련된 직장여성 이미지의 코트, 여성적이며 우아한 이미지의 원피스, 건강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재킷, 스포티한 이미지의 점퍼와 레깅스, 젊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베스트와 스커트, 젊고 활기찬 이미지의 카디건과 팬츠, 젊고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베스트, 아름답고 귀여운 직장여성 이미지의 카디건,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풀오버와 팬츠 등으로 이미지를 분류하여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 3) 형태

구체적으로 제품의 형태를 분류하여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고 변형, 왜곡시킨 탈구성적인 형태, 중심과 밑단 등이 기울어진 탈중심적인 형태, 좌·우 비대칭 불연속적인 형태, 슬래쉬 및 구멍이 뚫린 분열과 붕괴를 보이는 형태 그리고 탈현상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기획하였다.

### 4) 색채

색채기획은 해체주의의 main color라고 할 수 있는 black의 비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템이 black과 매치 될 수 있는 색채를 기획하였다. 또한 black의 포인트로는 red, multicolor 등을 이용하였다. 그 외 2009 F/W color trend에 의하여 green의 비중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green, olive green, marin green 등의 그린계열의 컬러를 기획하였으며, blue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므로 light blue를 기획하였다.

### 5) 원사

원사는 계절적인 요인과 아이템별로 제품의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어 선정하였다. 특히 모헤어는 가볍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색상 또한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이 여름을 제외한 춘·추·동의 계절제품이므로 보온성을 요구하는 만큼 울·모헤어·양고라를 주요 소재로 선정하였으며, 재킷에 한하여 아이템의 형태를 고려하여 면사를 선정하였다.

### 6) 디테일

기획한 대부분의 아이템에 특별한 여밈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은 없지만

작품 I 과 작품 VII은 메리야스 조직의 싸개단추를 장식용으로 계획하였으며, 실질적인 여밈 방법으로는 스냅단추가 필요하다.

레깅스나 스커트의 허리벨트에는 각각의 너비에 알맞은 고무 밴드 삽입이 필요하고, 점퍼나 팬츠에는 지퍼 등의 부자재가 필요하다.

디자인 기획에 따른 작품 디자인 컨셉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표 4> 디자인 컨셉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	비탈현상
아이템	-베스트 -폴오버	-재킷 -코트 -원피스	-베스트 -스커트 -원피스 -점퍼 -레깅스	-베스트 -카디건 -핫팬츠	-폴오버 -팬츠
이미지	-romantic -pop casual	-career -feminine -healthy casual	-feminine -sporty elegance -young elegance	-sporty -pop casual -career lycee	-simple
형태	-형태 및 구조 파괴 -변형, 왜곡, 기하학적 형태	-중심, 밀단, 기울어진 형태	-비대칭적 형태	-슬래쉬, 구멍이 뚫린 형태	-탈현상을 보이지 않는 형태
색채	-블랙 -그레이	-블랙 -그린 -올리브그린	-다크브라운 -멀티컬러 -마린그린	-와인 -라이트블루 -그레이	-블랙
원사	-mohair -wool -polyester -acrylic -black lurex	-mohair -cotton -wool	-mohair -wool -knot yarn	-mohair -angora -wool -acrylic	-wool
디테일	-지퍼 -단추 -고무밴드	-스냅단추	-단추 -고무밴드	-훅 & 아이 -콘실지퍼	-고무밴드

### 3. 작품제작

#### 1) 작품 I

제목 : Black Butterfly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구성

Item : Vest

원사 : Mohair & Black Lurex

편기 : 5GG

Color : Black

작품 I 은 젊고 발랄한 이미지에 엘레강스하고 구조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베스트로 기존의 구성방식을 해체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왜곡하여 재구성하였다. 특히 주머니의 기능성을 장식적 목적으로 변환하는 구성방식과 검정색 모헤어와 반짝이는 특수사를 합사하여 편직한 소매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스트의 몸판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여 착장 시 몸의 움직임에 따라 가볍게 흔들이는 모양은 검은 나비의 부드럽고 우아한 날개짓을 연상시킨다.

작품 I 은 모헤어의 부드럽고 가벼운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5GG의 편직기를 사용하여 니트 조직이 성글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품 I 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베스트 앞길의 좌·우에 부착할 주머니를 계획한 사이즈로 편직하여 턱주름을 잡아 형태를 완성한 후 주머니의 상·하를 돌려 달아 주머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탈피하였다. 턱주름을 잡는 방향은 맞주름과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잡아 주머니가 위치 할 가슴부분의 볼륨감을 강조하였다.

소매는 기존의 소매 형태를 한 올로 편직 한 후 두 장을 연결하여 진동 부분을 베스트 옆선에 연결하고 실질적인 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머니로 재구성 하였다. 소매산 중심은 옆선을 기준으로 전·후 6cm가량 봉접하여 주머니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두 장으로 연결되어 베스트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베스트 몸판의 아래 부분을 구성하는 소매는 두 올로 편직 한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길이와 폭에 차이를 둔 두 장의 니트 조각을 한 올로 편직하여 길고 좁은 조각은 밑으로 하고 넓고 짧은 조각을 위에 배치시켜 자연스럽게 셔링을 잡으면서 연결하였다.

네크라인과 진동, 소매산 형태의 주머니는 메리야스 겹단이나 파이핑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인 부드러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메리야스 조직만으로 편직하는 단조로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메리야스의 겹뜨기와 안뜨기 조직을 뒤집어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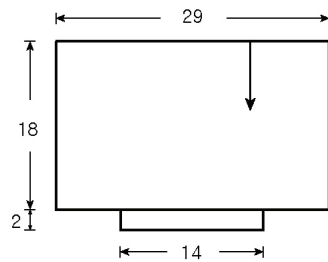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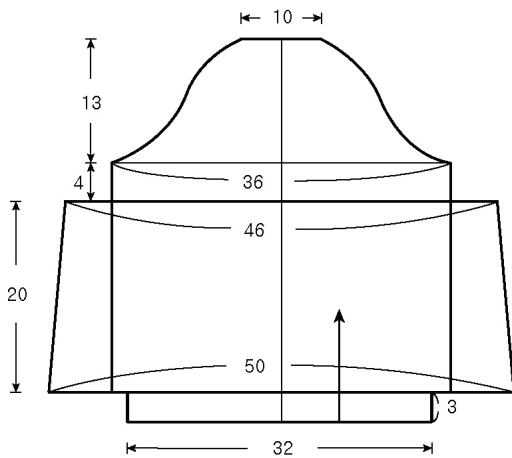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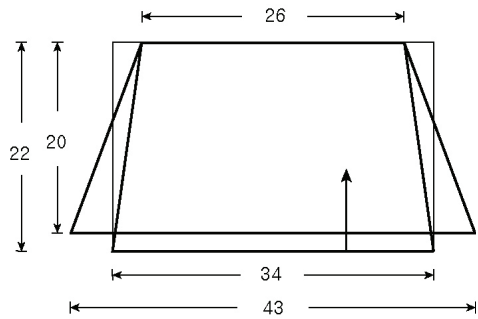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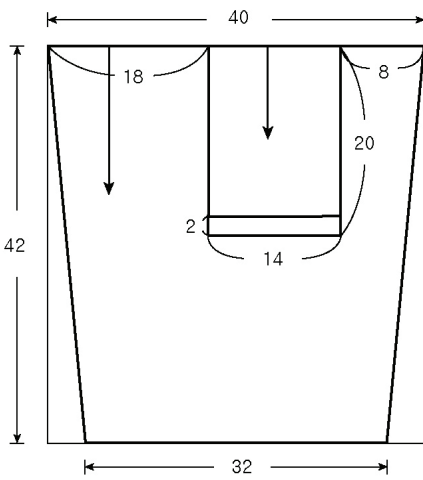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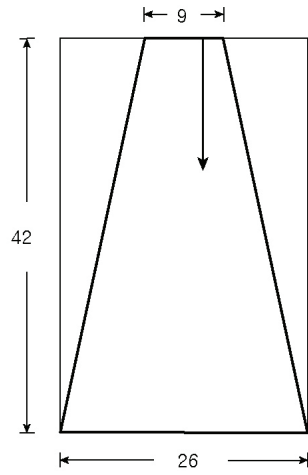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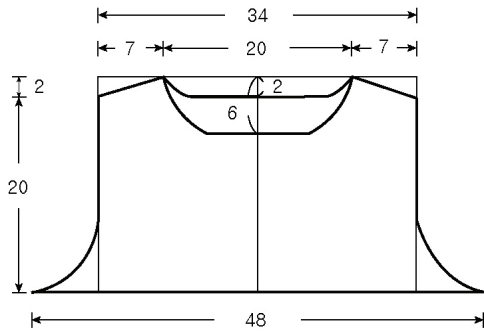
40mm 크기의 단추를 메리야스로 편직하여 안뜨기가 겹으로 보이도록 싸개단추를 만들어 장식적으로 부착하였으며 실질적인 여밈 방법으로는 베스트 안에 싸개 스냅 단추를 달았다.

앞길은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양 편으로 각각 15도 정도의 기울기로 편직하여 발랄함을 표현하였고, 5.5cm로 안단처리를 하여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기울어진 앞단의 형태를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한 원사인 검정 모헤어는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강도가 크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다. 또한 모헤어의 자연적인 광택감에 반짝이고 가느다란 특수사를 합사하여 베스트의 부피감과 중량에 과다한 영향은 주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효과를 주어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 5> 작품 I, Black Butterfly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VE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VES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mohair/black lurex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lt;앞&gt;</p> <p style="text-align: center;">&lt;뒤&gt;</p>				Size Spec(cm)/ 5GG		
				B/2	48	
				옷길이	86	
				등너비	34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20	
				넥크뒤처짐	2	
				넥크앞처짐	6	
어깨처짐	2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Black	1					
SWATCH						
작업 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메리야스 안뜨기 조직으로 씨개단추를 만든다.</li> <li>2. 주머니 턱주름 방향 주의.</li> <li>3. 안뜨기로 편직 할 부분 주의.</li> </ol>				자재명	규격	소요량
				Button	40mm	1ea



<그림 67> 작품 I, Black Butterfly의 패턴 전개도



<그림 68> 작품 I, Black Butterfly : 앞



<그림 69> 작품 I, Black Butterfly : 뒤

## 2) 작품 II

제목 : Spacewalk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구성

Item : Vest

원사 : Wool & Polyester

편기 : 6.5GG

Color : Black

작품 II는 작품 I 과 작품 III에 비교하면 디자인적 측면에서 탈구성의 강도를 높여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터틀넥을 위로 펼쳤을 때는 우주를 탐험하는 로켓트 이미지, 착장 시 흘러내려 네크라인을 볼륨감 있게 둘러싸는 터틀넥은 우주인의 복장을 연상시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과장된 크기와 형태로 자연스럽게 드레이프되는 터틀넥과 기존의 구조에서 크게 변형된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의 폴오버로 베이직 폴오버의 구성을 해체하여 목판의 상·하 방향과 소매가 연결되는 기존의 진동둘레에 소매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여 재구성하였다. 즉, 기존 폴오버의 밑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네크라인과 어깨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착장 시 넓은 폭으로 인하여 어깨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신축성이 좋은 2X2 고무뜨기를 하여 어깨끈을 편직한 후 폴오버의 내부에 부착하여 외부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

작품 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목판의 앞중심선과 폴오버 앞·뒷길 옆선의 아랫부분에 덧달린 미완성된 소매 형태의 중심선에는 3X3 짜배기를 넣어 편직하여 단순한 메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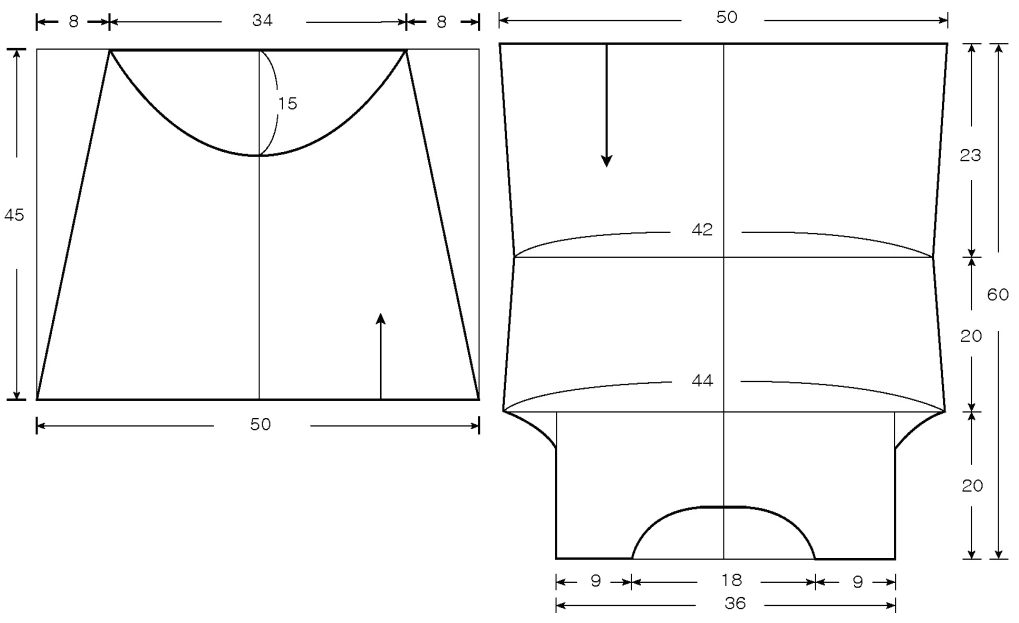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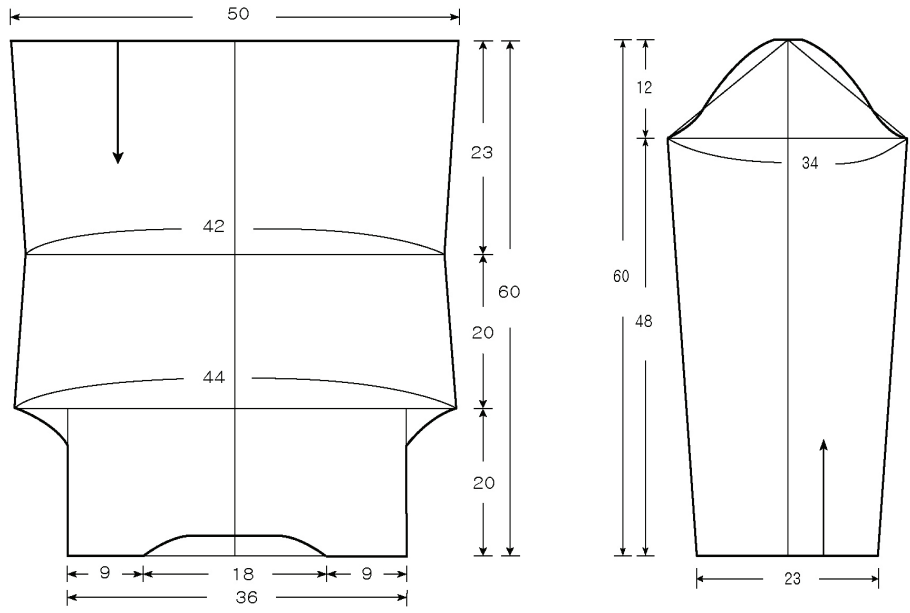
스 조직에서 변화를 주었으며 파베기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성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덧달린 미완성 된 소매 형태를 한 부분을 착장 시 허리둘레에 감아 매거나 넓고 긴 터틀넥 부분을 후드 등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터틀넥 부분은 울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차가운 메탈느낌의 강아지 털과 유사한 원사로 편직하여 화려하고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터틀넥의 앞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편직한 후 앞중심선에서 편직한 원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셔링을 만들어 볼륨감을 주었으며 터틀넥 뒷부분의 끝단 가까이에 0.5cm 굵기의 검정색 고무 밴드를 35cm 정도 돌려 박아 신축성을 주어 후드로 코디네이션 하였을 때 머리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

앞·뒷길의 상·하를 전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진동둘레 기능을 할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획한 진동둘레 만큼의 치수를 제외하고 몸판의 옆선을 연결하여 실질적인 진동둘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진동둘레와 옆선을 제외한 모든 솔기, 밑단에 터틀넥에 사용한 원사로 코바늘로 짧은뜨기를 1단 돌려 짜고 이어서 역 짧은뜨기를 1단 짜서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동시에 터틀넥과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 작품 II, Spacewalk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FVE04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VES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polyester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6.5GG		
					B/2	44	
					옷길이	108	
					등너비	50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Black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자재명	규격	소요량
1. 0.5cm 고무 밴드를 35cm(터틀 뒤판) 정도 박는다. 2. 터틀넥, 짧은뜨기, 역 짧은뜨기는 특수사로 한다.					고무밴드	0.5cm	35cm



<그림 70> 작품 II, Spacewalk의 패턴 전개도



<그림 71> 작품Ⅱ, Spacewalk : 앞



<그림 72> 작품Ⅱ, Spacewalk : 뒤

### 3) 작품 III

제목 : Cumulus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구성

Item : Pullover

원사 : Wool, Acrylic, Mohair

편기 : 3GG

Color : Gray

작품 III은 의복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정형성을 파괴한 작품으로 입체패턴을 활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긴 직사각형을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임의대로 네크라인, 소매부리, 밑단의 너비와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편직 과정에서 불규칙하게 잡은 주름은 숨을 쌓아 놓은 것처럼 몽실몽실한 모양으로 하늘에 흘러가는 뭉게구름처럼 보인다. 또한 주름은 입체감을 나타내고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포근함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작품 III은 삭제하고 변형한 패턴 전체의 방향에 변화를 주어 착장 시 좌·우 네크라인의 높이와 소매길이에 차이가 생기며 밑단이 사선으로 기울어지는 형태가 되어 자유롭고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 리쉬한 풀오버이며 앞·뒷길이 방향만 다른 형태이므로 착장 시 좌·우를 전환시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

작품 I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뒷길 두 판을 방향만 다르게 구성하여 편직하였다. 즉 계획한 패턴대로 불규칙한 주름을 잡아가면서 편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네크라인을 파거나 울리지 않은 패턴으로 편직하였으며 소매도 따로 제작하여 붙이지 않고 하나의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연결 및 트임을 주면서 정형화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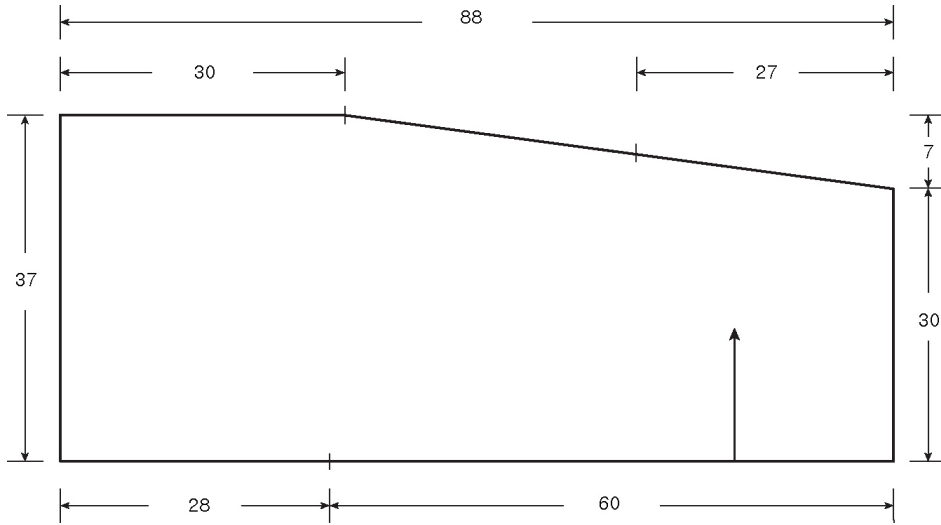
지 않은 네크라인, 어깨, 소매, 소매부리, 밑단 등의 형태를 만들어 두  
판을 이어 붙였다. 이 때 네크라인과 소매부리로 결정한 부분을 메리야스  
파이핑으로 처리하였고 네크라인과 소매부리를 잇는 선 즉, 착장 시 한쪽  
의 소매 중심선에 위치하는 부분과 밑단은 메리야스 겹단을 덧달아 주었  
다.

원사는 짙은 회색의 울과 그 보다 밝은 아크릴 특수사를 합사하여 색의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파이핑과 겹단으로 처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색이 혼재되어 있고 작품 I 과 비교하여 헤어가 긴 모  
헤어를 사용하여 무채색의 주된 색상에 포인트를 주어 부분적으로 다른  
색상을 나타냈다. 이는 무게구름 사이로 순간적으로 보이는 햇살 같은 느  
낌이다.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원사의 굵기에 비하여 성글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3GG 편기를 사용하여 편직하였다. 3GG 편기는 수편  
기로 편직할 수 있는 가장 굵은 원사를 사용할 수 있는 편기이다.

<표 7> 작품Ⅲ, Cumulus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PO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PULLOVER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acrylic/ multicolor mohair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3GG		
				B/2		
				옷길이	45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Gray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파이핑 겹단 부분은 multicolor mohair로 편직.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73> 작품Ⅲ, Cumulus의 패턴 전개도



<그림 74> 작품Ⅲ, Cumulus : 앞



<그림 75> 작품Ⅲ, Cumulus : 뒤

#### 4) 작품 IV

제목 : Christmas Candy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중심

Item : Coat

원사 : Wool & Mohair

편기 : 5GG

Color : Green

작품 IV는 착장하는 이에 따라서 자유롭게 실루엣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쉬한 니트 코트이다.

앞길을 양쪽으로 랩시켜 시각적으로 앞중심을 이동하였으며 소매단은 소매중심선을 기준으로 사선의 기울기를 주었고 밑단은 앞길의 겹자락부분만을 사선으로 기울여 주어 탈중심에 보여지는 반(反)중력을 표현하였다. 또한 착장 시 오른쪽의 네크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솔은 코디네이션에 따라 머플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며지는 부분의 위치를 중심에서 약간 이동시켜 전체적인 탈중심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머플러의 끝을 안으로 넣고 여민 모양은 달콤한 사탕을 포장해 놓은 듯한 느낌이다.

작품 IV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길의 겹자락은 밑단의 길이를 사선으로 늘어뜨려 이동시킨 중심선에 무게를 더하여 안정된 중심 이동을 표현하였는데 늘어뜨는 부분은 우선 1 X1 변형고무단을 뜬 후 되돌아뜨기를 하여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어 놓은 후 나머지 부분을 편직하였고 네크라인의 사선 형태를 위하여 코줄임을 하였다. 앞길의 안자락을 겹자락과 같이 1X1 변형고무단을 편직하고 사

슬뜨기로 2개의 끈을 만들어 부착하여 코트 안자락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착장 시 안정감을 위한 보조 여밈 장치로 활용하였다.

네크라인은 사선으로 편직한 후 별도의 칼라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랩시켜 착장 시 겹자락으로 올라오는 앞길 네크라인의 사선길이를 솔의 폭으로 정하고 두 줄의 1X1 변형고무뜨기를 넣어 편직하여 연결하였으며 그 결과 솔의 끝단 모양이 자연스럽게 곡선이 되었는데 이것은 변형고무뜨기로 인하여 그 부분이 당겨 올라가므로 생기는 현상으로 소매단과 밑단의 반(反)중력 형태와 통일감을 주기 위한 부분이다.

솔의 여밈은 1X1 변형고무뜨기로 9cmX15cm 크기의 니트 고리를 만들어 디자인 위치에 중심을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사선으로 부착하여 솔을 어깨에 두르고 솔의 끝을 앞쪽에서 고리를 사용하여 고정 시키는 동시에 앞길 겹자락을 고정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겹자락의 앞단은 안단처리로 마무리 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소매는 길이를 8부로 하고 소매통을 좁게 편직하여 피트한 코트의 몸판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또한 소매길이를 짧게 하여 소매단의 기울어진 모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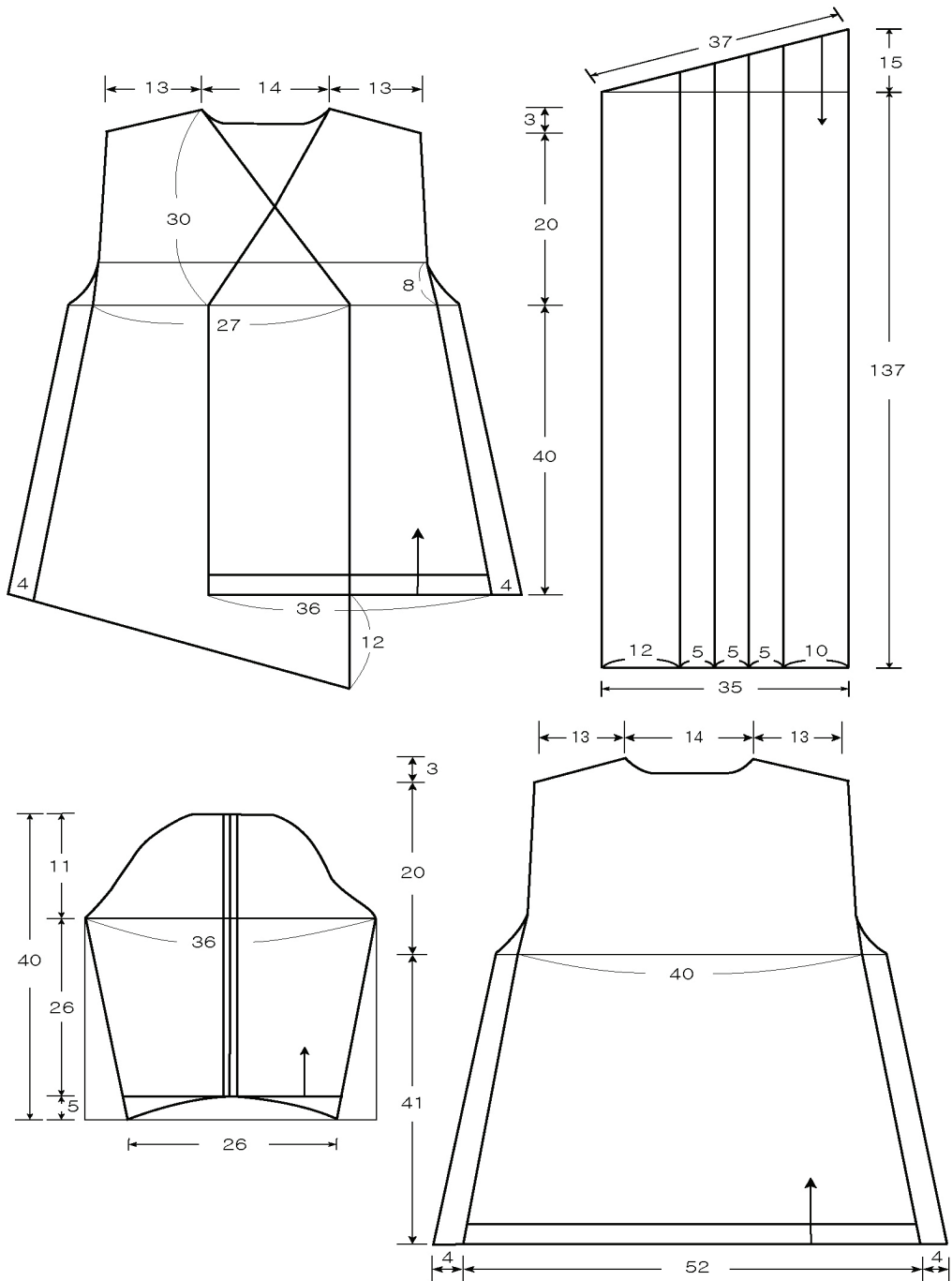
솔의 제작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1X1 변형고무뜨기를 하는 부분의 길이가 메리야스 평단보다 다소 짧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뒷길의 옆선에 1X1 변형고무뜨기를 하여 디자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원사의 중량으로 인하여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만일 1X1 변형고무뜨기를 하지 않을 경우 옆선의 늘어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턴에서 옆선의 길이를 줄여 편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듯 소매중심선, 옆선, 밑단, 솔 등에 기능적으로 변형고무뜨기를 하거나 장식적으로 조화와 통일을 주어 변형고무뜨기의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리야스만으로 제작하였을 경우의 단순한 조직

에서 탈피하였다.

<표 8> 작품IV, Christmas Candy 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WCO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COA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mohair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45	
					옷길이	75	
					등너비	40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40	
					넥크(고대)	14	
					넥크뒤처짐	2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3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5	
					작업수량		
					color	수량	
Gree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p>1. V-넥 편직 시 코줄임 주의.</p> <p>2. 앞길 랩 부분은 40cm 정도의 사슬뜨기 2줄로 여밈.</p>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76> 작품Ⅳ, Christmas Candy 의 패턴 전개도



<그림 77> 작품IV, Christmas Candy : 앞



<그림 78> 작품IV, Christmas Candy : 뒤

## 5) 작품 V

제목 : Wood Nymph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중심

Item : One-Piece Dress

원사 : Mohair

편기 : 5GG

Color : Olive Green

작품 V는 우아한 숲의 요정 이미지를 가볍고 부드러운 모헤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연출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단색의 모헤어를 2함 편직하여 보온성을 높였고 원피스 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의 솔기를 연결한 후 중심을 벗어나 배치하여 원피스의 윗부분과 연결하였으며 나뭇잎을 형상화한 니트 조각을 한 울로 편직하여 3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면서 연결된 스커트 솔기 부분에 덧달았다. 이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한다. 또한 스커트 밑단에 기울기를 만들어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원피스 드레스의 몸판과 스커트를 같은 방향으로 편직하고 연결할 때 몸판의 편직방향을 스커트와 반대로 하여 연결되게 하여 몸판이 편직방향으로 인하여 늘어지는 것을 보완하였다. 이는 니트에서 편직하는 방향 즉, 코스방향이 웨일 방향과 비교하여 신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피스 드레스 몸판과 스커트의 편직방향을 다르게 연결시킴으로써 메리야스 조직의 단순함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몸판부분의 중심을 이동시켜 패턴상의 네크라인이 될 부분을 一자로 절개하였다. 이것은 착장 시 브이 네크라인 형태로 되었으며 좌·우 소매길이가 비대칭으로 달라져 스

커트 밑단의 반(反)중력 형태로 기울어진 것에 무게를 더하여 스커트에 덧달린 니트 조각과 균형을 이루어 탈중심 형태를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균형으로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헤어 두 올을 합사하여 원피스 드레스 몸판부분의 앞·뒷길이 따로 없이 한 판으로 패턴과 같이 편직한 후 네크라인이 위치할 부분에 다대테이프를 봉제한 후 절개하여 메리야스 겹단으로 처리하여 중심을 이동시키고 소매길이와 소매부리의 형태가 좌·우 비대칭으로 완성하였다.

스커트부분은 몸판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크게 편직하고 1cm 핀턱을 동일한 간격으로 길이를 달리하여 만들어 입체감과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네크라인, 소매부리, 밑단의 메리야스 겹단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스커트부분의 솔기는 한 쪽에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 밑단의 길이를 다르게 하고 앞중심선에서 이동시켜 배치하여 몸판부분과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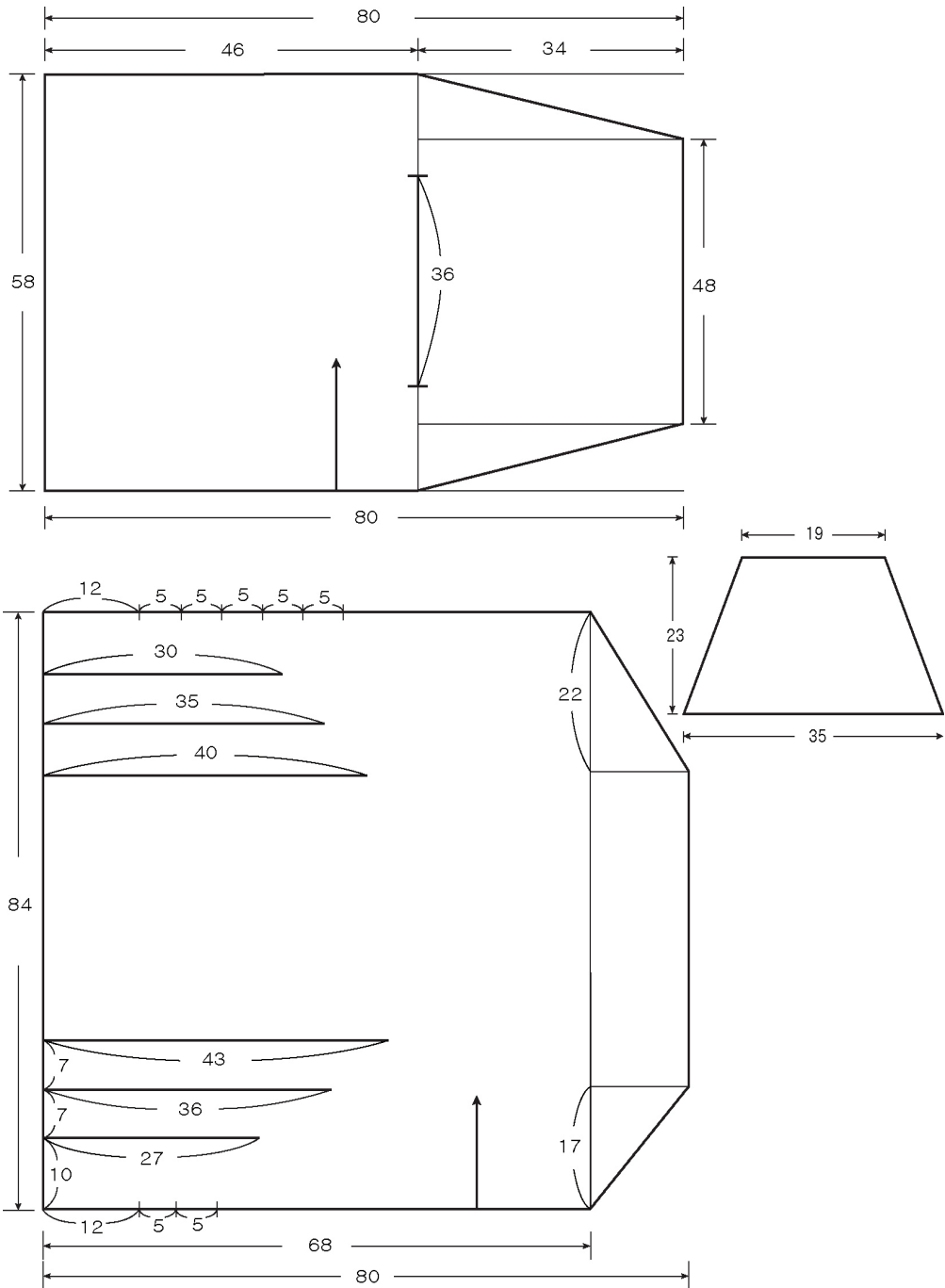
나뭇잎 형상의 니트 조직은 한 올로 편직하여 중량의 부담을 덜었고 1cm 메리야스 겹으로 처리한 후 5cm 간격으로 3개를 덧달았다.

네크라인, 소매부리, 밑단을 메리야스 겹단으로 마무리하여 작품 V의 전체적인 느낌을 부드럽게 하였고 사용한 원사인 모헤어가 가벼워 들떠 보이는 점을 보완하여 볼륨감을 줌으로써 중량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V는 작품Ⅲ과 같이 앞·뒤의 디자인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앞·뒤를 바꿔 착용할 경우에 기능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코디네이션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9> 작품 V, Wood Nymph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OPO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ONE-PIECE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mohair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옷길이	109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20	
					넥크앞처짐	20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Olive gree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편직 방향 주의. 2. 핀턱 위치 주의.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79> 작품 V, Wood Nymph의 패턴 전개도



<그림 80> 작품 V, Wood Nymph : 앞



<그림 81> 작품 V, Wood Nymph : 뒤

## 6) 작품 VI

제목 : Poppy Flower

주제 : 탈현상

분류 : 탈중심

Item : Jacket

원사 : Cotton

편기 : 5GG

Color : Black

작품 VI은 짧고 활동적이며 세련된 감각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재킷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밑단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탈중심적인 형태를 작품 IV와 작품 V보다 좀 더 강조하였다. 작품 VI의 주된 색상인 검정에 포인트로 빨간 양귀비꽃 같은 색상을 사용하여 열정적인 매력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커프스의 기울어진 형태를 빨강 색상으로 하여 재킷의 칼라, 앞단, 뒷길의 상·하 기울기와 균형 및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좌·우 비대칭적인 재킷으로 구조적인 형태와 부정형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 VI은 넓게 편직한 왼쪽 앞·뒷길과 작게 편직한 오른쪽 앞·뒷길의 허리둘레선에 코줄임을 하지 않고 편직하여 착장 시 인체 활동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작품 V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뒷길의 디자인은 칼라를 제외하고 동일하며 앞 네크라인의 깊이 만큼 뒤 네크라인도 같은 깊이로 하여 착장 시 재킷의 어깨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방지하는 것과 디자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뒤 네크라인에 1X1 고무단을 2X16cm으로 편직하여 구조적인 재킷의 형태에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앞길의 좌·우 니트 조각의 편직방향을 다르게 하

여 시각적인 효과와 사선으로 기울어진 형태의 완성도를 높였다. 즉 앞·뒷길의 사선부분은 되돌아뜨기를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는데 코를 줄이면서 사선 형태를 만드는 것에 비교하여 용이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형태 완성도도 높다. 또한 넓게 편직한 부분의 밑단은 4cm 메리야스 겹단으로 처리하여 작게 편직한 부분과 비교하여 그 만큼의 길이 차이를 주었다.

작게 편직한 니트 조각에는 앞·뒷길에 안단을 덧대어 마무리하여 형태 안정성을 높였고 앞단에는 싸개 스냅 단추를 11cm 간격으로 3개를 달았으며 뒤에는 사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크게 편직한 니트 조각과 연결시켰다.

커프스는 부드러운 사선 형태의 겹으로 완성하여 소매에 덧달아 주었다.

칼라는 재킷의 형태 유지를 위하여 5GG 편기를 사용하여 2합으로 편직한 것과 다르게 중량으로 인하여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킷의 다른 부분을 편직한 동일한 편기를 사용하여 원사는 홑겹으로 하고 편기의 다이얼을 줄여 조직을 촘촘하게 편직하였고 칼라 외곽선은 1cm 메리야스 파이핑으로 처리하였다.

재킷의 구조적이고 정형화된 실루엣을 위하여 작품 IV, 작품 V에 사용한 울, 모헤어 등과 비교하여 드레이프성과 유연성이 낮은 면사를 사용하였으며 앞단, 밑단, 뒷길의 사선을 빨강 색상으로 파이핑 처리하여 칼라 외곽선의 파이핑과 통일감을 주었다.

<표 10> 작품VI, Poppy Flower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FJK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JACKE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cotton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46	
				옷길이	58	
				등너비	36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55	
				넥크(고대)	14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4	
소매단길이	4.5					
작업수량						
color	수량					
Black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칼라와 파이핑 겹단은 red color로 편직. 2. 2cm 안단 처리한다.				자재명	규격	소요량
				스넵단추	18mm	3set





<그림 83> 작품VI, Poppy Flower : 앞



<그림 84> 작품VI, Poppy Flower : 뒤

## 7) 작품 VII

제목 : Over the Rainbow

주제 : 탈현상

분류 : 불연속

Item : One-Piece Dress

원사 : Wool, Mohair, Knot yarn

편기 : 5GG

Color : Gray & Multi color

작품 VII은 다양한 색상이 보여지는 모헤어를 사용하여 편직한 밝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를 강조한 원피스 드레스이다. 회색의 베스트 앞길의 한 쪽은 원피스 드레스의 앞길에 덧달고 나머지 한 쪽은 같은 방향의 뒷길에 덧달았으며 원피스 드레스의 반대 쪽에는 진동 둘레에서 고무단을 만들어 덧달았다. 또한 작품 VII은 원피스 드레스 또는 스웨터 드레스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여 소프트한 소재의 드레스나 슬림한 팬츠 또는 레깅스와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젊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공된 모헤어와 빨간 색상의 노트사를 합사하여 원피스 드레스의 디자인에 적합한 색상, 질감, 중량감으로 스커트부분과 소매를 편직하였다. 이 때 스커트는 편직방향을 횡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세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슬림한 효과를 주었으며 편직과정에서 코를 줄여 밀단의 기울기를 주어 스커트 상단에 덧달린 베스트에 무게 중심을 주어 좌·우 비대칭을 시각적으로 극대화 시켰다. 또한 소매는 스커트와 반대로 편직하여 가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몸판과의 대조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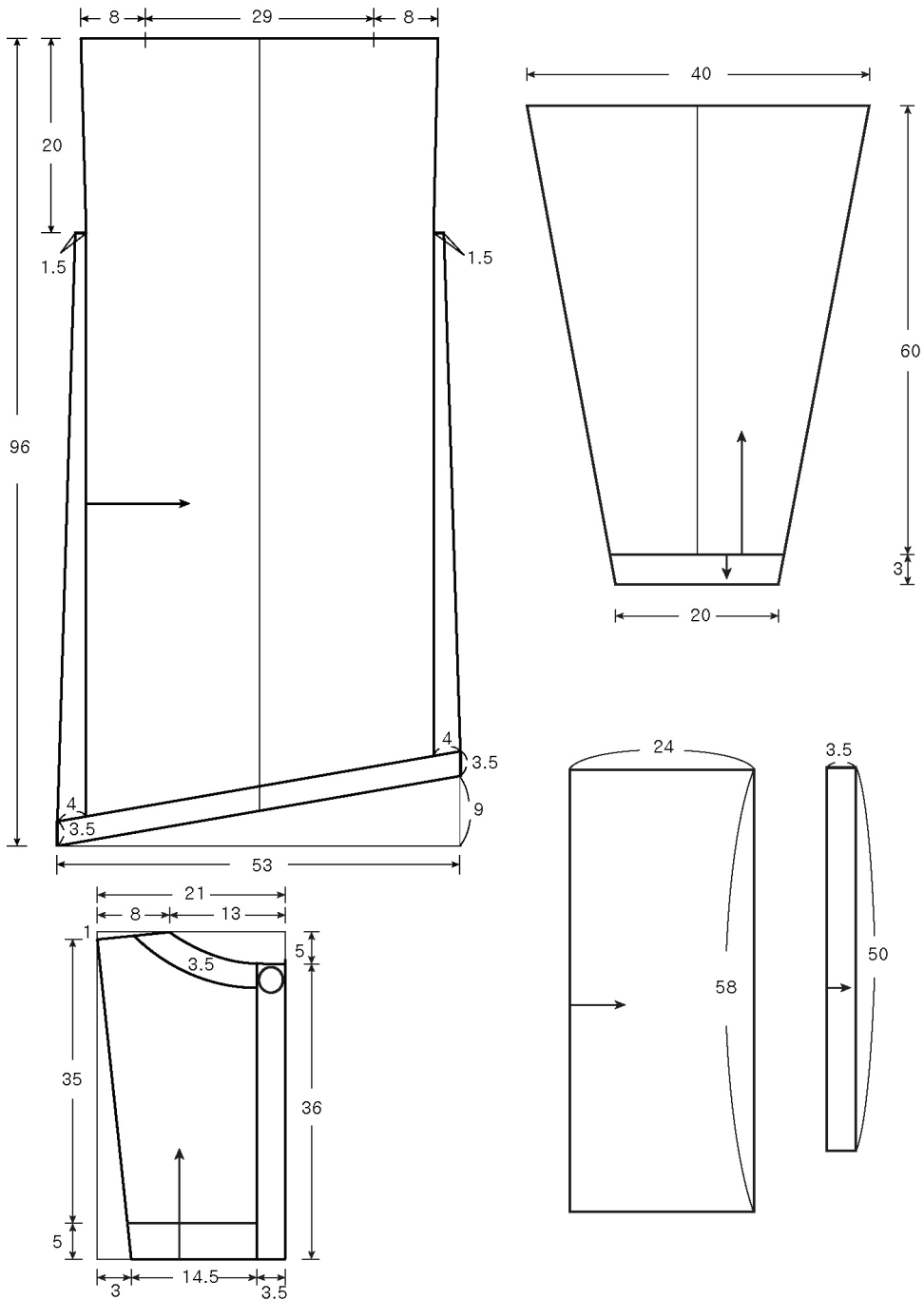
회색 울과 모헤어를 합사하여 베스트를 편직하고 앞·뒷길 스커트의 어깨, 진동둘레, 옆선에 연결하여 덧달았으며 스커트의 다른 한 쪽은 진동둘레의 안쪽으로 2X2 고무단을 편직하여 덧달아 동일한 원사로 편직된 스커트와 소매를 구분 짓는 동시에 베스트와 같이 포인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앞·뒷길에 덧달리는 베스트의 앞길은 앞중심선을 사선으로 편직하여 발랄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보우트 네크라인으로 편직하여 베스트 밑의 원피스 드레스의 원사가 베스트 네크라인 위로 보여지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턱주름을 잡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었으며 네크라인, 앞단, 밑단은 2X2 고무단으로 마무리하였다. 또한 메리야스로 싸개단추를 만들어 스커트 앞길에 덧달린 베스트의 외부에 장식적으로 부착하였으며 내부에는 싸개 스냅 단추를 부착하고 스커트 뒷길에 덧달린 베스트에도 스냅 단추를 부착하여 앞길에 덧달린 베스트와의 개연성(蓋然性)을 표현하였다.

터틀넥을 12X58cm 크기의 2X2 고무단을 편직하여 스커트의 네크라인에 연결하였다. 스커트는 편직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앞·뒤 네크라인과 어깨 처짐 분량을 주지 않고 편직하였다. 그러므로 터틀넥은 어깨선과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되어 네크 위로 좀 더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내어 풍부한 볼륨감을 연출하였다.

작품 Ⅶ의 모든 고무단은 2X2 고무단으로 편직하여 통일감을 주었으며 소매단 3cm, 밑단 3.5cm 등 기능적, 장식적으로 알맞은 넓이와 높이를 정하여 완성하였다.

<표 11> 작품Ⅶ, Over the Rainbow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OP02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ONE-PIECE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multicolor mohair /wool/knot yarn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42	
				옷길이	120	
				등너비	45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57	
				넥(고대)	29	
				넥뒤처짐		
				넥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3					
작업수량						
color	수량					
Multicolor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매 A.H 고무편은 덧달림(진동선 옆으로).</li> <li>2. 넥, 앞·뒤판, 소매단, 스커트단은 gray color wool로 편직.</li> <li>3. 편직방향 주의.</li> </ol>				자재명	규격	소요량
				스넵단추	20mm	1set
				장식단추	40mm	1ea



<그림 85> 작품VII, Over the Rainbow의 패턴 전개도



<그림 86> 작품Ⅶ, Over the Rainbow : 앞



<그림 87> 작품Ⅶ, Over the Rainbow : 뒤

## 8) 작품 VIII

제목 : Scavenger Hunt

주제 : 탈현상

분류 : 불연속

Item : Jumper & Leggings

원사 : Wool

편기 : 9GG, 고무편기

Color : Marine Green

작품 VIII은 소프트한 볼륨으로 부드러운 유선형 라인과 원사를 가볍게 사용하여 비대칭, 불연속의 부정형적인 형태를 강조한 점퍼와 레깅스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점퍼에 덧달린 각각의 기하학적 형태의 주머니와 과장되고 크기가 다른 주머니를 레깅스에 부착하여 정형화된 점퍼와 레깅스 이미지의 탈피를 추구하였다. 작품 VIII의 점퍼는 여행,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의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레깅스는 랩 스커트를 레이어링하여 착용한 듯한 느낌으로 스포티하며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VIII-1 점퍼 앞길은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의 표현을 위하여 옷길이를 다소 짧게 편직하였고 그 위에 덧달릴 착장 시 앞길 왼쪽 주머니는 안자락과 겉자락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하여 안뜨기 조직끼리 맞닿게 한 후 주머니 겉자락은 짧은 메리야스 겹단으로 처리하여 상·하로 사용 가능한 주머니 입구를 만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옆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리야스 겹단으로 주머니 입술을 만들어 덧단 처리한 후 이 부분을 제외한 주머니 둘레 전체를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다. 그리고 주머니의 상단

은 점퍼 어깨솔기와 하단의 허리고무단 연결부위에 부착하였다.

앞길의 또 다른 주머니는 사선으로 기울어진 사각형의 니트 조각을 연결한 후 주머니 입구를 만들고 앞중심의 고무단과 점퍼 옆선에 높이를 달리하여 사선으로 부착하였다. 또한 뒷길의 주머니는 앞길의 어깨에 부착한 주머니와 방향을 다르게 하여 다른 쪽 어깨에 부착하여 변화를 주었고 앞길의 주머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머니 전체를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다.

세미 레글런 소매를 두 개의 패턴으로 편직하여 소매 중심선에 메리야스 파이핑을 덧달아 주머니를 감싸고 있는 파이핑과 통일감과 조화를 모색하였고 넥라인, 앞중심선, 소매단, 밑단은 고무편기를 연결한 후 두 겹의 2X1 고무단으로 처리하여 신축성을 강조하였으며 앞중심선에는 1cm 고무단을 한 후 지퍼를 달아 스포티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I-2 레깅스는 크기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고 레깅스에 부착하는 방법과 위치를 다르게 하여 비대칭, 불연속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레깅스는 니트의 신축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사이즈 스펙에 알맞게 편직하고 주머니 패턴과 같이 크기가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 레깅스에 부착하였다. 이 때 주머니 밑자락의 안뜨기 조직을 겉으로 나타내어 점퍼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큰 주머니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머니 입구의 이등분 지점을 레깅스 옆 솔기에 연결하고 하단으로 갈수록 나뉘어 연결하였으며 작은 주머니는 하나의 형태로 연결하였다.

주머니가 부착되는 위치는 엉덩이둘레선을 노출하는 부분을 선정하여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 하였으며 허리벨트에는 4cm 고무 밴드를 삽입하여 착용 시 흘러내림을 방지하였다.

작품VIII은 계획한 실루엣을 얻기 위하여 얇은 원사의 사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9GG 편기를 사용하였고 원사 또한 얇은 울을 3합 또는 4합으로

합사하여 편직하였다. 3합으로 편직한 부분은 레깅스에 부착한 큰 주머니의 윗자락과 작은 주머니의 윗자락 및 밑자락이 해당되는데 이는 주머니가 두 장으로 만들어지므로 중량감으로 인하여 처짐 현상이 일어날 것을 고려하여 중량을 낮추었다. 또한 3합으로 합사하였을 경우 니트의 드레이프성과 유연성이 높아져 자연스러운 주머니 형태를 만들기에 적합하였다.

그 이외 점퍼의 모든 부분과 레깅스의 나머지 부분은 4합으로 편직하였고 이 때 니트 조직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정도의 다이얼로 편직하여 보온성과 작품 전체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볼륨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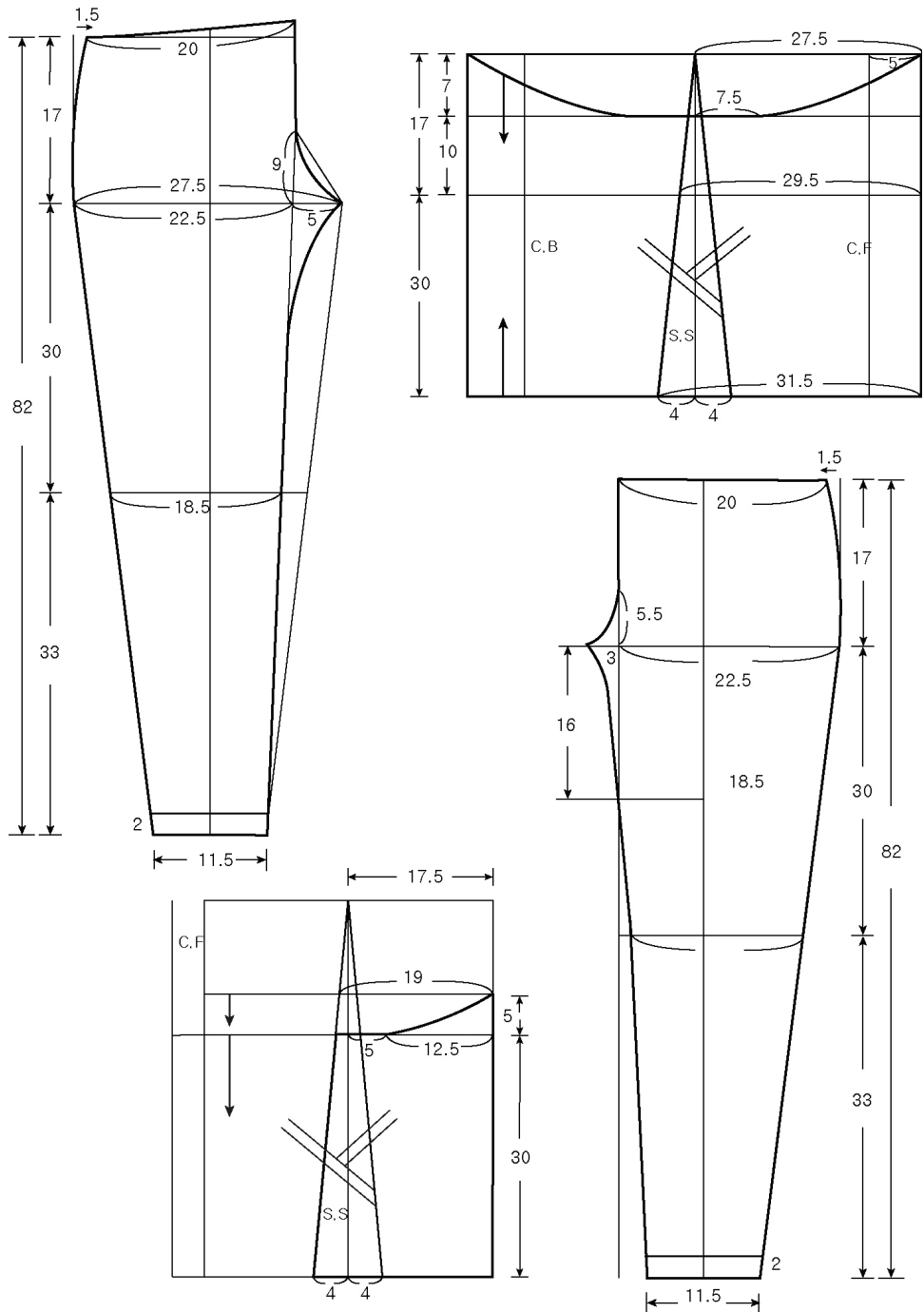
<표 12> 작품Ⅷ-1, Scavenger Hunt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FJP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JUMPER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center;"> <p>&lt;앞&gt;</p> <p>&lt;뒤&gt;</p> </div>					Size Spec(cm)/ 9GG		
					B/2	47	
					옷길이	48	
					등너비	32	
					A.H/2	21	
					소매너비		
					소매길이	51	
					넥크(고대)	14	
					넥크뒤처짐	2	
					넥크앞처짐	5	
					어깨처짐	2	
					허리단길이	4	
소매단길이	5						
작업수량							
color	수량						
Marine gree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매는 두 장으로 편직한 후 메리야스 파이핑을 덧댄다.</li> <li>포켓 달림 위치 주의.</li> </ol>					자재명	규격	소요량
					지퍼	50cm	1



<표 13> 작품Ⅷ-2, Scavenger Hunt 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FLG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LEGGINGS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9GG		
				B/2		
				옷길이	96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4.5					
바지단길이	2					
작업수량						
color	수량					
M.Gree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p>1. 포켓 밑자락과 윗자락이 사이즈가 다르므로 밑자락의 안뜨기가 보이도록 연결한다.</p>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89> 작품VIII-2, Scavenger Hunt의 패턴 전개도



<그림 90> 작품Ⅷ, Scavenger Hunt : 앞



<그림 91> 작품Ⅷ, Scavenger Hunt : 뒤

## 9) 작품 IX

제목 : Brownie

주제 : 탈현상

분류 : 불연속

Item : Vest & Skirt

원사 : Wool

편기 : 9GG

Color : Dark Brown

작품 IX는 니트의 컬 업 되는 현상을 디자인에 적극 수용하여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로 만들어 젊고 활발한 이미지를 강조한 베스트와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베스트 앞길의 한 쪽은 칼라를 몸판에서 연장시켜 만들었으며 네 장의 니트 조직을 따로 편직하고 끝단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말리게 하여 밑에 위치한 조직의 일부가 보여지도록 겹쳐서 연결시켰고 다른 쪽은 길이와 네크라인 형태가 다르게 두 장을 편직하여 연결하므로 좌·우 비대칭 형태를 이루었다. 또한 베스트의 뒷길도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은 앞길과 마찬가지로 두 장으로 편직하여 뒷중심선을 솔기 잇기로 연결한 후 가장 위에 올라오는 뒷길을 한 장으로 편직하여 어깨선과 옆선에서 연결하였다. 이것은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여러 겹의 조각을 겹으로 보이는 정도의 크기로 편직하여 연결하는 옷길이를 완성하는 방법과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작점에서 연속적으로 길이를 다르게 하여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품 IX의 경우는 마지막 방법으로 완성시켰다.

작품 IX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IX-1 앞길의 한 쪽은 V-네크라인을 다르게 하여 두 장으로 편직하여 앞중심선과 옆선을 함께 연결하여 네크라인과 밑단은 뚫려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 때 짧은 앞길은 다른 한 쪽의 앞길 길이와 같게 편직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주머니 입구를 사선으로 하여 부착하고 그 끝을 말리게 함으로써 전체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다른 한 쪽의 앞길의 네트라인은 코를 연장하면서 편직하여 칼라형태를 만들었다. 끝단 처리를 하지 않아 말리는 작은 니트 조각 2장을 가장 아래 위치하는 앞길에 다른 기울기로 겹쳐서 부착시키고 가장 위에 위치하는 앞길은 먼저 부착된 조각 보다 길이를 짧게 편직하여 어깨와 옆선에서 연결하였다.

뒷길도 뒷중심을 기준으로 두 장으로 편직하여 한 장의 말리는 작은 조각을 부착한 후 이 길이 보다 짧은 뒷길을 한 장으로 편직하여 앞길의 연결 방법과 동일하게 어깨와 옆선에서 함께 이어 연결하였다. 이렇게 두 장으로 완성하는 것은 보온성과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도 크다.

앞·뒷길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니트 조각은 긴것과 짧은 것대로 똑같은 길이로 편직하여 길이가 긴 쪽의 밑단은 2cm 메리야스 겹으로 마무리하였고 네크, 앞중심, 진동은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다.

밑단에서 여유분을 많이 안주고 편직을 진행하였고 젊고 발랄한 느낌과 활동하는데 기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가 긴 쪽에 옆트임을 주고 메리야스 겹단을 덧달아 주었으며 앞중심선의 가장 아래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네크라인, 칼라 외곽선, 나머지 앞중심선은 0.8cm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고 진동둘레는 1cm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는데 앞중심선을 비롯한 다른 부분들에 1cm 파이핑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이유가 강하다.

여밌 방법은 앞중심에 0.7cm 원형 단추 3개를 6cm 간격으로 베스트 앞 중심선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달아 짙고 경쾌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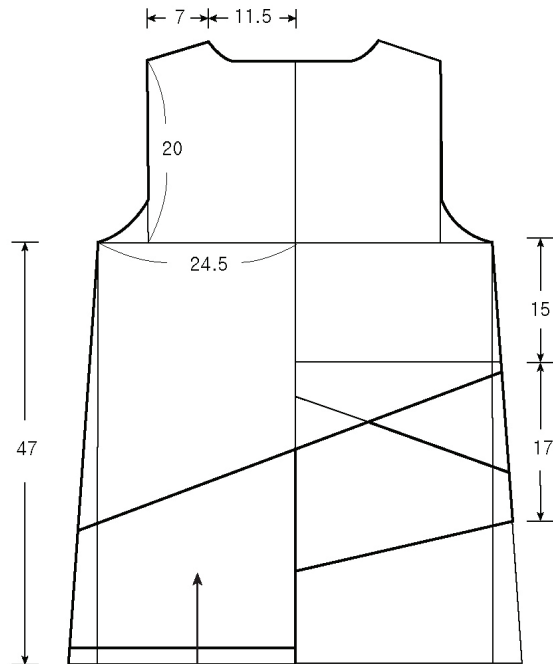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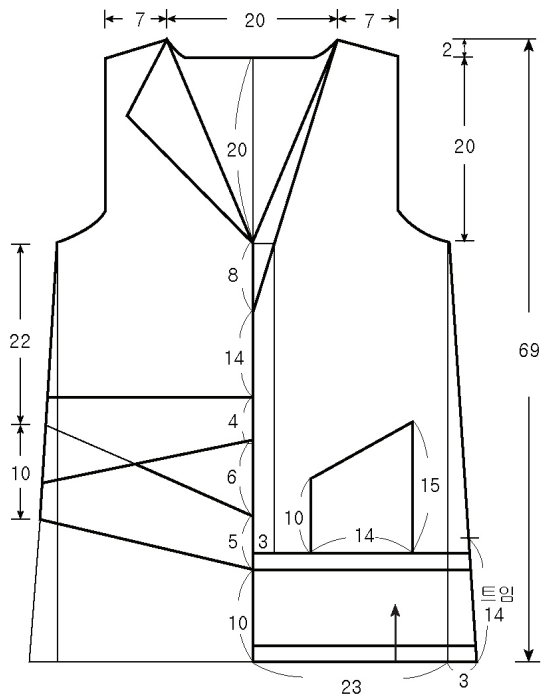
작품 IX-2 스커트는 말리는 부분만을 따로 편직하여 동일한 간격으로 덧달아 완성하였는데 스커트 중심을 기준으로 앞판에 4줄의 말리는 단을 만들고 뒤판에 1줄의 말리는 단을 만들어 부착함으로써 베스트와 말리는 단으로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스커트 좌·우, 앞·뒤를 비대칭적 형태를 만들었다. 스커트 옆선에서 허리둘레선으로 편직할 때는 되돌아뜨기를 하여 스커트 옆선이 자연스럽게 사선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밑단도 말리는 단으로 하여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었다.

허리벨트에는 4cm 고무 밴드를 스커트가 울지 않도록 삽입하여 착용 시 편안하게 골반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사는 얇은 다크 브라운 색상의 울을 4겹으로 합사하여 9GG 편기를 사용하여 말리는 단의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착용 시 니트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편기의 다이얼을 결정하여 편직하였다.

<표 14> 작품IX-1, Brownie의 작업지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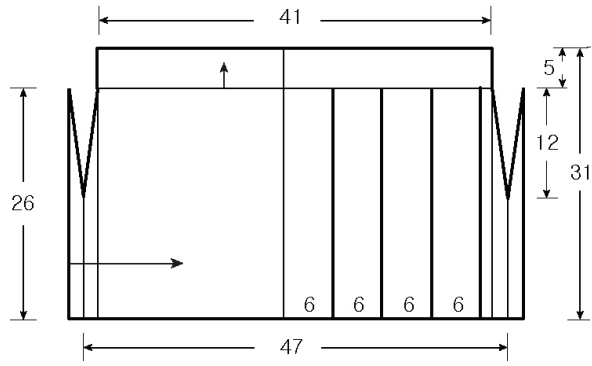
SAMPLE NO.	SAF-FVE02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VES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9GG		
				B/2	46	
				옷길이	69	
				등너비	34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고대)	20	
				넥뒤처짐	2	
				넥앞처짐		
				어깨처짐	2	
				허리단길이	2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D.Brow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4함으로 편직 후 2겹으로 제작.				자재명	규격	소요량
				Button	0.7mm	3ea



<그림 92> 작품 IX-1, Brownie의 패턴 전개도

<표 15> 작품IX-2, Brownie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FSK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SKIR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9GG		
					B/2		
					옷길이	31	
					허리둘레	82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4.5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D.Brown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허리벨트에 고무 밴드를 삽입 시 스커트허리가 울지 않도록 Size Spec 치수대로 완성한다.					자재명	규격	소요량
					고무밴드	40mm	85cm



<그림 93> 작품Ⅸ-2, Brownie의  
패턴 전개도



<그림 94> 작품IX, Brownie : 앞



<그림 95> 작품IX, Brownie : 뒤

## 10) 작품 X

제목 : Blue Dream

주제 : 탈현상

분류 : 분열, 붕괴

Item : Cardigan & Pants

원사 : Mohair & Acrylic

편기 : 5GG

Color : Light Blue

작품 X은 탈현상의 분열, 붕괴를 슬래쉬로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이미지의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부드럽고 가벼운 원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와 소프트한 볼륨감을 표현하였으며 주된 색상인 블루와 보색 대비에 가까운 색상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카디건과 핫팬츠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작품 X-1의 카디건은 부드럽고 가벼운 날개옷을 입고 꿈을 향하여 우아한 날개짓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슬래쉬를 응용한 다양한 코디네이션으로 착용자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작품 X-2의 팬츠는 카디건이 내부를 완전히 공개하는 절개를 이용한 슬래쉬를 하였다면 팬츠는 슬래쉬 된 부분의 내부에 필요한 크기의 니트 조각을 따로 편직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내부가 공개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팬츠 앞 일부만을 니트로 편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패딩 원단을 사용하여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의 팬츠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팬츠의 기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카디건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카디건의 옷길이를 고려하여 팬츠 밑위길이, 허리벨트 등의 조절로 팬츠

허리둘레선을 내려 완성하였으며 짧은 옷길이로 귀엽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X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X-1의 카디건은 형태는 동일하지만 방향이 두 가지로 다른 네 장의 패턴을 편직하여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서 슬래쉬를 만들어 1cm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는데 슬래쉬는 편직하는 과정에서 절개할 부분의 코를 빼놓는 방법으로 17cm, 19cm 폭의 슬래쉬를 만들었으며 슬래쉬의 위치 선정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네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장 법 중 하나는 작품사진과 같이 위에 있는 슬래쉬를 통하여 팔을 뺀 후 아래에 있는 슬래쉬로 다시 넣고 소매부리로 손을 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슬래쉬를 모두 팔 위에 올라오게 하고 소매부리로 손을 빼는 방법이다.

소매단은 6cm 홀겹으로 길게 만들어 소매 형태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매통이 연결되지 않은 형태에서도 시각적으로 소매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직적인 소매로 사용하는 부분이 밑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매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여유분을 주어 디자인하여 편직하였다.

카디건 앞길 양쪽에는 주머니 입술만을 앞·뒷길에 사용한 원사를 이용하여 따로 편직하여 디자인 위치에 부착하였고 네크라인, 슬래쉬의 파이핑, 앞단과 밑단의 파이핑, 소매단은 아크릴사를 사용하여 편직하였다. 이 원사는 편직하였을 때 소재의 질감이 느껴지며 볼륨감이 좋고 말리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아 홀겹으로 네크라인과 소매단을 편직하였는데 네크라인은 앞여밈이 없이 열려있는 형태의 카디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리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소매단은 연결되어 있어 말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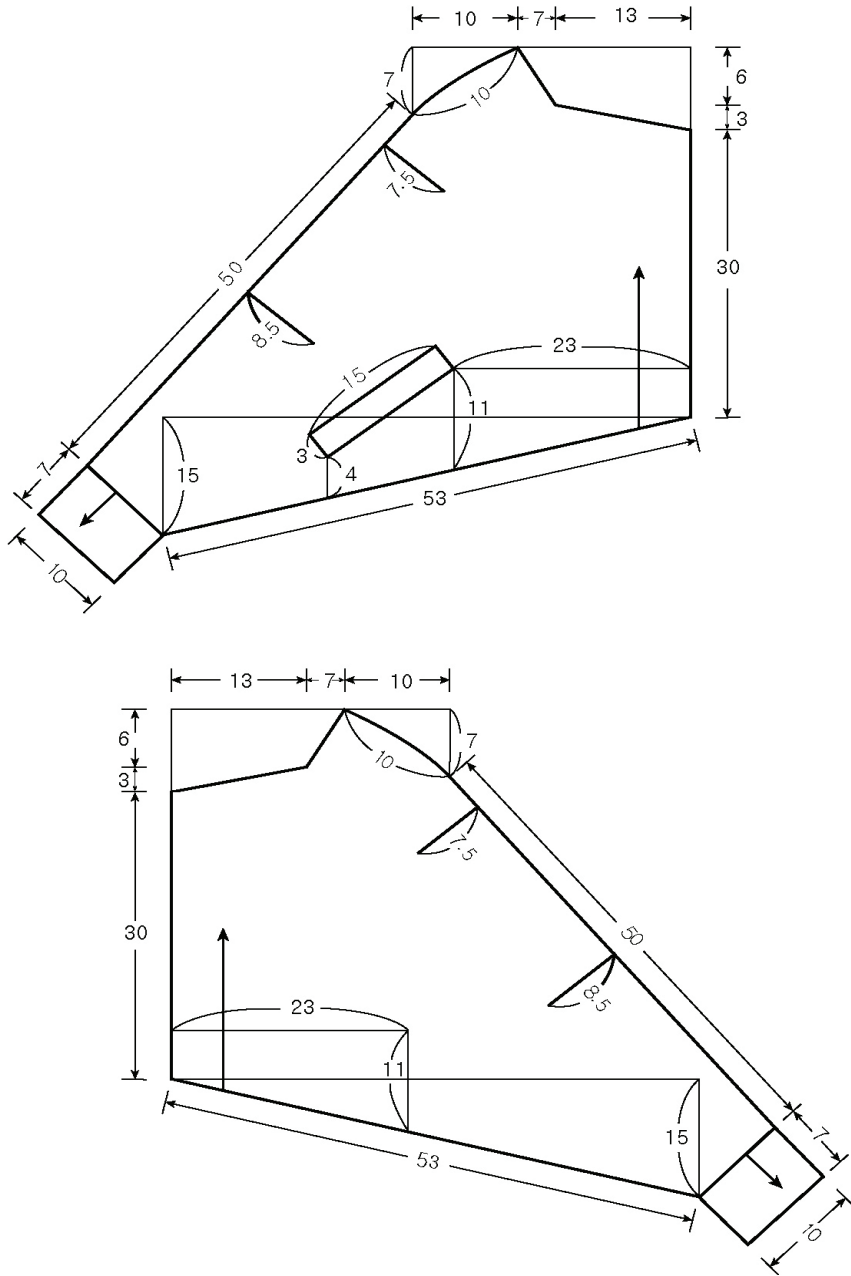
작품 X-2의 팬츠 앞 부분만 메리야스로 편직하고 뒤와 허리벨트 및 카브라에는 니트로 편직된 부분과의 색상 코디네이션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의 블루 색상의 0.5cm 패딩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모헤어를 사용하여 팬츠를 편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내부가 비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작품 VIII과 작품 IX의 경우 울을 사용하여 9GG 편기로 편직하였기 때문에 내부가 비치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었지만 작품 X-2의 경우 모헤어로 비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조직의 밀도를 높여야 하므로 모헤어 고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파손될 수 있다. 이렇게 핫팬츠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이유로 팬츠에 한하여 패딩 원단을 사용하였다.

팬츠의 앞길 슬래쉬 부분에 카디건에 사용한 아크릴 원사를 이용하여 1.5cm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 하였으며 양쪽 슬래쉬를 맞대어 윗부분은 3cm, 아랫부분은 5cm를 연결하여 슬래쉬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앞중심에 콘실 지퍼를 단 후 허리벨트를 달고 흑 앤 아이를 달아 마무리 하였다. 특히 팬츠의 뒤판은 여유분량을 자연스럽게 주름을 잡아 카브라와 연결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 X의 부드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헤어를 2함 합사하고 5GG 편기를 사용하여 편직하였고, 아크릴사는 한 올로 동일한 편기를 사용하여 편직하였다.

<표 16> 작품 X-1, Blue Dream의 작업지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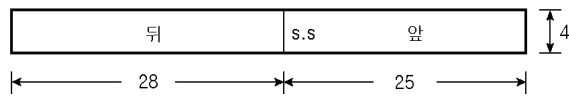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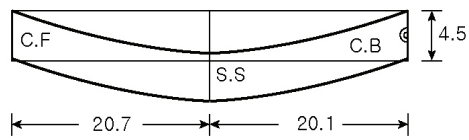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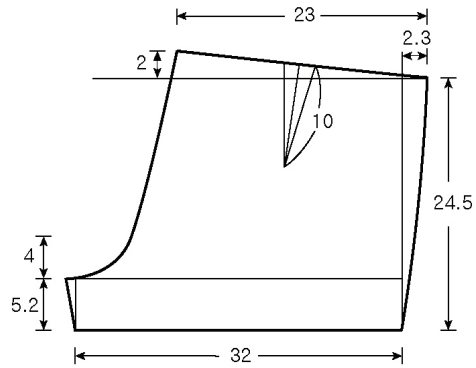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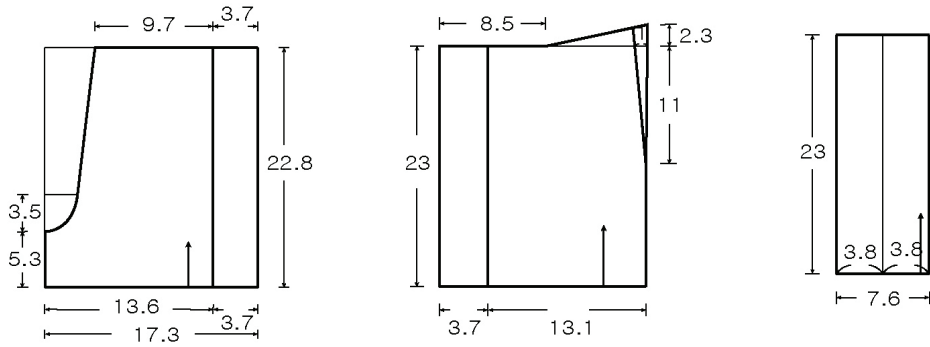
SAMPLE NO.	SAF-WCD02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CARDIGAN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mohair / acrylic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옷길이	40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57	
				넥크(고대)	40	
				넥크뒤처짐	9	
				넥크앞처짐	9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7	
				작업수량		
color	수량					
L.Blue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 포켓 위치 확인 후 부착.</li> <li>넥크, 파이핑, 소매단은 링사로 메리야스 편직.</li> </ol>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96> 작품 X-1, Blue Dream의 패턴 전개도

<표 17> 작품 X-2, Blue Dream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PN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PANTS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mohair / acrylic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5GG		
					B/2		
					옷길이	33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L.Blue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팬츠 앞판만 메리야스로 편직. 2. 팬츠 뒷판 및 허리벨트, 카브라는 패딩 원단 사용.					자재명	규격	소요량
					콘실지퍼		1
					흑&아이		1조
					패딩원단	0.5mm	1/2Y



<그림 97> 작품 X-2, Blue Dream의 패턴 전개도



<그림 98> 작품 X, Blue Dream : 앞



<그림 99> 작품 X, Blue Dream : 뒤

## 11) 작품 XI

제목 : Robin Hood

주제 : 탈현상

분류 : 분열, 붕괴

Item : Vest

원사 : Angora & Acrylic

편기 : 3GG

Color : Wine Color

작품 XI은 대중적인 캐주얼 스타일을 표현하는 동시에 탈현상의 분열, 붕괴에서 보여지는 슬래쉬를 후드, 소매 등에 만들고 후드의 크기를 과장되게 확대하여 구성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작한 베스트이다. 젊고 발랄하면서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캐주얼웨어에서 자주 활용되는 후드를 확대시키고 거기에 슬래쉬를 만들어 파이핑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코가 풀리지 않는 정도에서의 코막음 처리로 마무리하여 젊은이들의 일탈을 꿈꾸는 반항심과 비정형화된 형태를 강조하였으며 한 쪽에만 부착한 슬래쉬가 있는 반소매는 스포티한 느낌으로 작품 전체적인 캐주얼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었다.

베스트 앞·뒷길의 중간 부분에는 배색무늬를 주어 메리야스 조직의 단순하고 평이한 느낌을 변화시켰다.

작품 X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뒷길은 각각 한 장으로 메리야스 조직으로 편직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사를 계획된 디자인 위치에 맞추어 배색무늬로 편직하는 공정을 거쳤다. 이렇게 배색무늬를 넣는 부분의 원사가 주변의 원사와 색상, 질감이 다를 때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배색무늬 원사의 실 끝을 길게 남

겨 조직 사이에 잘 감추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가슴둘레선 아래 양쪽으로 25도 가량 사선으로 벌어진 앞부분에 4.5cm 너비의 1X1 고무단을 만들어 몸판과 연결하였는데, 이 때 의도적으로 일부만을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멍은 후드와 소매에 있는 슬래쉬와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한 쪽 진동에 반소매를 만들어 일부만을 연결하고 그 소매 또한 슬래쉬를 주어 결과적으로 2개의 슬래쉬를 준 듯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소매단에는 특별히 메리야스 겹단이나 고무단 같은 단을 만들지 않고 코바늘을 사용하여 짧은뜨기로 한 단 돌려 떼서 마무리 하였다.

작품 XI의 디자인 포인트라 할 수 있는 후드는 각각 한 장으로 편직한 앞길과 뒷길의 어깨를 연결한 후 넥에 남은 코를 그대로 편직하여 올라가면서 만들었다. 이러한 편직과정에서 슬래쉬의 디자인 위치에서 코를 빼내어 절개선을 주고 코막음 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말리는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 때 후드 한 쪽의 슬래쉬의 길이와 간격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으며 반대편 또한 같은 방법으로 편직하여 뒷중심에서 솔기 잇기로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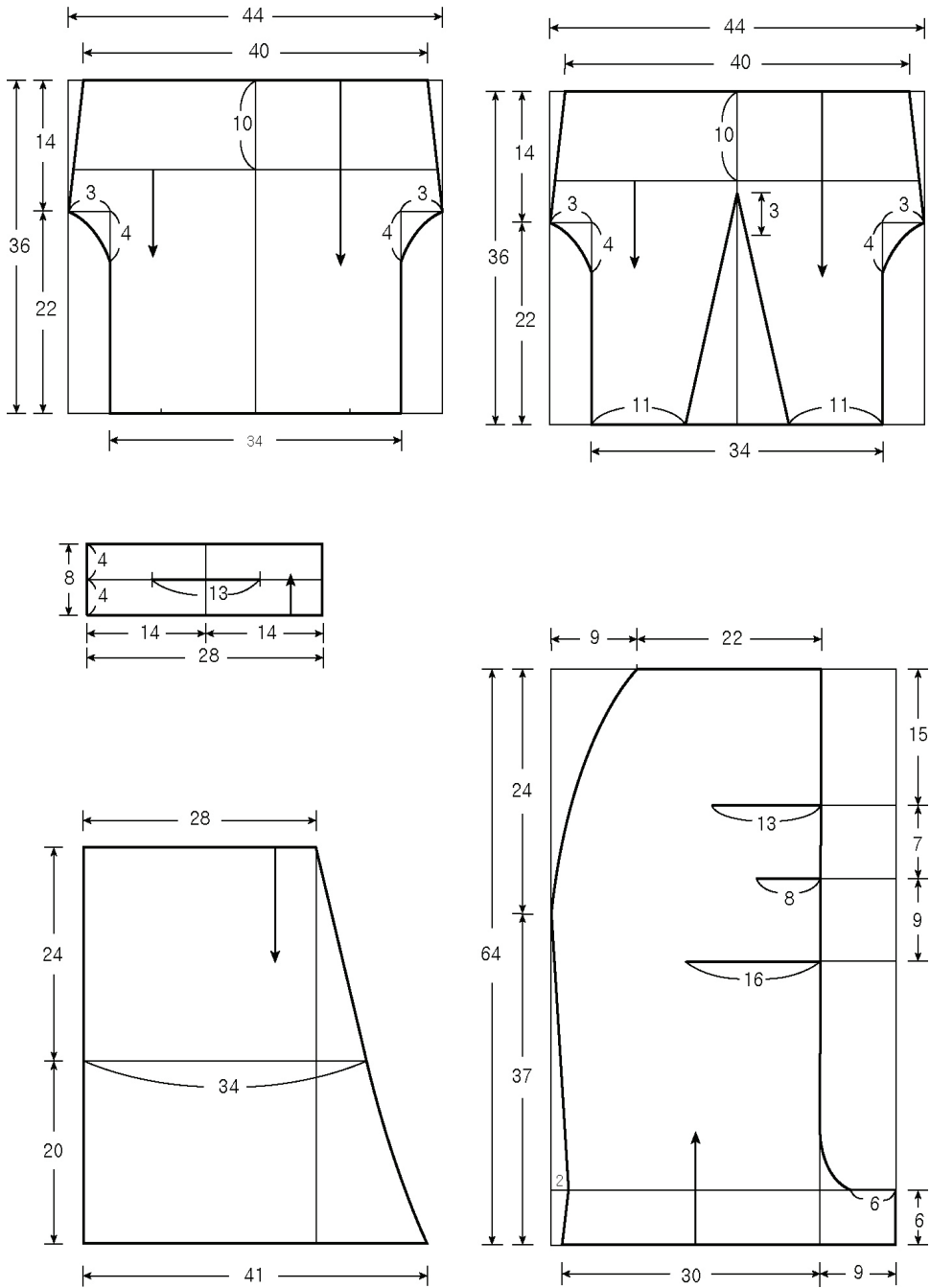
밑단은 소매단과 동일하게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였고 후드의 코막음 처리 등과 조화를 이루어 비정형적이며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양고라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과 배색무늬가 들어가는 일부분에 양고라와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다색 아크릴 루프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소재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XI에 사용된 양고라에 적합한 3GG 편기를 사용하여 편직하였고 배색무늬에 사용한 아크릴사 또한 동일한 편기로 다이얼을 낮춰 편직하였다.

<표 18> 작품XI, Robin Hood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S-WVE03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VEST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angora / acrylic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p>&lt;앞&gt;</p> <p>&lt;뒤&gt;</p>				Size Spec(cm)/ 3GG		
				B/2	42	
				옷길이	144	
				등너비	44	
				A.H/2	22	
				소매너비	14	
				소매길이	10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소매단길이						
작업수량						
color	수량					
Wine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배색무늬 위치 파악.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100> 작품XI, Robin Hood의 패턴 전개도



<그림 101> 작품XI, Robin Hood : 앞



<그림 102> 작품XI, Robin Hood : 뒤

## 12) 작품 XII

제목 : High-en Grunge

주제 : 탈현상

분류 : 분열, 붕괴

Item : Cardigan

원사 : Wool

편기 : 6.5GG

Color : Gray

작품 XII의 디자인 포인트는 구멍내기, 뒷길에 주머니달기 및 검정색 울을 사용한 메리야스 파이핑이며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면서도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 후드카디건으로 자유스런 캐주얼 이미지와 더불어 전문가적인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XI의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느낌을 갖는다. 카디건의 모든 부분을 메리야스 조직으로 편직하여 겹뜨기 조직을 작품의 겉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부분은 안뜨기조직을 볼 수 있지만 착장 시에는 불가능하며 카디건의 내부에 레이어링하여 착용한 소재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카디건 몸판에 뚫린 구멍은 크기를 다르게 하여 리듬감을 주었으며 소매의 구멍은 크기를 동일하게 하여 좌·우 균형감을 주었다.

작품 X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뒷길, 소매를 패턴과 같이 밑단과 소매단을 5cm 메리야스 겹단으로 만들면서 편직한 후 각각 5~12cm의 구멍을 몸판에 4개, 소매에 각각 1개씩 재단하여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다. 재단하기 전 니트 조직의 전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심지테이프를 이용하여 계획한 위치에 알맞은 크기로 봉제한 후 재단하여 포인트 색상인 검정색 울을 사용하여 1cm 메리

야스 파이핑 처리하였다.

미리 편직해 놓은 한 쪽 앞·뒷길의 어깨를 연결한 후 앞중심에서 뒷중심까지의 코를 걸고 후드를 편직하였고 다른 한 쪽도 같은 방법으로 편직하여 후드 중심선에서 솔기 잇기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후드를 연결하면 후드와 몸판 사이에 이음선이 생기지 않아 깔끔한 외관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앞길의 밑단에서 시작하여 후드를 돌아 반대편 밑단까지를 돌려 단 앞단은 6cm 폭의 메리야스 겹단으로 만들어 몸판과 이을 때 1cm 메리야스 파이핑을 사이에 덧달면서 앞단을 이어 붙여 스포티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소매는 스퀘어 슬리브로 만들어 부착하였으며, 소매 길이는 9부로 하여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몸판의 진동둘레와 연결되는 소매산 가까이 구멍을 만들어 1cm 메리야스 파이핑 하여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주머니는 앞길에 부착하는 식상함에서 탈피하여 뒷길의 한 쪽에 부착하여 주머니의 기능성은 부각하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주머니의 형태는 카디건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연관하여 단순한 직사각형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회색 울을 3합 합사하여 6.5GG 편기를 사용하여 편직하였고 메리야스 파이핑 처리한 부분 또한 동일한 편기를 사용하였다. 6.5GG 편기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5플라이 굵기의 원사를 사용할 때 적합한 편기이다.

<표 19> 작품XII, High-en Grunge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WCD01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CARDIGAN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6.5GG		
					B/2	50	
					옷길이	98	
					등너비	44	
					A.H/2	20	
					소매너비		
					소매길이	48	
					넥크(고대)	20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3						
허리단길이	5						
소매단길이	5						
					작업수량		
					color	수량	
					Gray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원형, 반원형 부분은 hole로 재단한 후 1cm 파이핑 처리.					자재명	규격	소요량





<그림 104> 작품XII, High-en Grunge : 앞



<그림 105> 작품XII, High-en Grunge : 뒤

### 13) 작품 XIII

제목 : Little Black Dream

주제 : 비탈현상

Item : Pullover & Pants

원사 : Wool

편기 : 9GG

Color : Black

작품 XIII은 작품 I에서 작품 XII까지의 탈현상을 응용한 디자인과는 차등을 준 작품으로 해체주의 탈현상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비탈현상의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탈현상을 주제로 한 작품과의 코디네이션을 위한 작품으로 스포티하고 경쾌한 이미지의 풀오버와 팬츠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검정 색상의 울을 사용하여 9GG 편기로 편직한 작품 XIII은 작품 V, 작품 VI의 원피스 드레스와 작품 VIII, 작품 IX의 투피스를 제외한 모든 작품과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코디네이션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색상과 소재의 질감, 베이직 디자인으로 탈현상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의 디자인 포인트를 저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작품 XIII의 세부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 XIII-1의 풀오버 터틀넥은 편직과정에서 6cm의 겹뜨기를 한 후 12cm의 안뜨기에 이어 1cm의 겹단으로 마무리 하여 터틀넥을 접었을 때 메리야스 겹뜨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편직 하였다. 이러한 과정 없이 겹뜨기로만 편직을 하였다면 접은 터틀넥은 안뜨기가 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풀오버의 모든 조직은 메리야스의 겹뜨기로 하였다.

소매는 2cm 메리야스 겹단을 만들면서 편직하였고 소매산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목관의 진동둘레에 연결하여 완성하였다.

주머니는 가로 6cm, 세로 7cm의 크기로 편직하여 앞 네크라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부착하였고 소매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맞추어 소매단이 끝나는 선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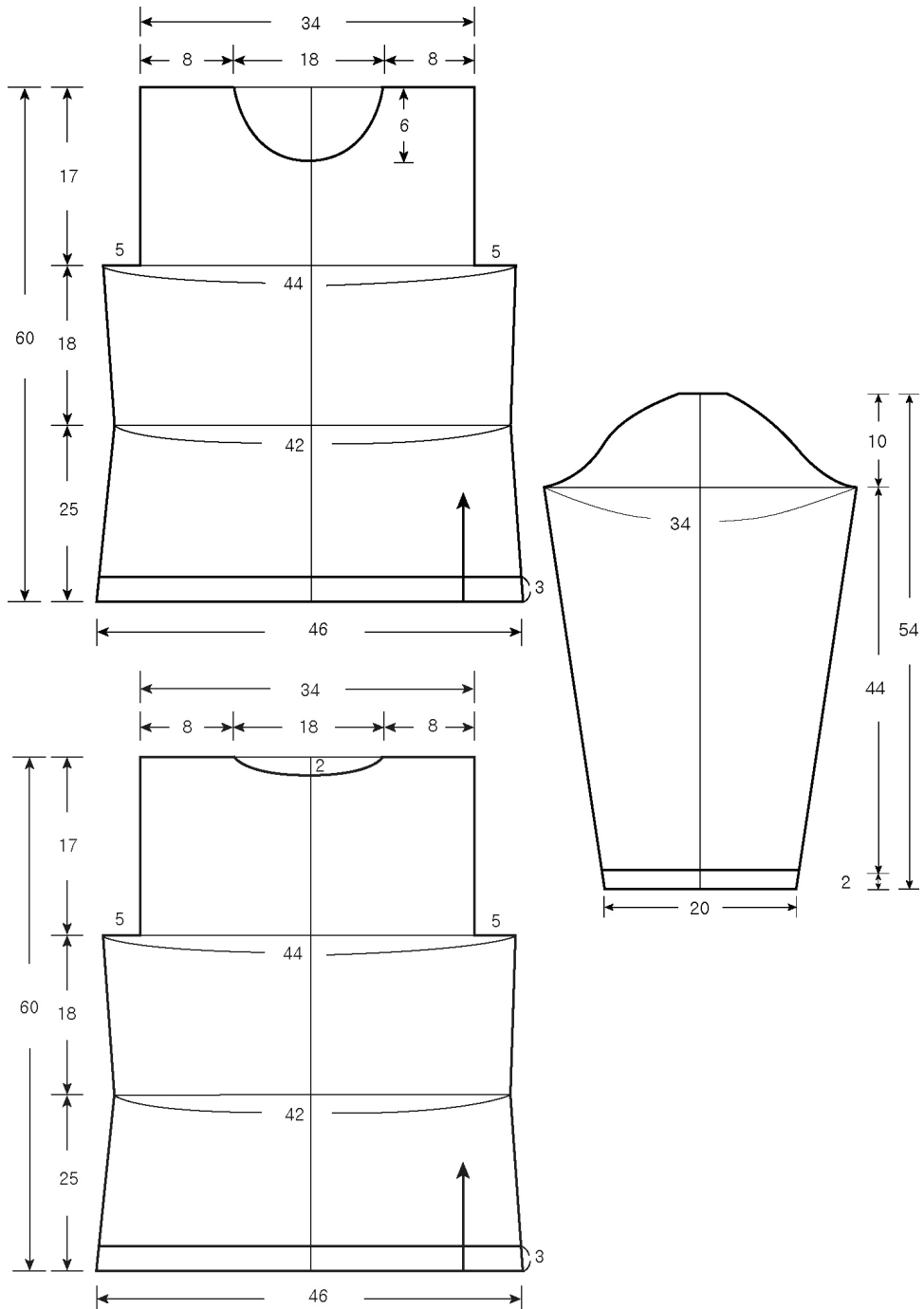
작품 XIII-2의 팬츠는 젊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연출하기 위하여 길이를 무릎까지로 디자인하여 패턴을 완성하였고 상의 폴오버와 동일한 사이즈의 주머니를 2개 만들어 팬츠 옆선의 솔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어 부착하여 투피스의 디자인적 통일감을 주었다.

팬츠 허리벨트는 메리야스 겹으로 만들어 고무 밴드를 삽입하여 착용시 흘러내리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완성하였다.

이렇게 작품 XIII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세트 또는 단품 개념으로 다른 작품들과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며 나아가 탈현상을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표 20> 작품XIII -1, Little Black Dream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WPO03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PULLOVER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Size Spec(cm)/ 9GG		
				B/2	44	
				옷길이	73	
				등너비	34	
				A.H/2	17	
				소매너비		
				소매길이		
				네크(고대)	18	
				네크뒤처짐	2	
				네크앞처짐	6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3					
소매단길이	2					
작업수량						
color	수량					
Black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1. 포켓 Size 동일하게.				자재명	규격	소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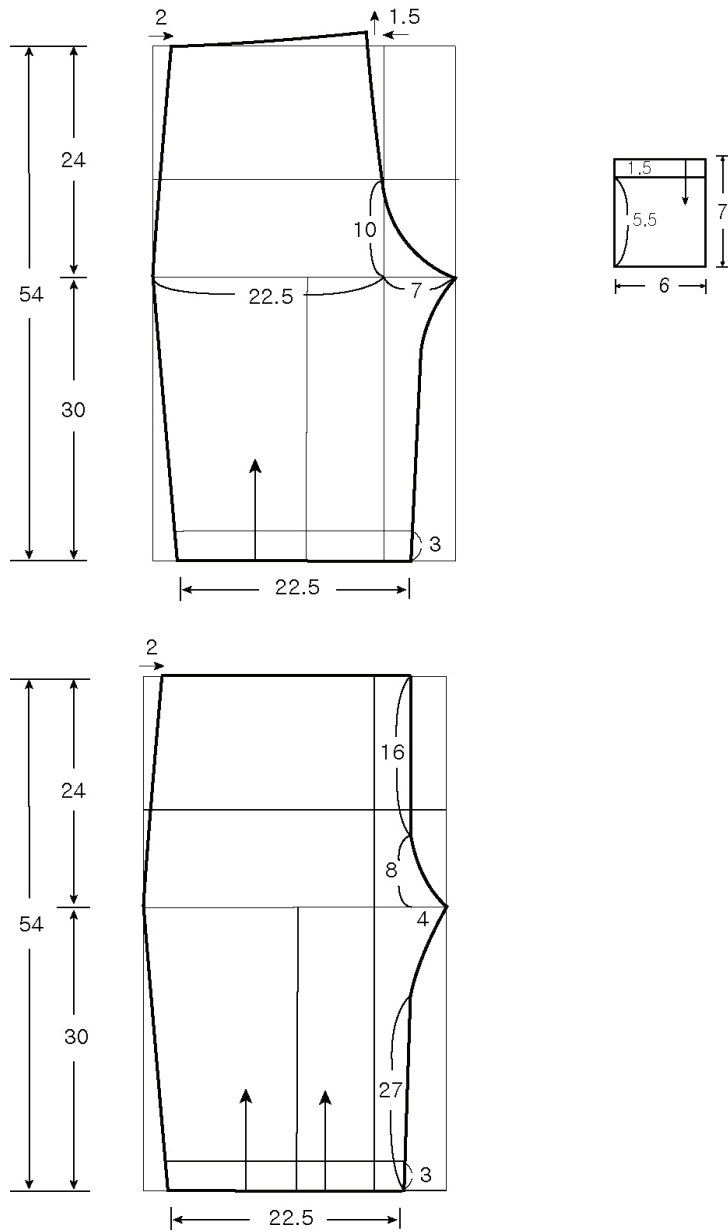


<그림 106> 작품XIII -1, Little Black Dream의 패턴 전개도

<표 21> 작품XIII -2 Little Black Dream의 작업지시서

SAMPLE NO.	SAF-WPN02	작성일자	2009년 월 일	결 제	designer	chief
ITEM	PANTS	작업지시일	2009년 월 일			
원사	wool	생산납기일	2009년 월 일			
<p>&lt;앞&gt;</p>  <p>&lt;뒤&gt;</p> 				Size Spec(cm)/ 9GG		
				B/2		
				옷길이	60	
				등너비		
				A.H/2		
				소매너비		
				소매길이		
				넥크(고대)		
				넥크뒤처짐		
				넥크앞처짐		
				어깨처짐		
				허리단길이	4.5	
소매단길이	3					
작업수량						
color	수량					
Black	1					
SWATCH						
작업시 유의사항						
원·부자재 요척						
자재명	규격	소요량				

1. 상의(폴오버) 포켓 Size와 동일하게.
2. 포켓은 옆 솔기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단다.



<그림 107> 작품XIII -2, Little Black Dream의  
패턴 전개도



<그림 108> 작품XIII, Little Black Dream : 앞



<그림 109> 작품XIII , Little Black Dream : 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니트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니트웨어의 발전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전문서적과 연구논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와 패션 전문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기획 및 작품 제작을 하였다.

연구범위는 실내·외용으로 캐주얼웨어를 선호하는 20~30대 여성의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상황 즉, 자아나 주체를 객관화시키고, 개체를 구조에 포함하는 전체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의 하부개념으로 자크 데리다에 의하여 주창되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데리다의 해체전략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인 차연(差延)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결정적이고 비종결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상호텍스트성이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결국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게 된다.

의미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현상은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단순히 통일된 전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탈현상으로 형태의 왜곡과 단편화가

나타나게 되며 전체의 이미지는 유동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듯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기존의 작품과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의류 용도로서의 섬유를 크게 분류하면 편물과 직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물의 경우는 한 가닥의 실이 코를 형성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직물에 비하여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 드레이프성,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생산성, 성형성, 전선, 컬업(curl up) 또한 직물에 비하여 크며 방추성, 내구성 등은 직물에 비하여 작다. 이러한 니트의 특성은 어떠한 것도 장·단점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셋째, 패션에서의 해체라는 용어는 전통적 구조주의의 모든 고정 관념을 거부하며 그것을 파괴하고 재구성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전통적인 상징성을 거부하고 역설적인 스타일과 의미를 부여하며 나타났다.

해체주의 복식에서 차연은 시대별 디자인 양식 대비로 인한 형태와 과거의 흔적으로 보여지는 빈티지·그런지·리싸이클 룩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의미 불확정적 복식은 착장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켜 전통적인 틀을 깨려는 해체주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상호텍스트성은 서로 다른 텍스트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복식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성·T.P.O·코디네이션·소재의 상호텍스트성 등이 있다.

탈현상은 해체주의 복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심이 기울어지 형태, 기존의 구성방식을 벗어난 형태, 무질서적인 것과 비대칭적인 형태, 분열과 붕괴로 형태를 파괴한 복식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작품제작 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

였다.

넷째, 해체주의 경향 분석을 토대로 니트 소재를 대상으로 한 해체디자인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 할 수 있는 탈현상을 다시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과 붕괴 4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주제별로 3점씩 12점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1점의 작품은 앞서 서술한 12점의 작품과는 다른 비탈현상을 주제로 제작하여 소비자가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비탈현상 아이템과의 조화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캐주얼웨어의 구매 결정 단계에서 보유 캐주얼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소비자 패션의식 때문이다.

타깃은 캐주얼웨어를 평상복 및 외출복으로 즐겨 입는 20~30대의 젊은 여성으로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아이템들과 조화를 이루어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카디건 2점, 점퍼 1점, 폴오버 3점, 베스트 3점, 레깅스 1점, 팬츠 2점, 스커트 1점, 원피스 드레스 2점 등과 세미 정장용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코트 1점, 재킷 1점 등 총 17점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09 F/W color trend를 참고하여 컬러를 기획하였으며, 해체 정도에 있어서도 차등을 주어 소비자의 수용정도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원사는 대부분의 제품이 여름을 제외한 춘·추·동의 계절제품이므로 보온성을 요구하는 만큼 울·모헤어·양고라를 주 소재로 선정하였으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겨울의 기온이 과거에 비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계절의 구분 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원사의 합사 수와 게이지 등에 변화를 주어 편직하였다. 재킷은 아이템의 형태를 고려하여 면사를 선정하고 하였다. 각각의 작품은 비교적 상세한 작품해설, 작업지시서, 패턴 전개도 및 작품사진을 제안하여 디자인과 제작방법을 필요로 하는 업계 혹은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다섯째, 작품 I 은 여성스럽고 구조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베스트로 기

존의 구성방식을 해체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왜곡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작품 II는 탈구성의 강도를 높인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태의 폴오버로 우 주인 복장을 연상시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입체패턴을 활용하여 의복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정형성을 파괴한 폴오버로 편직 과정에서 불규칙하게 주름을 잡아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이렇듯 작품 I, II, III은 탈구성 형태의 복식으로 의복의 기능 및 목적을 해체시키고 기존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여 왜곡하거나 과장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착장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코트로 랩시킨 앞길의 겹자락과 소매단에 사선으로 기울기를 주어 반(反)중력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V는 가볍고 부드러운 모헤어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연출한 원피스 드레스로 스커트의 중심을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밑단에 기울기를 만들어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검정색에 빨간색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활동적이며 세련된 감각의 재킷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밑단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탈중심적 형태를 강조하였다. 작품 IV, V, VI은 중심과 밑단이 기울어진 형태를 보이는 탈중심적 형태로 구조상의 변형을 통한 왜곡과 과장으로 시각적 착시를 유발시킴으로써 명확한 질서 아래 성립되는 복식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해체하였다.

작품 VII은 여러 가지 색상이 보여지는 모헤어를 사용하여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를 강조한 원피스 드레스로 발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은 부드러운 유선형 라인과 원사를 가볍게 사용하여 비대칭, 불연속 형태를 강조한 점퍼와 레깅스로 정형화된 점퍼와 레깅스 이미지의 탈피를 추구하였다. 작품 IX는 니트의 컬 업 되는 현상을 디자인에 적극 수용하여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로 만들어 젊고 활발한 이미지를 강조한 베스트와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작품 VII, VIII, IX는 왜곡, 변

형, 해체, 교란, 결집 등을 활용하여 상·하, 좌·우가 비대칭적인 구성 등으로 불연속을 표현하였다.

작품 X은 발랄하고 경쾌한 이미지의 카디건과 핫팬츠로 구성된 투피스로 탈현상의 분열, 붕괴를 슬래쉬로 표현하여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XI은 탈현상의 분열, 붕괴에서 보여지는 슬래쉬를 후드, 소매 등에 만들고 후드의 크기를 과장되게 확대하여 구성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제작한 베스트이며, 작품 XII는 구멍내기, 뒷길에 주머니달기 및 검정색 울을 사용한 메리야스 파이핑을 디자인 포인트로 기존의 형태를 파괴하면서도 구조적으로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 후드가디건으로 캐주얼 이미지와 더불어 전문가적인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X, XI, XII는 의도적으로 슬래쉬하고 구멍을 내는 등 복식을 분열시키고 붕괴함으로써 인체를 노출시켜 파괴적인 미를 표현하였다.

작품XIII은 탈현상을 응용한 12작품들의 디자인과는 차등을 준 작품으로 해체주의 탈현상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비탈현상의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탈현상을 주제로 한 작품과의 코디네이션을 위한 작품으로 스포티하고 경쾌한 이미지의 폴오버와 팬츠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인해 첫째, 니트웨어 제작에 있어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개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현대의 복식 경향에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과 소재의 활용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식의 개성화를 이룰 것이다. 둘째,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니트웨어 소비 위축의 위기는 다품종 고품질 소량 생산라인을 구체화시켜 복식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의 탈현상을 응용하여 독창적인 니트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시대상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복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30대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고려한 작품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가 요구하는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예술성과 독창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용 한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함으로써 향후 디자인 개발의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캐주얼웨어는 20~30대 뿐만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서도 점차 그 착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다 폭 넓은 연령대를 위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미정(2003). “E. Panofsky의 미술사학에 대한 재고찰: K. Moxey의 문화정치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제 50집, pp. 211~240.
- 강희명(2005).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니트 디자인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게일그리트하나, 김선희 편(2005). 디자인의 요소들. 서울: (주)안그라픽스.
- 권진(2006).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태일, 이동언(2003). “텍스트의 개방성과 실천성 측면에서 본 해체주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 19, No. 2, pp. 97~106.
- 금기숙,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2002). 현대 패션 100년. 서울: (주) 교문사.
- 금윤진(2005). “알렉산더 맥퀸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적 아방가르드 성향에 관한 연구: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효(1992). “구조주의와 해체주의 그리고 데리다.” 한국영미어문학회지, Vol. 43, pp. 29~52.
- 김석근(1976). 메리야스 工學. 서울: 문운당.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성련(2006). 새 의류소재. 서울: 교문사.

-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Vol. 18, No. 1, pp. 487~511.
- 김영한(1998). “해체주의와 해석학: 데리다와 가다머.” 한국현상학회지, 제 10집, pp. 272~300.
- 김옥동(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 김원갑(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경, 조대현(2000). Fashion & Textile. 서울: 교학연구사.
- 김인숙(2004). “기계 편직물에 의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여성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1999).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pp. 578~597.
-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7).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 김혜정(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정심(1994).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덕환, 이육자, 송민규(2000). 어패럴소재. 서울: 교학연구사.
- 마크 A 치담, 마이클 앤 홀리, 키스 막시 엠티, 조선령 율김(2007). 미술사의 현대적 시각들.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벨러리 멘테스, 에이미 드 라 헤이, 김정은 율김(2003). 20세기 패션. 서울: (주)시공사.

- 서희선(2006). “ ‘자연 - 해체 이미지’ 의 해석과 표현 양식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상옥(200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아사다 아키라(1995). 이정우 역.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주)새길.
- 안영무(2000). 식물학. 서울: 수학사.
- 앤드류 투커, 탐신 킹스웰, 김은옥 옮김(1999). 패션의 유혹. 서울: 예담.
- 양숙향, 김나형, 김은실(2006). 패션20세기. 서울: 교학연구사.
- 엘리너 하트니, 이태호 역(2003).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열화당.
- 오희선 편저(1997).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이광래 편(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주)교보문고.
- 이순홍(2004). 編物. 서울: 수학사.
- 이연희, 이운영, 이현숙, 진성모(2002). 패션문화. 서울: 예학사.
- 이영재(1998).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현상 연구: 19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Vol. 18, No. 1, pp. 107~121.
- 이정주, 김희술(2004). 어패럴소재 이론편. 서울: 신관출판사.
- 이호정(1991). 패션머천다이징. 서울: 교학연구사.
- 임현숙, 박민여(1999). “20세기말의 패션.”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 3(1), pp. 109~115.
- 조선희, 서경희(2003). “패션에 표현된 해체주의 조형양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II: 해체주의 이론의 형태구성상의 표현방법(형식적 해체)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연구, 제 15집, pp. 67~85.
- 조정미(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

- 연구, 제 11권, 제 6호, pp. 925~940.
- 최경희(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 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옥(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제 9권, 제 4호, pp. 574~591.
- 크리스토퍼 노리스, 앤드류 벤자민, 청람번역팀(1996). 해체주의?. 서울: 도서출판 청람.
- Michael Gelven, 김성룡 역(1991). 존재와 시간 입문서. 서울: 시간과공간사.
- Gertrude Lehnert, 박수진 역(2005). Schnellkurs Mode: 패션. 서울: 도서출판 예경.
- Penelope Deutscher, 변성찬 옮김(2005). How to read Derrida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Richard Martin Harold Koda, 이선재 역(1996). 인프라 의상. 서울: 경춘사.
- Tremelloni, Attilio & Ceriani, Leonardo, 이선희 편역 (1990). 기계니트 I, 서울: 도서출판 조형사.

## 국외문헌

- 飯塚信雄(1977). 編物の歴史 (1). 世界の編物: 保存版-3. 東京: 日本ウォーク社.
- Berman, Art(1988). *From the new criticism to deconstruction: the reception of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Brunette, Peter & Wills, David(1994). *Deconstruction and The Visual Ar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man, S.D.(2002). "The Genesis of the British Hosiery Industry 1600-1750 " *Hosiery and Knitwe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nekin, Becky., Co, Caroline(2002). *The Englishness of English Dres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Great Britain.

Culler, Jonathan(1982). *On deconstruction: theory and criticism after structur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Deutscher, Penelope(1997). *Yielding Gender: feminism, deconstruction, and the history of philosophy*, London: Routledge.

Felkin, William(1867). *A History of the machine-wrought hosiery and lace manufactures*, Longmans, Green, and Co.

Gill, Alison(1998). "Deconstruction Fashion: The Making of Unfinished, Decomposing and Re-assembled Clothes" , *Fashion Theory*, Vol. 2, Issue 1, United Kingdom: Berg Publishers

Harris, Jennifer(1993). *5000years of Textiles*, London: British Museum Company Press.

Hodge, Brooke(2006). *Skin & Bones: 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architecture*, New York: Thames & Hudson.

Kondo, Dorinne K.(1997). *About face: performing race in fashion and theater*, New York: Publisher.

- Macdonald, Anne L.(2008). *No Idle Hands*, New York: Ballentine Books.
- Palmer, Marilyn (2000). "Housing the Leicester Framework Knitters: History and Archaeology" , United Kingdom: Society The Guildhall Leicester.
- Nealon, Jeffrey T.(1996). "Double reading: postmodernism after deconstruction" ,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Norris, Christopher(1988), "Deconstruction, Postmodernism and Philosophy: Habermas on Derrida", Duluth: Praxis International,
- Norris, Christopher(2003). *De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Second Edition in 1989,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 Palmer, Alexandra., Clark, Hazel(2005). *Old clothes, new looks: second hand fashion*, United Kingdom: Berg Publishers.
- Salingaros, Nikos A.(2008). *Anti-Architecture and Deconstruction 3rd Edition*, Germany: Umbau-Verlag.
- Tompkins,Jane P.(1980). "Reader-response criticism: from formalism to post-structuralism" ,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inken, Barbara(2005). *Fashion zeitgeist: Trends and cycles in the fashion system*, New York: Berg Publishers.
- White, Nicola., Griffiths,Ian(2000). *The fashion business: Theory*,

*practice, image*, New York: Berg Publishers.

## 인터넷 자료

주요 업종별 생산/내수 전망 자료(2009), 산업연구원,

[www.kiet.re.kr](http://www.kiet.re.kr)

기후가 패션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2008), 삼성디자인연구소,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08/09년 패션시장 분석 리포트(2009), 삼성디자인연구소,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한국니트산업연구원, [www.knitcenter.re.kr](http://www.knitcenter.re.kr)

패션비즈, [www.fashionbiz.co.kr](http://www.fashionbiz.co.kr)

네이버, [www.naver.com](http://www.naver.com)

# ABSTRACT

## A Study on Knitwear Design Applying Deconstructive Deviation

Yoon, Suk-won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our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becomes diversified owing to advanced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nsumers' values and lifestyle constantly undergo considerable changes. In this historical context, it is required that fashion pursue originality and creativity accentuating each individuals by providing luxury, individuality, and differentiation while satisfying consumer needs with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In order to develop fashion design to meet these consumer needs, it is urgently demanded to devise original design elements beyond preexisting traditional formulae and also to develop appropriate, corresponding textile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dentify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deconstruction and understand its Zeitgeist and concept in sociocultural context, 2) analyze the trends of deconstructive fashion and thereby develop original and creative designs that can lead fashion, based primarily on characteristics of knitted work, and 3) perform

a further study for developing high end costume designs and culture reflecting the contemporary times.

The detailed content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sought to collect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resources as well as research papers reporting prior studies to perceive theoretical backgrounds of knitting and in order to pursue its theoretical investigation.

Secondly, this study took an approach of empirical research of various documents, fashion magazines, and website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s and concepts of deconstruction reflected in fashion. Next, it sought to analyze deconstruction in contemporary fashion into 4 major tendencies such as difference, uncertainty of significance, contextuality and deviation, and to make a detailed analysis on deviation into 4 categories such as deconstruction, de-centering, discontinuity, and division/disorganization.

Thirdly, on the basis of documentary research of theoretical background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using fashion magazines and websites,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original intentions and methods of employing original designs for knitwear, which is usually preferred by middle-aged female consumers for its elasticity and thermal insulation, to be fit for consumption by younger ages too.

Fourthly, this study selected a design concept--centering around coordination between separate pieces of garments, rather than a set of suits which are usually found in middle age groups--using decon-

structive deviation to develop a unique knitwear design that has the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to meet their younger tastes, and sought to create these pieces using a hand knitting machine.

Fifthly, this study sought to propose the favorable orientation of future costume design on the basis of works created herei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ly, deconstruction is a term which means "breaking up what is formed." It is a sub-concept of post-constructivism that appeared in the late of 1960's so as to overcome structuralist boundaries; the evil practice of totalitarianism that objectifies ego or subject and integrates any individual into a structur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deconstructive strategy proposed by Jacques Derrida, a leader philosopher of deconstructivism, into four most popular uses such as differance, contextuality, uncertainty of significance, and deviation.

Secondly, textile for clothing can fall broadly into knitted and woven fabric. Knitted work or knit refers to a technique and work that makes up linear or facial fabric by using loops of threads or strings and connecting them one after another. Since a strand of thread or string builds a loop in connection with other strands, knitting has higher elasticity than woven fabric, and also has higher flexibility, drape, thermal insulation, air permeability, moisture transpiration, productivity, formability, anti-laddering (anti-run), and curl ups.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has lower wrinkle resistance and durability

than the latter.

Thirdly, destruction in fashion terminologically refers to a refusal to any stereotype of traditional constructivism and also means destruction, reconstruction, and re-creation thereof. Differance in deconstructive costume based on deconstructive strategy advocated by J. Derrida appears as a trace of the past and a form of contrast between temporal design formulae; uncertainty of significance appears as a trial to deconstruct any stereotype about the wearing system and thereby breaking up any traditional framework. Contextuality appears as the contextuality of sexuality, T.P.O, coordination and material, and deviation appears respectively in the form of de-centering, deconstruction, discontinuity, and division/disorganization.

Fourthly, deviation is a remarkable phenomenon in deconstructive costume among others. Here, de-centering appears in a form of the slanting center, deconstruction appears in a deviant form from conventional construction, discontinuity appears in a disorderly and asymmetric form, and division or disorganization appears in a form of destroyed costumes. As shown above, this study sought to make further analysis on deconstructive deviation and applied it as a motif in the works.

Fifthly,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deconstruction shown in fashion and examines the theory of deconstruction in order to create an original casual wear design that meets both practicality and individuality depending on the influence of the ever-changing lifestyles and values of contemporary consumers who value the quality of life.

This production manufactured 3 pieces for each of the themes of deconstructive deviation--deconstruction, de-centering, discontinuity, division/disorganization--and a piece with non-deviation as its theme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nalyzed using 3GG, 5GG, 6.5GG, 9GG, and a rip-top machine that have been modified to be used domestically. Pieces I, II, III are in a form of deconstruction in which the functionality and purpose of the costume is deconstructed and they are expressed in distortion or exaggeration by destroying established composition. Pieces IV, V, VI are in a form of de-centering in which the center and the bottom hemline are lopsided. These pieces deconstruct the preexisting notions of costume which is established upon definite regularity by inducing optical illusions through distortion and exaggeration by structural modification. Pieces VII, VIII, IX expresses discontinuity asymmetrical composition through the use of distortion, transformation, deconstruction derangement, and concentration, and pieces X, XI, XII expresses a destructive beauty through revealing the human body through dividing and disorganizing costume by intentionally slashing and making openings. Piece XIII is produced with non-deviation as its theme in order to find the potentiality for a liberal coordination with the costumes produced with destructive deviation as their theme.

Since the contemporary people pursue their individuality beyond conventional uniform design, it is expected that a fusion between the historical context, cultural context, art in contemporary costumes sharing various styles, and the developments of original costume design turn-

ing from conventional formula will be helpful to realize individu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of fashion to meet these consumer need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original costume design that reflects consumer needs and the phases of time will contribute sufficiently to the growth of fashion as a high end industry.

There is no case in which any style keeps its position permanently in an ever-changing social structure. Hence, it will be required to make an ongoing study on the development of original and creative costume design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costume culture to reflect the regnant trends.